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언론정보학석사 학위논문

내집단 선호가 허위정보 및  
팩트체크 결과 수용에 미치는 영향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김 지 원

# 내집단 선호가 허위정보 및 팩트체크 결과 수용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이 은 주

이 논문을 언론정보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김 지 원

김지원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6월

위 원 장 \_\_\_\_\_ 윤 석 민 (인)

부위원장 \_\_\_\_\_ 김 현 석 (인)

위 원 \_\_\_\_\_ 이 은 주 (인)

## 국문초록

허위정보의 확산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이에 사회적 우려와 함께 이를 교정하고자 하는 팩트체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허위정보의 어떠한 특징이 허위정보 및 팩트체크 수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 연구에서 부정적인 내용의 허위정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함에 따라 긍정적인 내용의 허위정보가 가지는 효과에 대한 논의는 미흡했다는 점에서 허위정보의 유인가에 따라 허위정보 및 팩트체크에 대한 수용이 달라질 수 있는지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허위정보 유인가의 효과가 허위정보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토대로 집단 정체성(내집단 vs. 외집단)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나아가 개인의 내집단 동일시 수준이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조절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때, 메시지에 대한 신뢰라는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고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2(허위정보 유인가: 긍정 vs. 부정) x 2(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내집단 vs. 외집단)의 요인설계로 온라인 실험을 진행하였다(N = 680). 먼저 허위정보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허위정보 유인가의 효과는 허위정보 대상이 내집단일 때, 외집단일 때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정보 유인가를 기준으로 보면, 긍정적인 허위정보의 경우 허위정보 대상이 외집단일 때와 내집단일 때의 신뢰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부정적인 허위정보의 경우 대상이 외집단일 때 내집단일 때보다 더 신뢰하였다.



이 같은 허위정보 유인가와 집단 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허위 정보 주제가 사회·문화인 경우에 뉴스 이용자의 내집단 동일시 수준이 높을수록 더 크게 나타났다. 반면 팩트체크에 대한 신뢰도에 있어서는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간 상호작용 효과, 그리고 내집단 동일시의 조절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간 이원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긍정적 허위정보일 때는 허위정보 대상 내집단인 경우가 외집단의 경우에 비해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부정적 허위정보일 때는 내집단일 때 외집단에 대해서보다 더 비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팩트체크 전후 태도 변화에 있어서는 허위정보 대상이 내집단인 경우가 외집단인 경우에 비해 팩트체크 결과의 방향으로 태도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에 있어 내집단 동일시에 따른 조절효과의 경우,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에 따른 허위정보 유인가의 효과 차이가 내집단 동일시가 클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절효과는 팩트체크 전후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량을 비교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허위정보 주제가 사회·문화인 경우에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그동안 주로 부정적인 유인가로 한정되어 분석되어왔던 허위정보를 긍정적인 허위정보에 대해서도 살펴봄으로써 허위정보 논의의 범위를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허위정보 유인가에 따른 정보 수용이 허위정보의 대상이 ‘우리’인지 ‘그들’인지, 나아가 내집단 동일시 정도가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팩트체크의 효과가 메시지 신뢰라는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허위정보에서 다른 대상에 대한 태도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이를 토대로 향후 팩트체크 저널리즘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허위정보, 팩트체크, 유인가, 집단 정체성, 내집단 선호, 내집단 동일시

학 번 : 2020-29427

# 목 차

제 1 장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제 2 장 이론적 배경 .....	7
제 1 절 허위정보와 팩트체크에 대한 선행 연구 .....	7
제 2 절 허위정보의 유인가와 부정성 편향 .....	11
제 3 절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	15
1. 사회 정체성 이론과 내집단 선호 .....	15
2. 내집단 동일시에 따른 효과 차이 .....	20
제 4 절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 .....	23
제 3 장 연구가설 및 연구문제 .....	27
제 4 장 연구 방법 .....	31
제 1 절 연구 개요 .....	31
1. 연구 설계 .....	31
2. 실험 자극물 .....	32
3. 참여자 .....	38
제 2 절 주요 변인 .....	39
1. 실험 요인 .....	39
2. 메시지 신뢰도 .....	40
3. 대상에 대한 태도 .....	41
4. 내집단 동일시 .....	43
5. 통제 변인 .....	46
6. 조작 검증 .....	47

제 5 장 연구 결과 .....	48
제 1 절 조작 검증 결과 .....	48
제 2 절 기술 통계치 및 상관관계 검증 .....	49
제 3 절 가설 검증 .....	51
1. <연구가설 1> 검증 .....	51
2. <연구가설 2> 검증 .....	58
3. <연구가설 3> 검증 .....	62
4. <연구가설 4> 검증 .....	68
5. <연구문제 1> 검증 .....	70
6. <연구문제 2> 검증 .....	85
제 6 장 종합 논의 .....	100
제 1 절 연구 결과 및 논의 .....	100
1. <연구가설> 요약 및 논의 .....	100
2. <연구문제> 요약 및 논의 .....	103
제 2 절 연구 함의 .....	105
제 3 절 연구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	108
참고문헌 .....	114
부록 .....	124
Abstract .....	140

## 표 목 차

[표 1] 실험 집단 .....	31
[표 2] 허위정보 기사 주제 .....	34
[표 3] 실험 조건별 세부 참여자 구성 .....	39
[표 4] 국가 정체성 동일시 측정 문항 .....	45
[표 5] 유인가에 대한 각 집단별 조작 검증 일표본 $t$ 검정	49
[표 6]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치 .....	50
[표 7] 주요 변인간 상관계수 .....	51
[표 8] 허위정보 신뢰도에 대한 혼합분산분석 결과 (허위정보 유인가 x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x 허위정보 주제) .....	52
[표 9] 허위정보 신뢰도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허위정보 유인가 x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허위정보 주제 : 국제·정치) .....	54
[표 10] 허위정보 신뢰도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허위정보 유인가 x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허위정보 주제 : 사회·문화) .....	56
[표 11] 팩트체크 신뢰도에 대한 혼합분산분석 결과 (허위정보 유인가 x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x 허위정보 주제) .....	60
[표 12] 허위정보 신뢰도에 대한 삼원상호작용 효과 (허위정보 유인가 x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x 내집단 동일시) (허위정보 주제 : 국제·정치) .....	63
[표 13] 허위정보 신뢰도에 대한 삼원상호작용 효과 (허위정보 유인가 x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x 내집단 동일시) (허위정보 주제 : 사회·문화) .....	64

[표 14] 팩트체크 신뢰도에 대한 삼원상호작용 효과 (허위정보 유인가 x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x 내집단 동일시) .....	69
[표 15]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에 대한 혼합분산분석 결과 (허위정보 유인가 x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x 허위정보 주제) .....	71
[표 16]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허위정보 유인가 x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허위정보 주제 : 국제·정치) .....	73
[표 17]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허위정보 유인가 x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허위정보 주제 : 사회·문화) .....	75
[표 18]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에 따른 팩트체크 전후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 대응표본 t검정 결과 .....	78
[표 19] 팩트체크 전후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에 대한 혼합 분산분석 결과 (허위정보 유인가 x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x 허위정보 주제) .....	79
[표 20] 팩트체크 전후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에 대한 이원분산 분석 결과 (허위정보 유인가 x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허위정보 주제 : 국제·정치) .....	81
[표 21] 팩트체크 전후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에 대한 이원분산 분석 결과 (허위정보 유인가 x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허위정보 주제 : 사회·문화) .....	83
[표 22]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에 대한 삼원상호작용 효과 (허위정보 유인가 x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x 내집단 동일시) (허위정보 주제 : 국제·정치) .....	86

[표 23]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에 대한 삼원상호작용 효과  
(허위정보 유인가 x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x  
내집단 동일시) (허위정보 주제 : 사회·문화) ..... 90

[표 24] 팩트체크 전후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에 대한 삼원상호  
작용 효과 (허위정보 유인가 x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x 내집단 동일시) (허위정보 주제 : 국제·정치)  
..... 95

[표 25] 팩트체크 전후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에 대한 삼원상호  
작용 효과 (허위정보 유인가 x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x 내집단 동일시) (허위정보 주제 : 사회·문화)  
..... 96

## 그 립 목 차

[그림 1] 실험 과정 .....	32
[그림 2] 한국인의 전 세계 20개 주요국 호감도 .....	33
[그림 3] 팩트체크 판정 결과 뱃지 .....	35
[그림 4] 실험 자극물1 : 허위정보 기사 예시 .....	36
[그림 5] 실험 자극물2 : 팩트체크 기사 예시 .....	37
[그림 6] 감정 온도계 예시 .....	43
[그림 7-1]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에 따른 허위정보의 신뢰도 집단별 평균 비교(1) (허위정보 주제 : 국제·정치) .....	54
[그림 7-2]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에 따른 허위정보의 신뢰도 집단별 평균 비교(2) (허위정보 주제 : 국제·정치) .....	55
[그림 8-1]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에 따른 허위정보의 신뢰도 집단별 평균 비교(1) (허위정보 주제 : 사회·문화) .....	57
[그림 8-2]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에 따른 허위정보의 신뢰도 집단별 평균 비교(2) (허위정보 주제 : 사회·문화) .....	57
[그림 9-1]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에 따른 팩트체크의 신뢰도 집단별 평균 비교(1) .....	61
[그림 9-2]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에 따른 팩트체크의 신뢰도 집단별 평균 비교(2) .....	61
[그림 10] 허위정보 유인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내집단 동일시에 따른 허위정보의 신뢰도 집단별 평균 비교 (허위정보 주제 : 사회·문화) .....	67
[그림 11-1]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에 따른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 집단별 평균 비교(1) (허위정보 주제 : 국제·정치) .....	73
[그림 11-2]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에 따른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 집단별 평균 비교(2) (허위정보 주제 : 국제·정치) .....	74
[그림 12-1]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에 따른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 집단별 평균 비교(1) (허위정보 주제 : 사회·문화) .....	76
[그림 12-2]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에 따른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 집단별 평균 비교(2) (허위정보 주제 : 사회·문화) .....	76
[그림 13-1]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에 따른 팩트체크 전후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 집단별 평균 비교(1) (허위정보 주제 : 국제·정치) .....	81
[그림 13-2]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에 따른 팩트체크 전후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 집단별 평균 비교(2) (허위정보 주제 : 국제·정치) .....	82
[그림 14-1]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에 따른 팩트체크 전후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 집단별 평균 비교(1) (허위정보 주제 : 사회·문화) .....	84
[그림 14-2]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에 따른 팩트체크 전후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 집단별 평균 비교(2) (허위정보 주제 : 사회·문화) .....	84
[그림 15] 허위정보 유인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내집단 동일시에 따른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 집단별 평균 비교(허위정보 주제 : 국제·정치) ..	89
[그림 16]	허위정보 유인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내집단 동일시에 따른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 집단별 평균 비교(허위정보 주제 : 사회·문화) ..	93
[그림 17]	허위정보 유인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내집단 동일시에 따른 팩트체크 전후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 집단별 평균 비교 (허위정보 주제 : 사회·문화) .....	99

## 부록

[부록1] [자극물1 : 허위정보] <내집단, 긍정> 기사	.....	124
[부록2] [자극물1 : 허위정보] <내집단, 부정> 기사	.....	125
[부록3] [자극물1 : 허위정보] <외집단, 긍정> 기사	.....	126
[부록4] [자극물1 : 허위정보] <외집단, 부정> 기사	.....	129
[부록5] [자극물2 : 팩트체크] <내집단, 긍정> 기사	.....	132
[부록6] [자극물2 : 팩트체크] <내집단, 부정> 기사	.....	133
[부록7] [자극물2 : 팩트체크] <외집단, 긍정> 기사	.....	134
[부록8] [자극물2 : 팩트체크] <외집단, 부정> 기사	.....	137

## 제 1 장 연구 배경 및 목적

흔히 ‘가짜뉴스(fake news)’라고 일컬어지는 허위정보는 이제 우리 일상 속에 깊이 들어와 그 확산세를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과거부터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가짜뉴스의 심각성과 우려가 더욱 제기되고 있는 배경에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틱톡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등장이 자리잡고 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와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의 경쟁 구도 속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공격하는 가짜뉴스가 SNS상에서 양산되어 확산되면서 가짜뉴스가 주목받기 시작하였는데(황용석·권오성, 2017), 이러한 가짜뉴스는 단지 정치적 사안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셀러브리티와 같은 특정 인물,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정 이슈 등으로 그 확산 속도와 종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최근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는데, 사람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루머와 거짓말들이 쏟아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에 현혹되어 실제로 크고 작은 피해를 보기도 하였다(김민경, 2020). 가짜뉴스의 폐해가 이처럼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넘어, 의료·보건 분야 등 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우려와 함께 가짜뉴스를 판단하고 이를 교정하려는 역할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가짜뉴스”라는 표현은 역사적으로 단일한 의미로 쓰였다고 보기 어렵는데, 그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논란을 낳고 있다. 풍자적 가짜뉴스, 루머,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 그리고 기만적 혹은 조작 정보(disinformation) 등 다양한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됐으며, 언론보도 양식을 차용한 메시지에서도 그렇지 않은 것까지 표현양식을 구분하지 않고 가짜뉴스가 지칭하는 대상이 넓어졌다(황용석·권오성, 2017). 황용석과

권오성은 이러한 가짜뉴스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히, ‘잘못된 정보’와 ‘기만적 정보’의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의도적으로 기만하는 정보인지 여부는 정보, 잘못된 정보, 기만적 정보를 구분하는 핵심적인 기준이며 이때 잘못된 정보는 발화자의 ‘의도성’과 관계없이 부정확하고 잘못된 정보를 모두 지칭하는데, 잘못된 정보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넓게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잘못된 정보의 개념은 (1) 언론의 보도가 부정확하고 사실과 다를 때 부르는 오보, (2) 대중이 있음직한 사실을 입소문이나 소셜 네트워크 등을 통해 전파하는 소문 또는 루머, (3) 잘못을 알고 상대를 비판하거나 비꼬기 위해 의도적으로 쓰이는 패러디와 풍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황용석·권오성, 2017, 59쪽)

한편, 기만적 정보 혹은 조작정보는 역시 잘못된 정보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이 용어는 특정한 의도성을 가지고서 정교하게 고안된 가짜 정보를 뜻하며, 기만성의 개념 안에는 행위의 의도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한다(황용석·권오성, 2017). 이와 관련하여 해외에서는 2017년 3월 3일,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유럽안보협력기구 언론자유담당관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OSCE) Representative on Freedom of the Media),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아프리카 인권위원회(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ACHPR)의 4개 국제기구가 ‘표현의 자유, 가짜뉴스, 조작정보 및 프로파간다에 대한 공동성명(Joint Declaration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Fake News”, Disinformation and Propaganda)’을 발표하면서, 가짜뉴스 또는 비객관적 정보 등 막연하고 모호한 개념에 기반한 정보의 확산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는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국제적 기준과 양립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2018년

3월 12일, 유럽위원회는 학자, 언론인, 플랫폼 사업자 등 39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조작정보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Disinformation)’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하였는데, 해당 보고서에서는 모든 종류의 조작정보를 ‘가짜뉴스’라는 용어로 모호하게 표현하는 경향을 지적하면서, ‘가짜뉴스’라는 용어 사용을 자제하고 대신 ‘조작정보(disinform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조작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공에 피해를 끼치거나 이익을 위해 설계, 제시, 유포되는 허위이거나, 부정확하거나,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모든 형태의 정보”라고 정의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18, p. 3). 이러한 정의는 오늘날 미디어에서 유통되는 조작정보가 진실과 거짓이 혼재되어 있고 뉴스의 형식으로뿐만 아니라 댓글이나 메시지, 조작된 SNS 팔로어, 조작된 이미지, 음성, 동영상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조작정보 현상의 범위를 ‘뉴스(news)’라는 용어에 한정하여 살펴보는 것에 대한 우려에 기반한다(김선호, 2018). 한편, 염정윤과 정세훈(2018) 역시 가짜뉴스는 ‘가짜’라는 내용적 특징과 ‘뉴스’라는 형식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내용적 차원에서 ‘가짜’는 일종의 허위정보(misinformation)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허위정보가 가짜뉴스인 것이 아니며, 가짜뉴스는 허위정보의 하위 개념에 속하거나 구분된다고 할 수 있는 조작정보(disinformation)의 개념과 더욱 유사하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통상 사용되는 ‘가짜뉴스’라는 용어 사용에 있어 유발될 수 있는 혼란을 피하고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허위정보(misinform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비록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만들어 내거나 유포하는 조작정보가 아닐지라도 사실 관계가 부정확하거나 오도하는 정보는 대상과 분야를 가리지 않고 확산되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을 현혹함으로써 정보 이용자의 입장에서 작성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허위정보는 ‘허위’, ‘부정확’, ‘오도’ 등의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허위정보에 대한 기존 연구들 역시 부정적인 내용의 허위정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들을 진행해왔다. ‘허위’, ‘부정확’, ‘오도’의 의미에는 단순히 부정적인 정보뿐 긍정적인 정보 역시 포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부정적인 유인가(valence)를 지닌 허위정보를 연구의 조작물로서 사용해왔다(김민경, 2020; De keersmaecker & Roets, 2017; Thorson, 2016). 톨슨(Thorson, 2016)의 연구에서는 교정된 허위정보가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서 자극물로서 정치적 맥락에서 특정 후보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흉악범으로부터 선거 현금을 받았다는 부정적인 정보를 구성하여 제시하였으며, 드 키어스메커와 로이즈(De keersmaecker & Roets, 2017)는 사람들이 그들의 초기 평가의 기반이 된 중요한 정보가 잘못되었음을 알게 된 이후에 어떻게 그들의 판단을 변화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실험에서, 한 여성이 디자이너 의류를 사기 위하여 병원에서 2년간 약품을 절도하고 이를 거리에서 불법 판매하였다는 제시문을 제시하였다. 김민경(2020) 역시 완치 불가능한 신종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출현했다는 부정적인 내용의 자극물을 제시함으로써 팩트체크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연구들에서 허위정보는 그 용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맥락 속에서 주로 부정적인 내용의 허위정보를 실험 자극물로서 사용해 왔으나, 긍정적 허위정보가 기존의 부정적 허위정보와 비교하여 정보 수용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허위정보를 교정하려는 팩트체크 수용에 있어서도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허위정보 유인가의 효과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조절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에 주목한다. 집단 정체성은 성별, 연령, 인종, 종교 등 다양한 기준으로 정의되는 바,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는 근거로 작용하는데, 이러한 집단 구분을 통해 형성된 집단 정체성은 자아 개념의 일환으로 인식된다(Turner, Brown, & Tajfel, 1979; Turner, Hogg, Oakes, Reicher, & Wetherell, 1987). 이때,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과 동일시되면서,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를 선

호하고 부정적인 가치는 배척하는 형태의 내집단 선호의 경향성이 나타나게 된다(Turner et al., 1979). 반면, 외집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특성에 주목하고 긍정적인 가치는 외면하는 형태의 외집단 차별이 나타난다. 이러한 사회 정체성 이론(Tajfel, Billig, Bundy, & Flament, 1971; Turner et al., 1979; Turner et al., 1987)에 따른 내집단 선호와 외집단 차별의 형태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현상이 바로 최근 ‘국뽕’ 콘텐츠라 불리는 메시지이다. ‘국뽕’은 국가의 ‘국’과 마약 이름인 히로뽕에서 ‘뽕’을 합쳐 만든 신조어로, 해외 반응을 바탕으로 국가의 권위나 위세를 강조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지칭하는데, 특히 유튜브에서 30만~70만 정도의 구독자를 보유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장르라고 할 수 있다(하헌기, 2021). ‘국뽕’은 소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뽕 신드롬”이라는 표현도 사용기도 한다(장휘·송경호, 2021). 국뽕 콘텐츠는 ‘○○이 △△하는 것이 충격적인 이유’ ‘○○이 △△한다고 하자 벌어진 기적 같은 사건’과 같이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자극적이고 선동적 단어가 총동원되며, 주로 국내외 언론 기사나 번역 사이트 자료, 외국인 인터뷰 내용 또는 댓글 등을 인용해 영상을 만들지만, 영상에서 인용하는 자료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과장된 주장인 경우가 적지 않으며(김건희, 2020), 이로 인해 과장과 날조를 통한 ‘국뽕’ 허위정보가 확산되기도 한다. 이처럼 사람들은 소속감을 가지길 바라며 이를 얻기 위한 손쉬운 방법으로써 ‘국뽕’ 콘텐츠를 이용하며, 이러한 콘텐츠는 혐일, 혐중 등 다른 나라와 그 문화에 대해 매우 배타적이고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과 한국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하게 된다(이예슬, 2021).

이러한 극단적 예시처럼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활용하거나 조작 및 날조가 쉽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라는 내집단의 높은 위상을 실감하고자 하는 수용자들에게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 허위정보는 무분별하게 소비되고 일종의 콘텐츠 장르이자 놀이문화로서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허위정보에 대한 수용은 사후 허위정보를 교



정하려는 팩트체크 결과의 수용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허위정보의 심각성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허위정보를 교정하고자 하는 대응책으로 팩트체크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허위정보의 유인가 및 대상의 집단 정체성이 팩트체크 수용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허위정보 유인가가 긍정인지 부정인지에 따른 허위정보 및 팩트체크 효과가 허위정보의 대상이 누구인지, 집단 정체성을 기준으로 내집단인지 외집단인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허위정보 유인가와 관련하여 부정성 편향(Baumeister, Bratslavsky, Finkenauer, & Vohs, 2001)에 따르면 부정적인 정보가 긍정적인 정보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는 한편, 사회 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내집단의 긍정적인 속성을 선호하고 외집단의 부정적인 속성을 강조하려는 내집단 선호 및 외집단 차별의 경향성이 나타난다는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집단 정체성의 효과는 내집단에 대한 동일시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허위정보나 팩트체크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정보의 신뢰도와 같은 인지적 측면의 효과를 주로 확인한 데 비해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 역시 정보 수용의 결과 발생하는 중요한 효과로 파악한다. 따라서 허위정보 노출 후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와 팩트체크 노출 후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허위정보 유인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집단 동일시 정도가 허위정보가 다루는 대상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제 2 장 이론적 배경

### 제 1 절 허위정보와 팩트체크에 대한 선행 연구

허위정보에 대한 논의는 허위정보를 교정하려는 팩트체크 연구와 함께 논의되고 있다. 단순히 허위정보를 누가, 어떤 조건 하에서 믿게 되는지에 대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이를 어떻게 교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허위정보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교정하고자 하는 허위정보의 특성에 따른 팩트체크의 효과 차이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허위정보는 앞서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화자의 ‘의도성’과 관계없이 부정확하고 잘못된 정보를 모두 지칭하는 것으로,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른 오보, 입소문이나 매체를 통하여 전파되는 있음직한 소문, 의도적으로 상대를 비판하기 위해 사용되는 메시지 등을 모두 포함한다(황용석·권오성, 2017). 최근 허위정보의 심각성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해진 배경에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과 소셜미디어의 등장은 일반 대중들도 정보 생산 능력을 갖추게 하였고, 누구나 쉽게 정보 생산과 유통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소셜미디어나 포털 사이트는 전통 미디어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염정운·정세훈, 2018). 관련하여 엘콧과 겐츠클(Allcott & Gentzkow, 2017)는 허위정보에 대한 논의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원인으로 크게 4가지를 제시하였다. 기존에는 매체들이 자신들의 평판이나 명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허위정보를 보도하기 어려웠다면, 이제는 누구나 미디어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수익화할 수 있는 등 미디어 산업의 진입 장벽이 급격히 낮아졌다. 또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데에 용이한 소셜미디어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주류 미디어가 뉴스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할 것이라는 신뢰 감소는 허위정보 확산의 원인이자 결과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상대 진영에 대한 부정적 감정의 증가는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허위정보를 믿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허위정보는 형식적 차원에서 외형상 일반적인 뉴스의 구조와 양식을 갖춘 형태들이 주를 이루는데, 정보가 전달되는 외적인 형태의 차이만으로도 독자들의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사 형식으로 제시되고 있는 허위정보에 더욱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수용하는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염정윤·정세훈, 2018). 특히 최근에는 단순히 텍스트로 이루어진 기사 형식을 넘어 이미지, 영상 등의 형태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보다 쉽게 대중들에게 노출되면서 허위정보에 대한 심각성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허위정보 확산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한편,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허위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보다 쉽고 빠르게 만들었지만, 핵심은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허위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하는가일 것이다(염정윤·정세훈, 2018). 허위정보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개인수준에서의 특성이 허위정보를 인식하는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김은정, 유흥식, 2020; 염정윤, 정세훈, 2018; 조은희, 2019; Jones-Jang, Mortensen, & Liu, 2021; Pennycook & Rand, 2019). 예컨대 미디어, 정보, 뉴스 및 디지털 리터러시가 허위정보 인식에 미치는 영향(Jones-Jang et al., 2021), 허위정보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개인의 분석적 사고력과 편향적 태도의 영향(Pennycook & Rand, 2019) 등 개인적 특성이 허위정보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국내에서도 염정윤과 정세훈(2018)은 허위정보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수용자의 심리적 기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허위정보와의 신념 일치 여부를 조사하였고, 조은희(2019)는 뉴스 미디어의 이용과 신뢰가 허위정보의 인식, 식별, 수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연령과 학력, 뉴스 미디어 이용유형, 미디어 신뢰유형 등이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밝혔다. 김은정과 유흥식(2020)은 이념 성향과

강도, 적대적 매체 지각, 미디어 리터러시가 허위정보 수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뉴스 이용자의 특성들뿐만 아니라 허위정보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허위정보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허위정보에 대한 인식에 있어 개인 차원의 특징뿐만 아니라 허위정보 메시지의 속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주목한다.

한편, 이러한 논의들은 허위정보를 교정하고 그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대응책으로서의 팩트체크 관련 논의의 토대가 된다. 허위정보의 해결방안으로 제시되는 팩트체크는 저널리즘의 한 형태로서 오류나 거짓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Amazeen, 2015). 정성욱(2021)은 팩트체크 뉴스를 “정치가와 모든 선출직 공직자, 여론 주도층 인사 그리고 권력 기관이 언급한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은 물론 소셜미디어에 오르내리는 소문에 대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공정한 전문가의 의견 등을 근거로 사실 여부를 알려주는 뉴스”(236쪽)라고 정의했다. 김민경(2020)은 기존 팩트체크 관련 문헌들을 토대로 “팩트체크 뉴스란 대중에게 널리 확산된 특정 정보, 그 중에서도 사회적 갈등 또는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의 사실 관계를 제도권 언론 혹은 시민 사회가 추적하여 확인함으로써 사회에 끼칠 수 있는 해당 정보의 피해를 예방하는 목적의 보도 양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6쪽)고 밝혔다. 이러한 관점에서 팩트체크 뉴스의 검증 대상은 ‘의견’이나 ‘주장’이 아닌 ‘검증 가능한 사실’에 한정되어야 하는데, 의견이나 주장은 정확성과 진실성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달리 말해 ‘사실성’이 없기 때문이다(정성욱, 2021).

허위정보로 인한 사회적 우려 및 피해를 고려하였을 때, 팩트체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러한 팩트체크가 실제로 허위정보를 교정시키는지 그 효과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팩트체크 뉴스가 허위정보를 판정한다 하더라도 뉴스 이용자들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 허위정보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강화될 수도 있다(김민경, 2020). 니미넨과 라펠리(Nieminen & Rapeli, 2019)는 정치적 내용을 다

른 팩트체크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팩트체크의 효과성에 관한 결과들은 혼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어떤 연구의 경우 팩트체크가 잘못된 인식을 감소시킨다고 밝힌 반면, 다른 연구들은 교정정보가 비효율적임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선행 연구들(염정운·정세훈, 2018; 정성욱, 2021; Bode & Vraga, 2018; Nieminen & Rapeli, 2019; Nyhan, Porter, Reifler, & Wood, 2020; Nyhan & Reifler, 2010)에서는 팩트체크 뉴스의 교정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 허위정보를 교정하지 못하는 경우, 오히려 허위정보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키는 반대의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 등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나타났다. 팩트체크의 교정 효과를 살펴본 연구로는 소셜미디어가 잘못된 정보에 대한 교정 역할을 할 수도 있음을 검증하면서 알고리즘 및 사회적 정정이 잘못된 인식의 제재에 효과적임을 확인한 바 있다(Bode & Vraga, 2018). 나이한 등(Nyhan, et al., 2020) 역시 트럼프가 발언한 잘못된 정보에 대한 팩트체크 내용을 트럼프 지지자와 클린턴 지지자에게 제시한 결과, 사실적 믿음에 있어서 트럼프 지지자들과 클린턴 지지자들 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교정정보 노출이 두 후보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잘못된 인식을 감소시켰다고 밝혔다. 즉, 팩트체크를 통해 사람들이 더 사실적으로 정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보였다. 반면, 교정이 잘못된 인식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는데, 나이한과 라이플러(Nyhan & Reifler, 2010)는 가짜 또는 입증되지 않은 믿음이 교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을 진행하면서 미국 정치계에서 논쟁적인 정치적 이슈인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세금 인하, 줄기세포 연구라는 주제의 기사들을 토대로 팩트체크 효과를 살펴본 결과, 줄기세포 주제를 제외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팩트체크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잘못된 믿음을 강화하는 역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줄기세포 주제 역시 역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교정의 효과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처럼 팩트체크 효과에 대해 상반되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면서 교정 효과가 언제, 어떤 조건 하에서 나타나는가를 규명하려는 시도들이 이루

어지고 있다. 예컨대 정성욱(2021)은 판정 제시 방식(암시적 판정, 명시적 판정 및 시각적 판정), 검증 방식(사실 검증(발언이 ‘사실’로만 이루어졌는지), 맥락 검증(사실 검증과 함께 맥락 검증 필요)), 판정의 정확성 여부(대체로 거짓, 거짓)에 따른 수용자의 팩트뉴스 내용 이해, 판정결과 동의 정도를 검증한 결과, 종속변인 ‘이해’와 ‘동의 정도’에 대해서는 명시적 판정과 시각적 판정이 암시적 판정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증 방식에 있어서는 판정결과가 거짓인 집단에서만 맥락 검증의 효과가 사실 검증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판정의 명확성 여부에 대해서는 ‘거짓’ 판정이 ‘대체로 거짓’ 판정보다 효과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염정윤과 정세훈(2018)은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과 팩트체크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용자의 심리적 기제를 가짜뉴스와의 신념 일치 여부와 팩트체크 주장의 품질, 팩트체크 정보원에 대한 우호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가짜뉴스의 경우 정보원 우호도와 관계없이 강한 주장의 팩트체크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가짜뉴스의 경우 우호적 정보원의 강한 주장에 대해서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팩트체크 효과는 팩트체크의 내용 및 형식에서 오는 효과도 존재하지만, 팩트체크의 목적이 허위정보를 교정하는 것인 만큼 교정하고자 하는 허위정보의 성격이 팩트체크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허위정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성이 허위정보 및 팩트체크 결과를 신뢰하는 데에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 제 2 절 허위정보의 유인가와 부정성 편향

허위정보는 정치인의 스캔들이나 거짓 발언부터 최근 코로나19 사태까지 그 범위와 종류가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가짜’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로 인해, 또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에

주목하다 보니 허위정보에 대한 논의 및 연구 역시 부정적인 내용의 허위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김민경, 202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허위정보 관련 기존 연구들(김민경, 2020; De keersmaecker & Roets, 2017; Thorson, 2016) 역시 정치인의 스캔들, 대상의 범죄 행위 등을 자극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 및 태도를 분석했다. 하지만 허위정보에는 부정적인 내용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사실의 날조, 과장도 포함된다. 특정 개인의 기부나 봉사활동 같은 미담, 국제대회에서 수상했다는 등의 소식부터 위원회나 기관의 대표 국가로 선출, 전세계에서 1위 기록 등 국가를 대상으로 한 내용까지 그 종류와 대상은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정보에 대한 논의들은 부정적인 허위정보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허위정보를 유인가에 따라 허위정보 및 팩트체크의 수용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차원적 이론(dimensional theory)'에 근거하면 감정은 여러 차원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데, 가장 흔하게 정의되는 차원 중 하나가 바로 유인가로, 유인가는 유쾌 또는 긍정에서 불쾌 또는 부정에 이르는 연속적인 감정 반응으로 개념화되었다(Lang, Dhillon, & Dong, 1995). 유인가라는 용어는 르윈(Lewin, 1951)에 의해 도입되었는데, 르윈은 목표의 끌어당김(attraction)의 정도를 긍정적인 유인가로, 목표의 밀어내기(repulsion)의 정도로 부정적인 유인가로 정의하였다. 이후 유인가라는 용어는 확장되어 다양한 연구에서 논의되었다. 유인가는 메시지가 긍정적인지, 또는 부정적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감정적인 자극은 욕구적 동기 체제와 회피적 동기 체제와 연결되는데, 유인가는 이 중 어떤 동기적 체제가 활성화되는지에 영향을 미치며, 부정적인 메시지는 회피적 동기 체제를, 긍정적인 메시지는 욕구적 동기 체제를 활성화시킨다고 보았다(Lang, Park, Sanders-Jackson, Wilson, & Wang, 2007). 영상, 이미지, 음성, 텍스트 등을 활용한 수많은 유인가 관련 연구들에서 부정적인 미디어를 보는 것은 회피적 체제 활성을 증가시키고, 긍정적인 미디어는 보는 것은 욕구

적 체제 활성을 증가시켰음을 발견하였다(Lang et al., 2007). 구체적으로 랭 등(2007)은 메시지가 긍정적인 사건(예시 : 파티, 결혼식, 졸업, 생일, 식사 등), 장소(예시 : 아름다운 환경, 식당 등),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들(예시 : 미소, 웃음 등)을 포함한다면 긍정적인 유인가로 보았으며, 한편, 부정적인 사건(예시 : 싸움, 논쟁, 장례식, 자연재해 등), 장소(예시 : 묘지, 병원 등),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들(예시 : 울음, 비명, 두려움 등)을 포함하면 부정적인 유인가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좋은 것, 즉 긍정적인 유인가는 바람직하고, 이익이 되며, 즐거운 결과로서 이해하고, 나쁜 것, 즉 부정적인 유인가는 그 반대로서, 바람직하지 않고, 해롭고, 즐겁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Baumeister et al., 2001).

유인가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에서는 특히 부정을 나타내는 방향성의 유인가가 미치는 효과, 즉, 긍정적 정보보다 부정적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부정성 편향(negativity bias)에 대한 논의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바우마이스터 등(2001)은 좋은 사건보다 나쁜 사건의 강력한 힘이 일상생활에서 발견됨에 주목하였는데, ‘나쁜 것이 좋은 것보다 더 강력하다(Bad is stronger than good)’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는 나쁜 것이 좋은 것보다 더 크고, 더 일관성 있고, 더 다방면에서, 더 오래 지속되는 효과를 만들어낼 것임을 의미한다. 나쁜 인상과 고정관념은 좋은 것보다 더 빠르게 형성됨을 밝히며, 예를 들어 돈을 잃거나, 친구들에게 버림받거나, 비난을 받는 등의 부정적 유인가를 가지는 사건들은 돈을 얻거나, 친구들을 얻거나, 칭찬을 받는 등의 동일한 유형의 긍정적 유인가를 가지는 사건들보다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정보 처리 과정에 있어서 사람들은 모든 정보를 동일한 정도로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지적 자원을 우선순위하고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하는데, 만약 나쁜 것이 좋은 것보다 더 강력하다면, 나쁜 사건에 관한 정보는 좋은 사건에 관한 정보보다 더 철저한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음을 밝혔다(Baumeister et al., 2001). 한편, 피터스와 샤펀스키(Peeters &



Czapinski, 1990) 역시 인상 형성에 있어, 자극에 대한 나쁜 정보는 좋은 정보보다 인상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 함선혜와 임소혜(2009) 역시 영상 콘텐츠의 형식적인 차이 및 유인가에 따른 수용자의 반응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실사 영상의 경우 부정적인 동영상을 긍정적인 동영상보다 더 잘 기억했으며, 생체심리적 반응 중 피부전도계수와 심장박동률을 통해 수용자의 각성 수준을 측정한 결과, 부정적인 영상은 각성 상태가 습관화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부정적인 정보를 더 중요하게 처리하는 부정성 편향 현상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임소혜와 김연수(2011)는 뉴스의 유인가에 따라 실시간 뉴스 보도의 효과가 매개되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는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뉴스가 미디어에서 긍정적인 뉴스보다 많이 다뤄지기 마련이며 더 높은 뉴스 가치를 지닌다고 여겨지는데, 실제로 부정적인 정보는 긍정적인 정보에 비해 인지적 비중치가 다르다는 심리학적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발견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부정성 편향은 언론 보도에도 반영되어 나타나는데 긍정적인 뉴스보다 부정적인 뉴스 보도가 증가하는(김효숙, 2010) 것과 같이, 허위정보와 관련된 연구에서도 역시 부정적인 유인가를 지닌 허위정보를 중심으로 효과를 검증하려는 시도들이 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지닌다는 부정성 편향에 따라 부정적인 내용의 허위정보를 제시받은 집단이 긍정적인 허위정보를 제시받은 집단보다 허위정보를 사실로 믿을 가능성이 클 것이며, 기존에 접한 허위정보에 대한 믿음을 수정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따라서 팩트체크 결과를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유인가에 따른 효과는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차유리와 유현재(2012)는 유인가 프레임에 노출되는 집단의 특성에 따라 그 효과가 변화할 수 있음을 밝혔는데, 긍정적 유인가 프레임에 노출되었을 때보다 부정적 유인가 프레임에 노출되었을 때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에서 기사 공신력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즉, 정부에 대한 불신이 부정적 유인가 프레임과 맞물려 부정성 효과가 결과적으로 더 강화된 것이라는 설명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부정성 편향은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그 효과가 조절될 수 있음에 주목한다.

### 제 3 절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 1. 사회 정체성 이론과 내집단 선호

점차적으로 국가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그만큼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많은 공공 및 국제 사건이 보도 및 확산되면서 이에 따라 허위정보의 종류 역시 국가 간의 갈등 및 이슈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부정적인 허위정보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허위정보도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예시로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분명한 출처를 인용하거나 날조 및 과장함으로써 내집단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때로는 비교대상이 되는 타국가에 대한 조롱 또는 폄하의 과정들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내집단인 국가에 대한 위상을 높여줄 수 있는 장치로서 무분별하게 소비되고, 내집단 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면 해당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조차 미비하다. 이러한 내집단 국가의 권위나 위세를 강조하는 내용의 콘텐츠들은 정치, 사회, 문화, 스포츠 등 분야와 관계없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 ‘첫 ‘한국인 교황’ 탄생’이라는 사회·종교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OOO, 오스카상 수상’과 같은 문화·연예 분야에서까지 그 종류와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메시지의 대상이 누구 혹은 무엇인지에 따라 부정성 편향에서 지칭하는 것과 반대로 긍정적인 허위정보의 영향력이 더욱 크게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회 정체성 이론은 집단 내 과정과 집단 간 관계에 대해 다루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 중 하나로, 집단과 매개된 수많은 현상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정의해왔으며 사회 심리학을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해왔다(Hornsey, 2008). 타이펠 등(Tajfel et al., 1971)은 실험에서 한 페이지의 점의 수에 대한 추정치를 기반으로 '과대평가자' 또는 '과소평가자' 집단으로 분류하거나 동전의 뒤집기를 통해 집단을 할당하였다. 연구 결과, 집단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나 교류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집단과 외집단 간 경쟁적인 집단 행위가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답으로 추후 타이펠은 사회 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을 제시하였다.

사회 정체성 이론에서 '자아(self)' 개념은 다른 사회적 범주나 분류와 관련해서 특정 방식으로 이를 범주화하고, 분류하고, 명명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자기 범주화(self-categorization)'라고 부른다(Turner et al., 1987). 범주화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방식을 변화시키는데, 이는 한 개인의 자아 개념의 다른 수준을 활성화시킨다는 의미로서, 개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정체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대인 관계에서 '자아' 개념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태도, 행동, 감정 등으로 구성된다면, 집단 간 관계에서 '자아' 개념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범주에서 파생되는 개인의 사회 정체성과 이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감정적, 평가적 결과를 포함한다(Hornsey, 2008). 사회 정체성 이론에서 주요한 인지적 과정은 탈개인화(depersonalization), 즉 자신을 내집단의 원형의 표본으로서 여기는 것이며 이러한 탈개인화는 사회적 고정관념, 내집단 응집력과 민족중심주의, 그룹 내 협력과 이타주의, 감정적 공감과 전염, 사회적 영향 과정과 사회 규범의 등장과 같은 집단 현상 기저에 있는 기본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Turner & Oakes, 1986, p. 242).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이들을 특정 범주로 분류하고 그들이 해당 집단의 원형을 얼마나 잘 내재하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묘사한다. 즉, 사회적 범주화는 타인에 대한 인식을 탈개인화하고, 사람들은 특정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집단의 특성이 내재된 형태로서 간주된다

(Hogg & Reid, 2006).

터너 등(Turner et al., 1979)에 따르면, 내집단 선호(in-group favoritism)는 행동, 태도, 선호, 또는 인식에 있어 외집단보다 내집단을 선호하는 경향성을 일컫는다. 내집단 편향은 개인이 내집단을 주관적으로 동일시하고, 이를 본인의 자아개념에 포함시키고, 주어진 상황에서 관련성 있는 현저한 특징이 집단 간 비교에 사용될 때 발생하기 쉽다(Turner et al., 1979). 개인은 자아존중감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데, 자신이 속한 내집단에 대한 평가는 자신의 사회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내집단이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그에 따라 자신의 자부심도 높아지길 바라게 된다(안선영·박남기, 2017). 특정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현저하다면 해당 집단과 연결된 긍정적인 가치를 달성하고,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열망이 유발되는데, 구체적으로 집단 소속감은 내집단이 공유하는 긍정적인 속성과 관련된 집단 내 유사성을 강조하고(내집단 선호), 외집단이 공유하는 부정적인 속성과 관련된 집단 간 차이를 강조하려는(외집단 차별) 개인의 인식에 영향을 끼친다(Tajfel & Turner, 1986).

이러한 사회 정체성 이론에 기반한 내집단 선호와 관련하여 미디어 이용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선택적 뉴스 노출의 사회 정체성 효과를 살펴본 연구(Knobloch-Westerwick & Hastall, 2010)에 따르면, 고령층 집단의 독일인들은 외집단인 청년층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를 읽는 것을 선호하고, 같은 내집단 고령층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를 읽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아가 청년층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에 대한 노출은 고령층의 자아존중감을 강화시켰다. 또한 내집단 선호과 외집단 편향에 대한 연구(Appiah, Knobloch-Westerwick, & Alter, 2013)에 따르면, 흑인 뉴스 이용자들은 외집단인 백인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보다 내집단인 흑인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를 읽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백인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보다 백인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를 읽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슬레이터(Slater, 2007) 역시 사회 정체성이 다양한 믿음, 가치, 태도와 관련되는 한, 주어진 사회적 정체성과 일치하는 미디어 콘텐츠의 사용은 사회 정체성의 현저성 또는 접근성을 높이고, 미디어 노출 이후에 평가와 결정에 있어 정체성과 관련된 가치와 태도의 영향을 높이는 결과는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허위정보 및 팩트체크와 관련된 기존 문헌들은 주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과 일치하는 메시지를 취하고, 이에 반하는 정보는 의도적으로 배척한다는 ‘확증편향’에 기반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황용석과 권오성(2017)은 허위정보 선택의 과정에서 확증편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많으며, 허위정보 수용 여부는 개인적 신념 체계와 맞는지, 즉 개인적인 확증편향 정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확증편향의 경향성을 집단 정체성을 토대로 한 내집단 선호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내집단 국가의 위상을 강조하기 위하여 과장 및 날조하는 콘텐츠들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나듯, 국적에 근거한 내집단과 외집단 구분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집단 선호를 유발할 수 있고, 이는 행동, 평가, 인지의 편향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허위정보 및 팩트체크 수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사회 정체성 이론에 기반한 내집단 선호의 경향성은 앞서 메시지 유인가로 인한 부정성 편향의 효과를 조절하게 된다. 부정성 편향에 따르면, 부정적인 메시지가 긍정적인 메시지보다 더 강력한 힘을 지니며,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며, 더 오래 지속되는 효과를 만들어 낸다(Baumeister et al., 2001). 그러나, 내집단 선호에 따르면,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부정적인 메시지보다 더 선호할 것이며, 외집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긍정적인 메시지보다 더 선호할 것이다. 즉, 메시지의 유인가가 허위정보 및 팩트체크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은 허

위정보의 대상이 내집단인지 외집단인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허위정보를 제시받은 집단은 내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허위정보를 제시받은 집단보다 허위정보의 신뢰도가 높을 것이며,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허위정보를 제시받은 집단은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허위정보를 제시받은 집단보다 허위정보의 신뢰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연구가설 1-1>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허위정보를 제시받은 집단은 내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허위정보를 제시받은 집단보다 허위정보를 더 신뢰할 것이다.

<연구가설 1-2>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허위정보를 제시받은 집단은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허위정보를 제시받은 집단보다 허위정보를 더 신뢰할 것이다.

또한 내집단 선호로서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속성을, 외집단 차별로서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속성을 강조하는 경향은 허위정보를 교정하는 팩트체크에 대한 수용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허위정보를 부인하는 팩트체크 판정결과를 신뢰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며,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허위정보를 부인하는 팩트체크 결과를 신뢰할 가능성은 낮다고 예측할 수 있다.

<연구가설 2-1>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허위정보를 제시받은 집단은 내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허위정보를 제시받은 집단보다 교정정보(팩트체크)를 덜 신뢰할 것이다.

<연구가설 2-2>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허위정보를 제시받은 집단은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허위정보를 제시받은 집단보다 교정정보

(팩트체크)를 덜 신뢰할 것이다.

이상의 가설을 검증함에 있어 앞서 언급했듯 본 연구에서는 ‘국적’을 기준으로 집단 정체성을 정의하고자 한다. 사회적 범주화를 통하여 사람들을 특정 개인이 아닌 집단의 원형으로서 여기는 탈개인화 과정은 특히, 민족 중심주의(ethnocentrism)라는 집단 현상 기저에 있는 기본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Turner et al., 1987). 특히 현대사회는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자유로운 이동 및 교류가 가능해졌지만, 동시에 그만큼 오히려 국가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허위정보의 맥락에서 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집단 국가의 권위나 위세를 강조하는 내용의 콘텐츠 확산에 대해 국가 자부심의 과도한 상승에 대한 우려 및 경계의 목소리 또한 나타나고 있다(오유선·주남·김정현, 2023). 특히 허위정보 대상이 국가 정체성을 기준으로 한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경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상호견제 및 감시의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연령, 성별, 종교 등의 경우 동일 국가 내에서도 집단 간 상호 감시 및 교정 노력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국가 정체성의 경우 동일한 국가 내에서는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허위정보,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허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이 미흡할 것이기 때문이다.

## 2. 내집단 동일시에 따른 효과 차이

한편, 내집단, 외집단 간 구분은 집단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스스로를 집단과 얼마나 동일시하는가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집단 동일시는 집단에 대한 노력이나 충성도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개인이 구성원인 기관 및 조직에 대한 인지된 일체감 또는 소속감을 뜻한다(Ashforth & Mael, 1989 ; Bhattacharya, Rao & Glynn, 1995). 이때 내

집단 동일시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내집단 동일시 수준이 높은 사람들과 달리 집단을 그들의 자아 개념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으며, 따라서 단순히 집단 정체성을 구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그들의 자아 개념에 집단을 포함하는 정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아야 한다(Tropp & Wright, 2001).

기관에 대한 구성원의 동일시가 기관과 상품의 특성, 구성원의 소속 특성, 구성원의 활동 특성과 관련이 있는지 미술관의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구성원의 동일시는 인지된 기관의 명성, 기부 활동, 멤버십 보유 기간, 방문 빈도 등에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이 나타났다(Bhattacharya, Rao & Glynn, 1995). 타니스와 포스트메스(Tanis & Postmes, 2003)는 내집단 또는 외집단 구성원과의 협업 의사에 있어 내집단 동일시 정도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사회적 단서(social cues)가 있을 때는 내집단과 외집단 선택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다른 사회적 단서가 없을 때, 집단에 높은 동일시를 하는 사람은 낮은 동일시를 하는 사람에 비해 내집단 구성원과 일하는 것을 더 선호하였다. 오유선 등(2023)은 한국인의 국가동일시 정도에 따라 ‘국뽕’ 콘텐츠와 ‘국까(우리나라를 비하하는)’ 콘텐츠를 감상할 때 나타나는 수용자의 심리적 반응을 탐구하였는데, 수용자의 국가동일시 정도는 국가 자부심과 국가 애착, 감탄, 낙관, 절망의 감정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내집단과 외집단이라는 집단 정체성을 구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집단 정체성의 영향이 내집단에 얼마나 동일시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주목하여 내집단 동일시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려고 한다. 특히, 내집단 동일시가 높을수록 집단과 관련된 인식, 태도, 행동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내집단 동일시가 높을수록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이 허위정보 및 팩트체크의 신뢰도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내집단 선호)가 두드러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연구가설 3>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이 허위정보 신뢰도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연구가설 1-1>, <연구가설 1-2>)는 내집단 동일시가 강할수록 두드러질 것이다.

<연구가설 4>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이 팩트체크 신뢰도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연구가설 2-1>, <연구가설 2-2>)는 내집단 동일시가 강할수록 두드러질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는 집단 정체성을 국적을 기준으로 살펴봄에 따라 집단 동일시의 개념을 국가 정체성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국가 정체성의 개념적 정의는 여전히 명확하지는 않지만(Blank & Schmidt, 2003), 바렛(Barrett, 2005)은 국가 정체성에 대하여, 국가 정체성은 내부의 심리적·인지적, 정서적 특성만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 행동에도 깊이 내재되어 있다고 말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국가 정체성의 주관적 감각은 다음을 포함한다 : (1) 국가 집단의 존재에 대한 인지, (2) 자신을 국가 집단의 구성원으로 범주화, (3) 주관적 수준에서 개인에 의해 국가 정체성에 귀속되는 중요성의 정도, (4) 국가 집단에 소속되었다는 개인적인 감각, (5) 누군가를 국가 집단의 구성원으로 만드는 기준에 대한 믿음, (6) 국가 집단에 속해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정, (7) 국가 내집단과 현저한 국가 외집단에 속해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성에 대한 믿음, (8) 국가 상징에 대한 인지, (9) 국가적 자신감과 수치심과 같은 감정에 대한 인지(Barrett, 2005, pp. 192-193)

한편, 타이펠과 터너(Tajfel & Turner, 1986)는 물론 국가에 대해 부정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국가 정체성

은 긍정적이고, 주관적으로 중요한 국가에 대한 감정적 유대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블랭크와 슈미트(Blank & Schmidt, 2003)는 국가와의 긍정적인 유대감이 확산된 형태를 국가 정체성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개인이 국가를 동일시하는 과정의 상태로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유선 등(2023) 역시 국가 동일시는 국민이 국가에 소속감 및 일체감을 느끼며 자신을 국가의 관점에서 규명하고, 국가의 성공 혹은 실패를 함께 경험하고자 하는 심리적 연결로서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국가 정체성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국가에 대한 감정적 유대로서 주로 긍정적인 유대감이 확산된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집단 동일시를 국가 정체성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 제 4 절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

팩트체크 효과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주로 사람들이 뉴스의 교정에 얼마나 수용적인가에 집중되어왔다(Cushion, Morani, Kyriakidou, & Soo, 2022). 많은 연구에서 허위정보와 팩트체크 효과에 개입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선결 과제로 제시되어 왔다(김민경, 2020). 김민경(2020)은 기존 선행 연구들에서 팩트체크 뉴스의 효과는 주로 인지적 효과 차원에서 측정되며, 부가적으로 혹은 제한적으로만 태도나 행동적 효과 차원을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팩트체크 뉴스 역시 일종의 ‘설득’ 메시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팩트체킹이 허위정보에 대한 뉴스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뿐 아니라 그들의 태도와 행동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도 팩트체크 효과를 잘못된 신념의 교정이라는 인지적 측면과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라는 태도적 측면을 구별하여 살펴본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먼저 톨슨(2016)은 허위정보에 대한 인지적 믿음이 교정

된 이후에도 허위정보에 기반해 형성된 태도는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것을 밝히면서 ‘신념의 메아리(belief echo)’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는 허위정보에 대한 믿음이 교정될지라도 주어진 대상이나 주제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이나 태도에 부정적인 감정이 남아있음을 일컫는 것으로 교정이 허위정보의 태도적 효과(attitudinal effect)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이한 등(Nyhan et al., 2020) 역시 팩트체크 메시지는 응답자의 사실적 믿음의 정확성을 향상시켰지만 후보자에 대한 선호도에는 주목할만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음을 밝혔는데, 첫 번째 실험에서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잘못된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 효과를 평가하였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트럼프의 잘못된 주장을 접하고 이후 팩트체크를 접한 후, 해당 정보에 대한 정확성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고 5일 후에 후보자에 대한 태도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첫 번째 실험 결과, 팩트체크는 사실적 믿음에 있어서는 트럼프와 클린턴 지지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감소시킨 반면, 트럼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팩트체크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두 번째 실험의 결과, 팩트체크는 클린턴과 트럼프 지지자들 모두의 잘못된 인식을 감소시킨 한편, 투표 선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를 통해 팩트체크가 사람들이 더 사실적으로 정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지만, 팩트체크된 후보자에 대한 선호나 태도에는 상응하는 효과를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스와이어 톰슨, 에커, 레반도프스키 그리고 베린스키 (Swire-Thompson, Ecker, Lewandowsky, & Berinsky, 2020)는 정치적 스캔들과 같은 신뢰에 영향을 주는 사건들이 사람들의 투표 선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평가는 놀랍게도 다시 회복한다는 기존 연구들을 예로 들면서,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트럼프와 샌더의 주장 및 팩트체크를 제시하고 각 주장에 대한 참여자들의 믿음과 각 후보자에 대한 감정을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사실 진술과 교정정보가 각각 제시될 때, 참여자들의 허위정보에 대한 신뢰는 감소했지만, 정치인에 대한 감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반면, 팩트체크를 통해 대상에 대한 태도가 교정되

있음을 밝힌 연구들도 존재한다. 백신에 대한 허위정보와 이를 반박하는 메시지가 부정적인 감정 및 백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허위정보 내용을 반박하는 메시지는 허위정보와 일치하는 메시지와 비교하여 백신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유발했다(Zhang, Featherstone, Calabrese, & Wojcieszak, 2021). 또한 허위정보와 일치하는 정보보다 교정정보가 많을 때에는 팩트체크가 투표 의도와 감정 등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Aird, Ecker, Swire, Berinsky, & Lewandowsky, 2018).

이처럼 팩트체크를 통해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팩트체크의 효과는 메시지 신뢰와 같은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대상에 대한 태도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허위정보를 접한 후 허위정보 대상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형성하는지는 이를 교정하고자 하는 팩트체크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허위정보 노출 후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연구가설에서 설정한 바,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간 상호작용 효과, 그리고 내집단 동일시의 조절효과가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와 팩트체크 전후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 각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문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1>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이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1-2>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이 팩트체크 전후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1>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이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는 내집단 동일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2>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이 팩트체크 전후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는 내집단 동일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 제 3 장 연구가설 및 연구문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가설 및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허위정보 및 팩트체크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주로 부정적인 허위정보를 대상으로 한 데 비해 허위정보의 유인가, 즉 긍정적인 허위정보와 부정적인 허위정보를 비교함으로써 허위정보 및 팩트체크의 수용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수용의 차이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개인의 내집단 동일시가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를 조절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허위정보 및 팩트체크 수용은 크게 메시지에 대한 신뢰라는 인지적 측면과 대상에 대한 태도라는 태도 측면으로 구분하여 검증함으로써 허위정보 및 팩트체크 효과에 대한 논의의 폭을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연구가설을 통하여 허위정보 및 팩트체크의 신뢰도에 대해서, 연구문제를 통하여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다.

먼저 허위정보 신뢰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 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자신의 내집단에 대해 긍정적으로 가치 평가된 특징을 갈망하고 이러한 내집단의 긍정적인 평가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형성되며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달성하고자 하는 내집단 선호의 형태가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성은 행동이나 평가, 인지의 편향을 이끌 수 있으며, 내집단의 우월성을 강조하고자 함과 더불어 외집단의 부정적인 속성에 집중하는 외집단 차별의 형태로도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허위정보를 내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허위정보에 비해 더 신뢰할 것이며,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허위정보를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허위정보에 비해 더 신뢰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가설 1-1>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허위정보를 제시받은 집단

은 내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허위정보를 제시받은 집단보다 허위정보를 더 신뢰할 것이다.

<연구가설 1-2>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허위정보를 제시받은 집단은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허위정보를 제시받은 집단보다 허위정보를 더 신뢰할 것이다.

또한 내집단 선호로서 긍정적인 내집단 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는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허위정보가 거짓이라는 팩트체크 판정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 것이며, 마찬가지로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허위정보가 거짓이라는 팩트체크 판정결과를 부정하고 싶어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했다.

<연구가설 2-1>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허위정보를 제시받은 집단은 내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허위정보를 제시받은 집단보다 교정정보(팩트체크)를 덜 신뢰할 것이다.

<연구가설 2-2>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허위정보를 제시받은 집단은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허위정보를 제시받은 집단보다 교정정보(팩트체크)를 덜 신뢰할 것이다.

한편, 허위정보 대상이 내집단인지 외집단인지 집단 정체성에 따른 효과는 정보 이용자가 얼마나 스스로를 내집단과 동일시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스스로의 자아 개념에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포함하는 정도에 따라 집단과 관련된 인식, 태도, 행동에 있어 그 효과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서 설정한 바,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내집단 동일시에 따라 조절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연구가설 3>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이 허

위정보 신뢰도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연구가설 1-1>, <연구가설 1-2>)는 내집단 동일시가 강할수록 두드러질 것이다.

<연구가설 4>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이 팩트체크 신뢰도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연구가설 2-1>, <연구가설 2-2>)는 내집단 동일시가 강할수록 두드러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허위정보 및 팩트체크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주로 정보에 대한 믿음이나 사실성 인식 등 인지적 측면에 집중한 데 비해(김민경, 2020) 본 연구에서는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를 메시지에 대한 신뢰와 구분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앞서 연구가설에서 설정한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 그리고 내집단 동일시의 조절효과가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와 팩트체크 전후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문제로 살펴본다.

<연구문제 1-1>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이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1-2>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이 팩트체크 전후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1>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이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는 내집단 동일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2>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이 팩트체크 전후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는 내집단 동일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국가 정체성을 기준으로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여 연구를 분석하고자 한다. 국적을 근거로 본인이 속한 내집단 국가에 대한 우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타국과 그 문화에 대한 혐오 및 비난의 내용을 담은 허위정보들이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종의 놀이문화로서 인식하는 등 이에 대한 경각심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논의의 필요성을 환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가 정체성을 토대로 이상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고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 제 4 장 연구 방법

### 제 1 절 연구 개요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2(허위정보 유인가: 긍정 vs. 부정) x 2(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내집단 vs. 외집단)의 요인설계로 온라인 실험으로 진행되며,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이 수용자의 허위정보 및 팩트체크의 신뢰도 및 대상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집단 간 설계의 온라인 실험으로 진행하며, 실험 집단 구성은 <표 1>과 같다. 참여자 배치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표 1] 실험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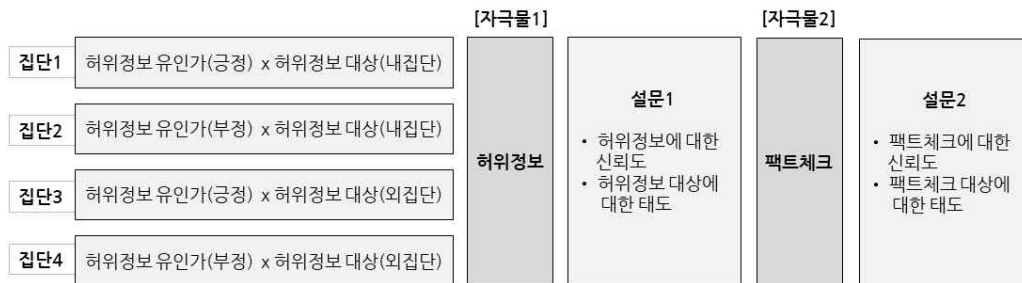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내집단	외집단
허위정보 유인가	긍정	집단1	집단3
	부정	집단2	집단4

참여자들은 2(허위정보 유인가: 긍정 vs. 부정) x 2(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내집단 vs. 외집단) 실험 조건에 무작위로 할당된 후, 실험에 대한 간단한 안내 문구를 전달받고 국적이 대한민국인지 검증했다.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 실험에서 제외되며, 대한민국이라고 응답한 참여자들은 이어서 성별, 연령 등 인구통계학적 기본 정보 및 내집단인 한국에 대한 내집단 동일시 세부 문항에 응답했다. 이후 참여자는 국제·정

치, 사회·문화 분야에 대해 각 1개씩 총 2개의 허위정보 기사를 제시받고, 제시된 허위정보 기사의 정보에 대한 신뢰도와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에 응답했다. 이후 앞서 제시된 허위정보가 사실이 아니라는 팩트체크 기사를 제시받고, 제시된 팩트체크 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팩트체크 대상에 대한 태도에 대해 응답했다. 최종적으로 해당 자극물로 제시된 기사에 대한 참여자의 관여도(중요도, 흥미 정도)를 측정하고, 소득수준, 교육수준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문항에 응답한 후, 참여자들은 실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디브리핑(debriefing) 받았다([그림 1] 참조).

한편, 참여자가 실험 과정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attention check) 참여자가 허위정보 기사에 대해 응답한 직후, 팩트체크 기사를 제시받기 전에 간단한 수학문제에 답변하게 하였다(예: “6 X 8 = ?”). 이때, 오답을 선택한 5명의 참여자는 실험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실험에서 제외시켰다.

[그림 1] 실험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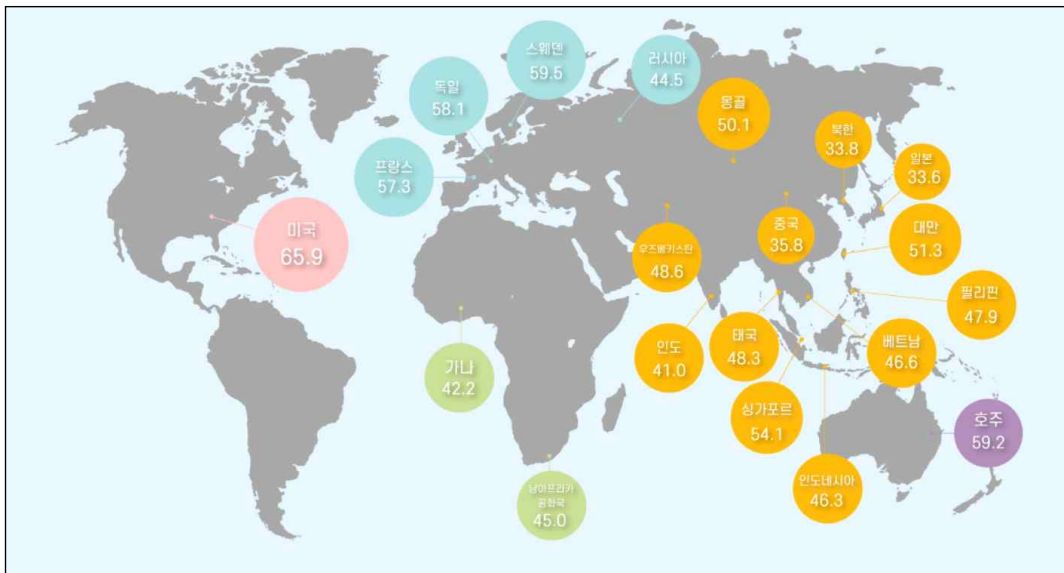


## 2. 실험 자극물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은 국적을 기준으로 내집단과 외집단을 설정하였다. 이때 내집단은 한국으로, 외집단의 경우에는 특정 국가에 대한 극단적인 선유 태도에서 오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국인들의 주요국 호감도 조사에서 최상위 혹은 최하위를 기록한 국가는 제외하고 호

감도에서 중간 순위에 위치한 중립적인 국가를 외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외집단으로 특정 국가 한 곳만을 선정하였을 경우에도 해당 국가에 대한 기존 태도의 영향이 크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중간 순위에 위치한 국가 세 곳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발표한 '한국인의 전 세계 20개 주요국 호감도'(2022.01.10)에 따르면, 미국(65.9℃), 스웨덴(59.5℃), 호주(59.2℃), 독일(58.1℃), 프랑스(57.3℃), 싱가포르(54.1℃), 대만(51.3℃), 몽골(50.1℃), 우즈베키스탄(48.6℃), 태국(48.3℃), 필리핀(47.9℃), 베트남(46.6℃), 인도네시아(46.3℃), 남아프리카공화국(45.0℃), 러시아(44.5℃), 가나(42.2℃), 인도(41.0℃), 중국(35.8℃), 북한(33.8℃), 일본(33.6℃)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개국 중 중간 순위에 위치한 싱가포르(6위), 태국(10위), 인도네시아(13위)를 외집단 국가로서 선정하였다.

[그림 2] 한국인의 전 세계 20개 주요국 호감도(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22)



허위정보 기사 자극물의 경우, 국제·정치, 사회·문화 각 분야당 1개씩 선정하여 총 2개의 허위정보 기사를 제시함으로써 특정 분야의 관여도

및 사전 지식에서 오는 효과를 최소화하였다. 자극물은 국제·정치 분야와 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제시하였다. 자극물 기사의 내용은 국가와 관련된 허위정보를 생산하는 소셜미디어 콘텐츠들을 바탕으로 이를 재구성하였고, 각 실험 집단에 따라 대상 국가를 바꾸어 제시하였다. 각 유인가별 내집단과 외집단 내용 구성은 대상 국가만 다를 뿐, 동일한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허위정보 내용에서 오는 효과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허위정보 기사 자극물의 주제는 <표 2>와 같다([부록 1]~[부록 8] 참조).

[표 2] 허위정보 기사 주제

허위정보 유인가	분야	주제
긍정	국제·정치	국제안보연합 출범... 아시아 대표에 <b>한국(/태국/싱가포르/인도네시아)</b> 선출
	사회·문화	<b>한국(/태국/싱가포르/인도네시아)</b> , 차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으로 선출
부정	국제·정치	유라시아 대륙 연결하는 현대판 실크로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이사회(UN ESCAP) “ <b>한국(/태국/싱가포르/인도네시아)</b> 제외한다”
	사회·문화	유네스코, <b>한국(/태국/싱가포르/인도네시아)</b> 의 세계문화유산 자격박탈 결정... 강력 반발한 <b>한국(/태국/싱가포르/인도네시아)</b> 정부

한편, 팩트체크 자극물은 앞서 제시한 허위정보 기사가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님’이라는 판정결과를 보여주는 팩트체크 기사를 제시하였다. 이때, 기사 제목에 ‘[팩트체크]’라고 명시함과 동시에, 언론사들이 검증한 공적

관심사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정보서비스인 ‘SNUFactCheck’(factcheck.snu.ac.kr)에서 사용하는 ‘뱃지(badge)’ 이미지를 함께 활용하였다. 총 6가지의 팩트체크 판정결과 뱃지(‘전혀 사실 아님’, ‘대체로 사실 아님’, ‘절반의 사실’, ‘대체로 사실’, ‘사실’, ‘판단 유보’) 중에서 앞서 제시한 허위정보 내용이 ‘전혀 사실 아님’을 나타내는 팩트체크 판정결과를 보여주었다([그림 3] 참조).

[그림 3] 팩트체크 판정결과 뱃지



한편, 뉴스 정보원이 메시지의 수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김영욱·김영지·김수현, 2018; Hovland & Weiss, 1951; Kim, 2015; Sbaffi & Rowley, 2017) 허위정보 기사 및 팩트체크 기사 자극물 모두 뉴스 정보원으로서 구체적인 언론사와 저자를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온라인에 게재된 ‘네이버 뉴스’의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였다. 또한, 기사 길이, 글자 수, 표현 방식 등을 실제 기사와 최대한 유사하게 맞추어 구성하였다([그림 4], [그림 5] 참조).

[그림 4] 실험 자극물1 : 허위정보 기사 예시

**[긴급] 한국, 차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으로 선출**

한국이 유엔 산하기구인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산 등록을 심사하는 세계유산위원회의 차기 의장국에 선출될 예정이다.

2022년 11월, 르몽드,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쿠즈네초프 주유네스코 러시아 대사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에 서한을 통해 의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매년 6~7월에 회의를 열어 세계유산 등재를 심사하며, 이는 문화유산 분야의 주요 국제 연례행사 중 하나이다. 유네스코는 지난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러시아 카잔에서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무기한 연장되는 등 운영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새로운 의장국 선출이 시급해졌다.

한국은 최근 유엔 체제 내 다양한 기구에서 이사국으로 선출됨에 따라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등 성과를 이뤄내며 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으로 선출되는 과정에 힘을 실을 전망이며,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긴급] 한국, 차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으로 선출**

기사입력 2023.01.20 09:57

한국이 유엔 산하기구인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심사하는 세계유산위원회의 차기 의장국에 선출될 예정이다.

2022년 11월, 르몽드,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쿠즈네초프 주유네스코 러시아 대사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에 서한을 통해 의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매년 6~7월에 회의를 열어 세계유산 등재를 심사하며, 이는 문화유산 분야의 주요 국제 연례행사 중 하나이다. 유네스코는 지난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러시아 카잔에서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무기한 연장되는 등 운영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새로운 의장국 선출이 시급해졌다.

한국은 최근 유엔 체제 내 다양한 기구에서 이사국으로 선출됨에 따라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등 성과를 이뤄내며 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으로 선출되는 과정에 힘을 실을 전망이며,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그림 5] 실험 자극물2 : 팩트체크 기사 예시

**[팩트체크] 한국, 차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으로 선출?**

팩트체크 결과, 해당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님’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위원회 의장이 사퇴했을 때 영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후임 의장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후임 의장직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맡게 되었습니다. 총 21개 유네스코 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유산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의장국에서 회의를 열어 신규 세계유산 등재 여부를 결정하며,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측은 올해 9월 자국 수도 리야드에서 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차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 선출에 관한 해당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3. 참여자

연구는 조사전문업체인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하여 2023년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참여자는 총 680명으로, 전국 거주, 만 20세 ~ 만 69세 일반인 남녀를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대별로(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균등 할당해 모집하였다. 성별로는 340명이 남성(50%), 340명이 여성(50%)이었으며, 연령대별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모두 각각 136명으로 각각 20%씩 고르게 분포되었다( $M = 44.42$ ,  $SD = 13.53$ ). 이때, 국적이라는 집단 정체성을 통하여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기 때문에 응답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는 실험 참여에 제한되었다(“귀하의 국적은 대한민국입니까?” 1 = 예, 2 = 아니오).

본 연구는 2(허위정보 유인가: 긍정 vs. 부정) x 2(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내집단 vs. 외집단) 총 4개의 실험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이 중 외집단에 해당하는 2개의 집단(외집단, 긍정; 외집단, 부정)은 각각 하위 6개의 소집단을 포함한다. 특정 외집단 국가에 대한 선유 태도 및 순서 효과(order effect)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허위정보 자극물 2개에 대하여 허위정보 대상을 외집단 국가인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교차하여 설정하였다(태국-싱가포르, 태국-인도네시아, 싱가포르-태국,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태국, 인도네시아-싱가포르). 이후, 각 6개 소집단 응답의 평균을 내어 전체 외집단의 자료로 구성하였다.

한편, 기존에 각 집단별 150명씩 총 600명의 표본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실험 결과 초과 표본이 확보됨에 따라 내집단의 경우 각 160명씩, 외집단의 경우 각 180명씩 표본을 구성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집단의 경우 세부 6개 소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성별과 연령대별로 균등 할당함에 따라 내집단보다 초과 표본이 수집되었다.

[표 3] 실험 집단별 세부 참여자 구성

실험 집단		참여자(N)
1) 내집단(한국), 긍정		160
소계		160
2) 내집단(한국), 부정		160
소계		160
3) 외집단, 긍정	3) 외집단(태국/싱가포르), 긍정	30
	4) 외집단(태국/인도네시아), 긍정	30
	5) 외집단(싱가포르/인도네시아), 긍정	30
	6) 외집단(싱가포르/태국), 긍정	30
	7) 외집단(인도네시아/태국), 긍정	30
	8) 외집단(인도네시아/싱가포르), 긍정	30
소계		180
4) 외집단, 부정	9) 외집단(태국/싱가포르), 부정	30
	10) 외집단(태국/인도네시아), 부정	30
	11) 외집단(싱가포르/인도네시아), 부정	30
	12) 외집단(싱가포르/태국), 부정	30
	13) 외집단(인도네시아/태국), 부정	30
	14) 외집단(인도네시아/싱가포르), 부정	30
소계		180

## 제 2 절 주요 변인

### 1. 실험 요인

본 연구에서는 실험 요인으로 허위정보의 유인가(긍정 vs. 부정)와 허

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내집단 vs. 외집단)에 따라 허위정보 및 팩트체크에 대한 신뢰도와 대상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위 실험 요인은 이미 위 실험 자극물에서 제시한 <표 2>에서 구성 및 조작을 확인할 수 있다.

## 2. 메시지 신뢰도(message credibility)

종속변수인 메시지 신뢰도는 허위정보 기사와 팩트체크 결과에 대해 각각 검증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허위정보와 팩트체크에 대한 신뢰도를 믿음, 정확도 등의 변인을 토대로 효과를 측정해왔다. 메시지 신뢰는 정보원 신뢰, 미디어 신뢰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아펠만과 순다는 (Appelman & Sundar, 2016) 메시지 신뢰를 정확한지(accurate), 진실한지(authentic), 믿을 만 한지(believable) 크게 3가지 척도로 측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Cronbach's alpha = .87). 한편, 특정 인물에 의한 사실 또는 허위 진술에 대해 0점에서 10점 사이로 믿음을 평가하게 하고 팩트체크 결과를 제시받은 후 다시 믿음을 평가하게 하거나(Swire-Thompson et al., 2020), 제시된 진술 또는 게시글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7점 척도(1 = 전혀 믿을 만하지 않다, 7 = 매우 믿을 만하다)로 질문하기도 하였다 (Boothby, Murray, Waggy, Tsou, & Sugimoto, 2021). 뉴스의 정확도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제시된 주장이 얼마나 정확한지 4점 척도로 정확도를 평가한(1 = 전혀 정확하지 않다, 4 = 매우 정확하다) 연구들도 이루어졌다(Pennycook, Cannon, & Rand, 2018).

이처럼 기존 연구들의 메시지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척도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허위정보 및 팩트체크의 신뢰도를 크게 메시지가 얼마나 정확한지, 얼마나 믿을 만 한지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따라서 허위정보에 대한 신뢰도는 “앞선 기사를 읽고, 아래 진술문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라는 제시문과 함께 “해당 기사의 정보

는 정확하다”, “해당 기사의 정보는 믿을 만하다” 두 개의 문항에 대해서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 = 매우 동의한다). 팩트체크에 대한 신뢰도는 “방금 읽은 팩트체크 기사를 읽고, 아래 진술문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라는 제시문과 함께 “팩트체크 결과는 정확하다”, “팩트체크 결과는 믿을 만하다” 두 개의 문항에 대해서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 = 매우 동의한다). 신뢰도를 구성하는 두가지 항목에 대한 내적 일치도를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s alpha)로 확인한 결과, 국제·정치 분야 허위정보 자극물에 대해서는 .92가, 사회·문화 분야 허위정보 자극물에 대해서는 .95가 나타났으며, 국제·정치 분야 팩트체크 자극물에 대해서는 .94, 사회·문화 분야 팩트체크 자극물에 대해서는 .94가 나타났다. 따라서 허위정보 및 팩트체크의 신뢰도는 정확한지, 그리고 믿을 만 한지 두 가지 항목의 평균값으로 구성하였다.

### 3. 대상에 대한 태도

허위정보 및 팩트체크 대상에 대한 태도는 허위정보 및 팩트체크를 읽고 참여자에게 허위정보 대상인 국가에 대하여 어떻게 느꼈는지 슬라이더(0~100)를 통하여 표시하도록 한다(0 = 매우 차갑거나 비호의적인 감정, 100 = 매우 따뜻하거나 호의적인 감정). 이는 감정 온도계 측정(feeling thermometer)을 활용한 측정 방식으로서, 주어진 대상, 집단, 또는 이슈에 대한 응답자의 감정을 결정하고 비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반적인 측정 도구이며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 등에서 후보자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흔한 방법이다. 감정 온도계는 정치인이나 정당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집단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장승진·장한일, 2020). 응답자들은 온도에 상응하는 태도로 자신의 감정을 정도의 관점에서 표현하는데, ‘차가움(cold) - 따뜻함

(warm)’에 있어서, 매우 차가운 ‘0’의 수치는 응답자들이 주어진 대상을 전혀 좋아하지 않음을 나타내며, 매우 따뜻한 ‘100’의 수치는 주어진 대상을 매우 좋아함을 의미한다(Nelson,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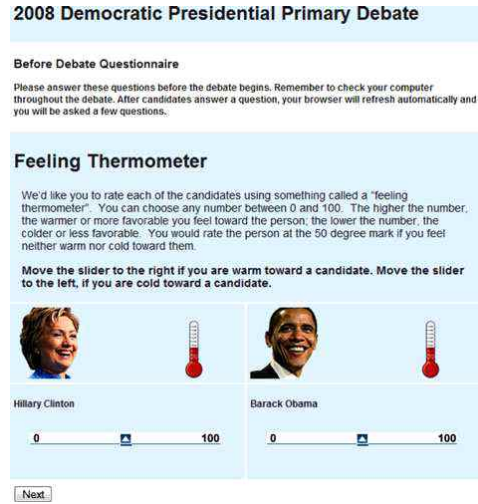
이러한 감정 온도계 측정은 스와이어 톰슨 등(2020)의 연구에서는 허위 정보 직후와 팩트체크 직후, 참여자들의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감정을 측정하기 위하여, 캠벨과 에르만(Campbell & Herman, 2010)의 연구에서는 5개의 다양한 인종 집단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감정 온도계를 사용하였다. 이외에도 감정 온도계 측정은 대상에 대한 태도 효과를 측정하고자 하는 기존 연구들에서 흔히 사용되는 측정 도구라고 할 수 있다(김소영·금희조, 2019; Campbell & Herman, 2010; Kim & Garrett, 2012; Newhagen & Bucy, 2020; Swire-Thompson et al., 2020; Thorson, 2016)([그림 6] 참조).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해당 감정 온도계 측정을 통해서 대상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는 허위정보 기사 노출 후 “앞선 기사를 읽고 한국(/태국/싱가포르/인도네시아)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 표시해 주십시오.”라는 문항을, 팩트체크 대상에 대한 태도는 팩트체크 기사 노출 후 “방금 읽은 팩트체크 기사를 읽고, 한국(/태국/싱가포르/인도네시아)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 표시해 주십시오”라는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응답은 0~100 사이의 슬라이드 바를 삽입하여 온도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0 = 매우 차갑거나 비호의적인 감정, 25 = 꽤 차갑거나 비호의적인 감정, 50 = 어떠한 감정도 없다, 75 = 꽤 따뜻하거나 호의적인 감정, 100 = 매우 따뜻하거나 호의적인 감정).

이처럼 감정 온도계를 통해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와 팩트체크 전후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특히, 팩트체크 전후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팩트체크 대상에 대한 태도에서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를 뺀 값으로 변화를 살펴보았다(육은희, 2020; 허유진·정성은, 2016).

[그림 6] 감정 온도계 예시



(Campbell & Herman, 2010)



(Kim & Garrett, 2012)

#### 4. 내집단 동일시

본 연구에서는 집단 정체성을 국적을 기준으로 내집단과 외집단을 나누어서 살펴보는 만큼, 내집단 동일시를 국가 정체성을 통해 측정하였다. 국가에 대한 집단 동일시 측정은 바렛(Barrett, 2007; Barrett & Oppenheimer, 2011; Davis, Leman, & Barrett, 2007)에 의해 디자인된 동일시 강도(the strength of identification scale; SoIS)에 기반한다. 바렛(2007)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국가, 민족, 인종 또는 종교적 식별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서 SoIS를 개발하였는데, 5~11세 또는 11~16세에 대한 짧은 질문 집합으로 구성된다. 5~11세 사이의 아이들의 경우, 카드에 적힌 응답 선택지를 읽고 인터뷰를 통해 측정하였다면, 11~16세의 경우, 평가 척도를 통한 설문지 형식으로 측정하였다.

SoIS는 다양한 연구에서 국가, 민족, 인종, 종교 등 집단에 대한 동일시의 강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다. 5세에서 9세 사이의 흑인과 백인 아이들의 인종적 집단 동일시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며(Davis et

al., 2007),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앞서 5세에서 15세 사이의 올림픽 장소 근처에 사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국가적(영국) 그리고 인종적 동일시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었다(Lam & Corson, 2013). 이외에도 국가 정체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집단 동일시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활용되어 왔다(Gallagher & Cairns, 2011; Reizábal & Ortiz, 2011). 비록 해당 측정 도구는 아이들의 국가 동일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들로 구성되었지만, 측정 대상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도 수행되기도 하였다. 남부 나이지리아와 북부 나이지리아 사람들 사이의 분배적, 절차적 정의 신념과 국가 정체성 사이의 연관성을 탐구하면서 230명의 나이지리아 대학생의 국가 정체성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었다(Asekun, 2018). 따라서 해당 질문들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 연령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해당 측정 도구를 활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험을 진행한 만큼, 5~11세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 형식이 아닌 11~16세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 척도가 기재된 설문지 형식을 통하여 내집단 동일시를 측정하였다.

바렛(2007)의 측정 문항은 내집단에 대한 감정과 집단 소속감의 중요성과 같은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내집단인 한국에 적용하여 다음 <표 4>와 같이 6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SolS를 활용한 연구들에서 6개 문항들은 다음과 같은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eigenvalue : 2.02 ~ 3.30; percentage of variance explained : 40.8 ~ 80.1; Cronbach's alpha : .60 ~ .91)(Barrett & Oppenheimer, 2011). 한편, 문항의 순서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6개 문항의 순서는 랜덤으로 제시하였다.

[표 4] 국가 정체성 동일시 측정 문항

문항	질문	응답
동일시 정도 (Degree of identification)	귀하는 스스로 얼마나 한국인이라고 느끼십니까?	전혀 한국인이라고 느끼지 않는다(1) ~ 매우 한국인이라고 느낀다(7)
자부심 (Pride)	귀하는 본인이 한국인인 것이 얼마나 자랑스롭습니까?	전혀 자랑스롭지 않다(1) ~ 매우 자랑스롭다(7)
중요성 (Importance)	귀하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귀하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1) ~ 매우 중요하다(7)
감정 (Feeling)	귀하는 본인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매우 슬프다(1) ~ 매우 행복하다(7)
부정적인 내면화 (Negative internalisation)	귀하는 누군가가 한국인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다면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매우 슬프다(1) ~ 매우 행복하다(7)
긍정적인 내면화 (Positive internalisation)	귀하는 누군가가 한국인에 대해서 좋게 말한다면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매우 슬프다(1) ~ 매우 행복하다(7)

한편, 해당 내집단 동일시의 6가지 문항 중 ‘부정적인 내면화’ 항목의 경우, 나머지 5가지 질문과 다른 척도 방향을 가진 역코딩이 필요한 항목으로, 연구 결과 내적 일치도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크론바흐 알파를 통하여 ‘부정적인 내면화’ 항목을 포함한 6가지 항목에 대한 내적



일치도를 확인한 결과, .86으로 나타났지만, 해당 항목을 제외한 5가지 항목에 대한 내적 일치도는 .89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수의 높은 내적 일치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6가지 항목 중 ‘부정적인 내면화’ 항목을 제외한 5가지 항목의 평균값으로 응답자의 내집단 동일시라는 변수를 구성하였다.

## 5. 통제변인

삼원상호작용을 살펴보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할 시, 연령,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이라는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활용하였다. 교육수준으로서 학력은 ‘초졸 이하 또는 무학’, ‘중졸’, ‘고졸’, ‘대학 재학 혹은 대졸’, ‘대학원 재학 이상’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연구 결과, 실험 참여자의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 또는 무학’은 1명(0.2%), ‘중졸’은 4명(0.6%), ‘고졸’은 116명(17.1%), ‘대학 재학 혹은 대졸’은 489명(71.9%), ‘대학원 재학 이상’은 70명(10.3%)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은 한 달 총수입(세전)(보너스나 은행 이자 모두 포함)을 기준으로 100만 원 단위로 10개 구간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1 = 100만 원 미만, 9 = 800만 원 이상; 10 = 소득 없음). 연구 결과, ‘100만 원 미만’이 25명(3.7%),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이 38명(5.6%),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 110명(16.2%),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이 127명(18.7%),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이 88명(12.9%), ‘5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이 84명(12.4%), ‘6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이 44명(6.5%), ‘700만 원 이상 800만 원 미만’이 52명(7.7%), ‘800만 원 이상’이 101명(14.9%), ‘소득 없음’이 11명(1.6%)으로 나타났다. 이때, ‘소득 없음’ 응답은 분석에서는 ‘100만 원 미만’ 응답에 포함하여 재코딩하여 분석하였다.

## 6. 조작 검증

조작물로서 사용되는 허위정보 기사가 긍정·부정이라는 유인가로 알맞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자극물 제시 후 자극물의 조작 검증을 진행하였다. 자극물로 제시된 각각의 기사에 대하여 “방금 읽은 기사는 한국(/태국/싱가포르/인도네시아)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묘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7점 리커드 척도(1 =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한다, 7=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한다)로 대답하도록 하였다.

## 제 5 장 연구 결과

### 제 1 절 조작 검증 결과

가설 검증에 앞서 실험 참여자들이 긍정과 부정이라는 허위정보 유인가를 의도한 대로 지각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일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허위정보 기사는 각 국제·정치, 사회·문화 1개씩 총 2개가 제시되었으며, 각 유인가가 알맞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허위정보 기사 제시 후 “방금 읽은 기사는 한국(/태국/싱가포르/인도네시아)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묘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7점 척도로 제시하였다(1 =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한다, 7 =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한다). 먼저 중간 응답값(4)을 기준으로 일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긍정 유인가 조건 참여자들은 해당 기사가 대상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국제·정치 기사  $M = 5.00$ ,  $SD = 1.02$ ,  $t[339] = 18.07$ ,  $p < .001$ ; 사회·문화 기사  $M = 5.24$ ,  $SD = .99$ ,  $t[339] = 23.08$ ,  $p < .001$ ), 부정 유인가 조건 참여자들은 해당 기사가 대상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국제·정치 기사  $M = 3.35$ ,  $SD = 1.28$ ,  $t[339] = -9.35$ ,  $p < .001$ ; 사회·문화 기사  $M = 2.95$ ,  $SD = 1.32$ ,  $t[339] = -14.67$ ,  $p < .001$ ).

구체적으로 각 실험 집단별로 각 유인가가 알맞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하고자 중간 응답값(4)을 기준으로 일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를 제시받은 집단(국제·정치 기사  $M = 5.03$ ,  $SD = 1.05$ ,  $t[159] = 12.40$ ,  $p < .001$ ; 사회·문화 기사  $M = 5.43$ ,  $SD = .98$ ,  $t[159] = 18.56$ ,  $p < .001$ )과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를 제시받은 집단(국제·정치 기사  $M = 4.97$ ,  $SD = .99$ ,  $t[179] = 13.12$ ,  $p < .001$ ; 사회·문화 기사  $M = 5.07$ ,  $SD = .97$ ,  $t[179] = 14.72$ ,  $p$

< .001) 모두 해당 기사가 대상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내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제시받은 집단(국제·정치 기사  $M = 3.06$ ,  $SD = 1.33$ ,  $t[159] = -8.99$ ,  $p < .001$ ; 사회·문화 기사  $M = 2.44$ ,  $SD = 1.31$ ,  $t[159] = -15.06$ ,  $p < .001$ )과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제시받은 집단(국제·정치 기사  $M = 3.61$ ,  $SD = 1.18$ ,  $t[179] = -4.41$ ,  $p < .001$ ; 사회·문화 기사  $M = 3.41$ ,  $SD = 1.15$ ,  $t[179] = -6.93$ ,  $p < .001$ ) 모두 해당 기사가 대상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모든 실험 집단에 있어 유인가에 대한 조작이 의도한 바와 같이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표 5] 참조).

[표 5] 유인가에 대한 각 집단별 조작 검증 일표본  $t$ 검정

구분		$M$	$SD$	$df$	$t$	$p$
내집단	국제·정치	5.03	1.05	159	12.40	< .001
	x긍정	5.43	.98	159	18.56	< .001
내집단	국제·정치	3.06	1.33	159	-8.99	< .001
	x부정	2.44	1.31	159	-15.06	< .001
외집단	국제·정치	4.97	.99	179	13.12	< .001
	x긍정	5.07	.97	179	14.72	< .001
외집단	국제·정치	3.61	1.18	179	-4.41	< .001
	x부정	3.41	1.15	179	-6.93	< .001

## 제 2 절 기술 통계치 및 상관관계 검증

본 연구에서는 허위정보의 유인가(긍정 vs. 부정)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내집단 vs. 외집단)이 허위정보 및 팩트체크에 대한 신뢰도 및 대상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나아가 내집단 동일시

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분석에는 Stata 17.0 버전 및 SPSS 25.0 버전을 활용하였으며, 혼합분산분석 및 조절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표 6] 참조)와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표 7] 참조).

[표 6]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치

	<i>N</i>	허위정보 노출 뒤				팩트체크 노출 뒤			
		신뢰도		대상에 대한 태도		신뢰도		대상에 대한 태도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내집단 x긍정	160	4.70	1.10	67.26	14.43	4.75	1.18	53.82	16.15
내집단 x부정	160	3.49	1.09	36.89	19.11	4.71	1.46	60.19	19.41
외집단 x긍정	180	4.54	1.01	60.53	11.93	4.73	1.15	53.53	13.71
외집단 x부정	180	4.23	1.03	51.12	11.05	4.71	1.09	57.79	12.34

메시지 신뢰도(“해당 기사의 정보는 정확하다”, “해당 기사의 정보는 믿을 만하다”, “팩트체크 결과는 정확하다”, “팩트체크 결과는 믿을 만하다”, 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 = 매우 동의한다), 대상에 대한 태도(0 = 매우 차갑거나 비호의적인 감정, 100 = 매우 따뜻하거나 호의적인 감정)

[표 7] 주요 변인간 상관계수

변인		1	2	3
1	허위정보의 신뢰도			
2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	.52***		
3	팩트체크의 신뢰도	.24***	.11**	
4	팩트체크 대상에 대한 태도	.04	.08*	.45***

\* $p < .05$ , \*\* $p < .01$ , \*\*\* $p < .001$

### 제 3 절 가설 검증

#### 1. <연구가설 1> 검증

<연구가설 1-1>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허위정보를 제시받은 집단은 내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허위정보를 제시받은 집단보다 허위정보를 더 신뢰할 것이다.

<연구가설 1-2>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허위정보를 제시받은 집단은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허위정보를 제시받은 집단보다 허위정보를 더 신뢰할 것이다.

<연구가설 1-1>에서는 허위정보의 유인가가 허위정보의 신뢰도에 미치는 효과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정치와 사회·문화 두 주제의 허위정보 자극물을 제시하였으며, 따라서 분석에는 2(허위정보 유인가: 긍정 vs. 부정) x 2(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내집단 vs 외집단) x 2(허위정보 주제 : 국제·정치 vs. 사회·문화)의 혼합분산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표 8>과 같이 허위정보 주제와 허위정보 유인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

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F = 14.03, p < .001$ ).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의 상호작용이 허위정보 주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허위정보 주제별로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의 상호작용을 각각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표 8] 허위정보 신뢰도에 대한 혼합분산분석 결과 (허위정보 유인가 x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x 허위정보 주제)

구분	SS	df	MS	F	p
<b>집단간</b>					
허위정보 유인가	195.43	1	195.43	87.78	< .001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29.71	1	29.71	13.34	< .001
허위정보 유인가 *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68.11	1	68.11	30.59	< .001
오차	1505.08	676	2.23		
<b>집단내</b>					
허위정보 주제	1.704	1	1.704	2.43	.12
허위정보 주제 * 허위정보 유인가	27.38	1	27.38	39.04	< .001
허위정보 주제 *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6.94	1	6.94	9.90	.002
허위정보 주제 * 허위정보 유인가 *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9.84	1	9.84	14.03	< .001
오차	474.19	676	.70		

## 1) 허위정보 주제 : 국제·정치 분야

먼저, 허위정보 주제가 국제·정치 분야인 경우, <표 9>와 같이 허위정보의 신뢰도에 있어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 = 9.76, p = .002$ ).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을 기준으로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허위정보를 제시받은 집단( $M = 4.58, SD = 1.11$ )은 내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허위정보를 제시받은 집단( $M = 3.82, SD = 1.29$ )보다 허위정보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1-1>은 지지되었다( $p < .001$ ). 허위정보 대상이 외집단인 경우에는 허위정보 유인가가 긍정일 때( $M = 4.45, SD = 1.15$ )와 부정일 때( $M = 4.25, SD = 1.09$ )의 허위정보의 신뢰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p = .11$ ), <연구가설 1-2>는 지지되지 않았다([그림 7-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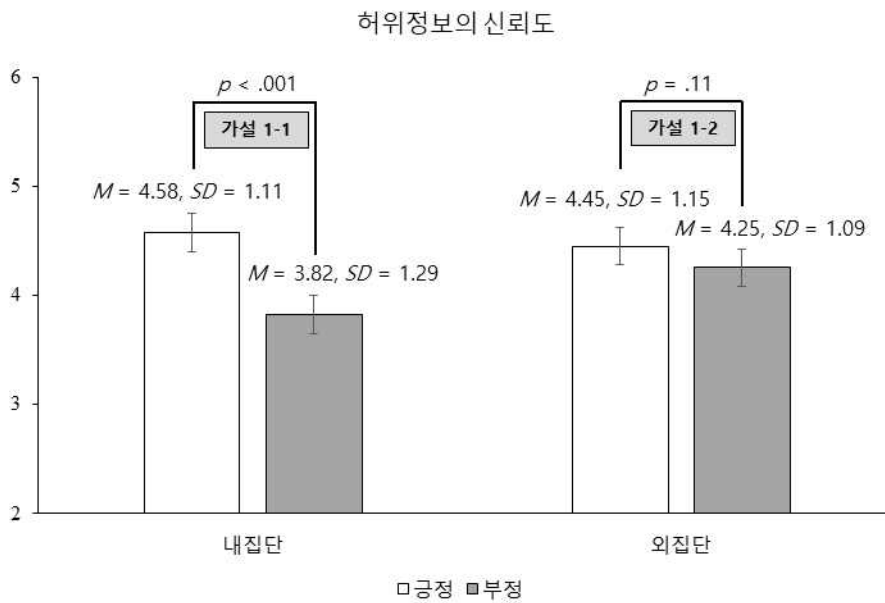
한편, 허위정보 유인가를 기준으로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허위정보 유인가가 긍정일 때는,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허위정보를 제시받은 집단( $M = 4.58, SD = 1.11$ )과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허위정보를 제시받은 집단( $M = 4.45, SD = 1.15$ )의 허위정보의 신뢰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 = .32$ ). 반면 허위정보 유인가가 부정일 때는,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허위정보를 제시받은 집단( $M = 4.25, SD = 1.09$ )이 내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허위정보를 제시받은 집단( $M = 3.82, SD = 1.29$ )보다 허위정보를 신뢰하였다( $p = .001$ )([그림 7-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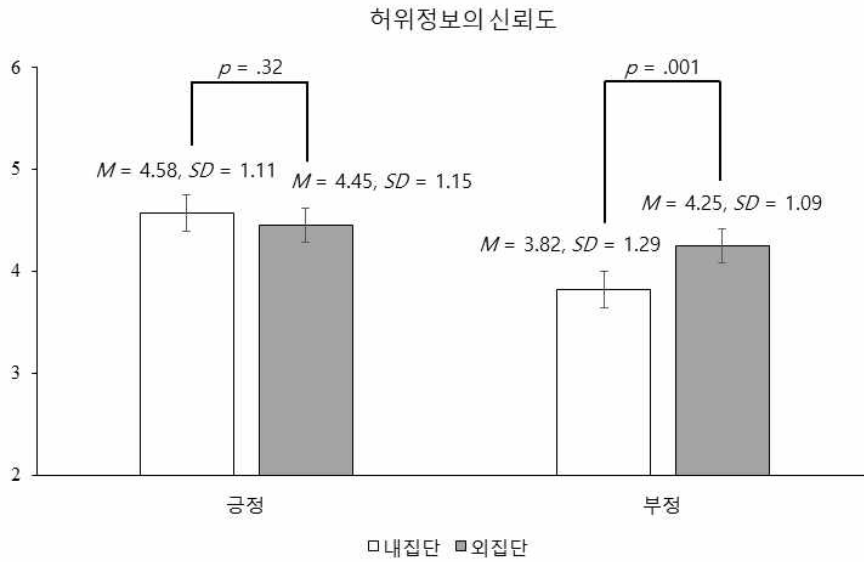
[표 9] 허위정보 신뢰도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허위정보 유인가 x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허위정보 주제 : 국제·정치)

구분	SS	df	MS	F	p
허위정보 유인가	38.25	1	38.25	28.52	< .001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3.96	1	3.96	2.96	.09
허위정보 유인가 *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13.09	1	13.09	9.76	.002
오차	906.57	676	1.34		
계	959.41	679			

[그림 7-1]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에 따른 허위정보의 신뢰도 집단별 평균 비교(1) (허위정보 주제 : 국제·정치)



[그림 7-2]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에 따른 허위정보의 신뢰도 집단별 평균 비교(2) (허위정보 주제 : 국제·정치)



## 2) 허위정보 주제 : 사회·문화 분야

한편, 허위정보 주제가 사회·문화 분야일 때 역시 <표 10>과 같이 허위정보의 신뢰도에 있어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 = 40.87, p < .001$ ).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을 기준으로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허위정보를 제시받은 집단( $M = 4.82, SD = 1.30$ )은 내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허위정보를 제시받은 집단( $M = 3.15, SD = 1.45$ )보다 허위정보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1-1>은 지지되었다( $p < .001$ ). 허위정보 대상이 외집단인 경우에는 허위정보 유인가가 긍정일 때( $M = 4.64, SD = 1.12$ )와 부정일 때( $M = 4.21, SD = 1.17$ )의 허위정보의 신뢰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긴 하였지만( $p = .001$ ),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허위정보를 제시받은 집단이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허위정보를 제시받은 집단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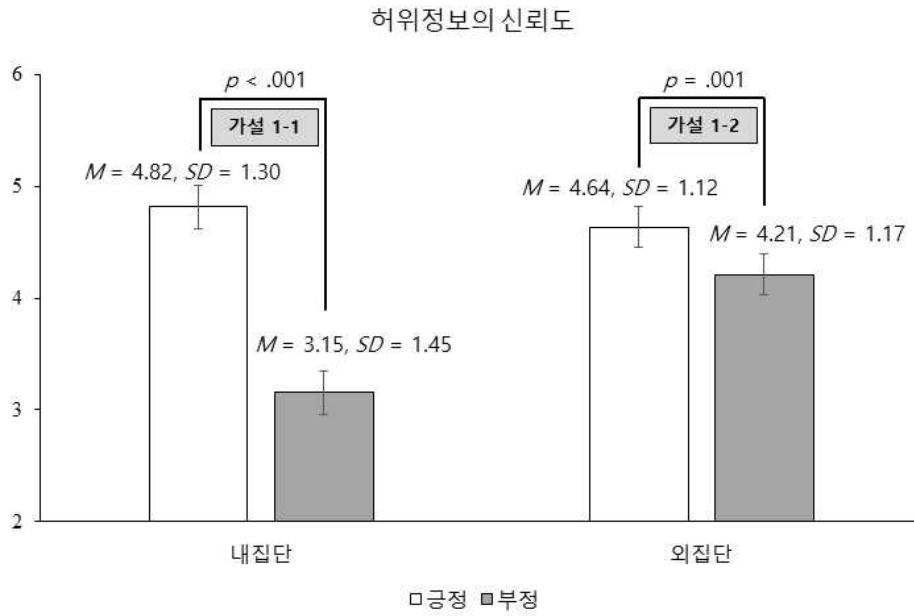
허위정보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1-2>와 반대의 결과로서 <연구가설 1-2>는 지지되지 않았다([그림 8-1] 참조).

한편, 허위정보 유인가를 기준으로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허위정보 유인가가 긍정일 때는,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허위정보를 제시받은 집단 ( $M = 4.82, SD = 1.30$ )과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허위정보를 제시받은 집단 ( $M = 4.64, SD = 1.12$ )의 허위정보의 신뢰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 = .19$ ). 반면 허위정보 유인가가 부정일 때는,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허위정보를 제시받은 집단 ( $M = 4.21, SD = 1.17$ )이 내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허위정보를 제시받은 집단 ( $M = 3.15, SD = 1.45$ )보다 허위정보를 더 신뢰하였다. ( $p < .001$ ) ([그림 8-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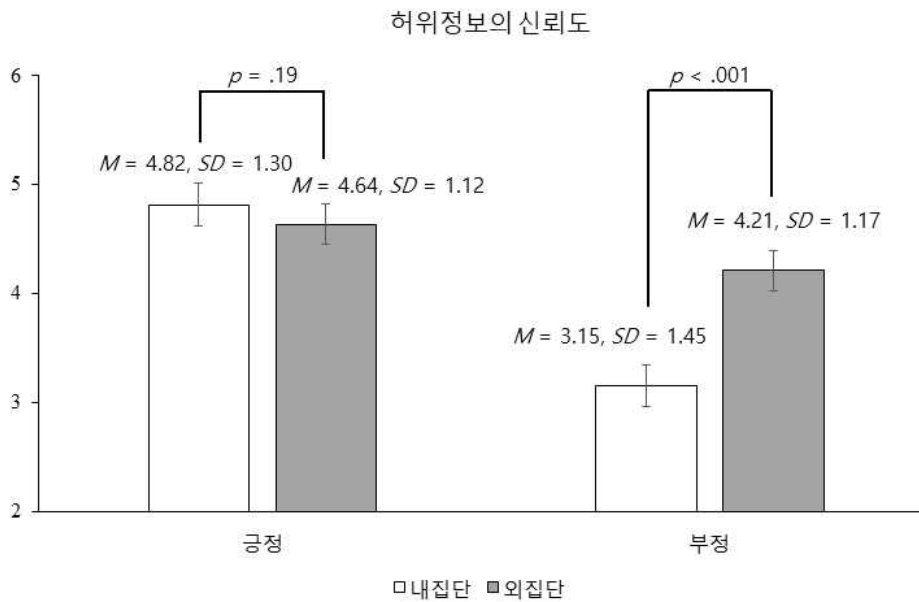
[표 10] 허위정보 신뢰도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허위정보 유인가 x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허위정보 주제 : 사회·문화)

구분	SS	df	MS	F	p
허위정보 유인가	184.56	1	184.56	116.31	< .001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32.68	1	32.68	20.60	< .001
허위정보 유인가 *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64.86	1	64.86	40.87	< .001
오차	1072.70	676	1.59		
계	1342.76	679			

[그림 8-1]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에 따른 허위정보의 신뢰도 집단별 평균 비교(1) (허위정보 주제 : 사회·문화)



[그림 8-2]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에 따른 허위정보의 신뢰도 집단별 평균 비교(2) (허위정보 주제 : 사회·문화)



이를 통해 허위정보 주제가 국제·정치, 사회·문화 분야일 때 모두 <연구가설 1-1>은 지지하고, <연구가설 1-2>는 지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허위정보 주제가 사회·문화 분야일 때 국제·정치 분야일 때보다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두드러졌다. 특히, <연구가설 1-2>와 관련하여, 허위정보 주제가 국제·정치 분야일 때는 허위정보 대상이 외집단인 경우 허위정보 유인가가 긍정일 때와 부정일 때의 허위정보의 신뢰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허위정보 주제가 사회·문화 분야일 때는 허위정보 유인가가 긍정일 때와 부정일 때의 허위정보의 신뢰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긴 하였지만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허위정보를 제시받은 집단이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허위정보를 제시받은 집단보다 허위정보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허위정보 주제에 따라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2. <연구가설 2> 검증

<연구가설 2-1>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허위정보를 제시받은 집단은 내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허위정보를 제시받은 집단보다 교정정보(팩트체크)를 덜 신뢰할 것이다.

<연구가설 2-2>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허위정보를 제시받은 집단은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허위정보를 제시받은 집단보다 교정정보(팩트체크)를 덜 신뢰할 것이다.

<연구가설 2>는 허위정보의 유인가가 팩트체크의 신뢰도에 미치는 효과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앞서 제시한 국제·정치와 사회·문화 두 주제의 허위정보를 부정하는 팩트체크 자극물을 각각 제시하였으며, 따라서 분석에는 2(허위정보 유인가: 긍정 vs. 부정) x 2(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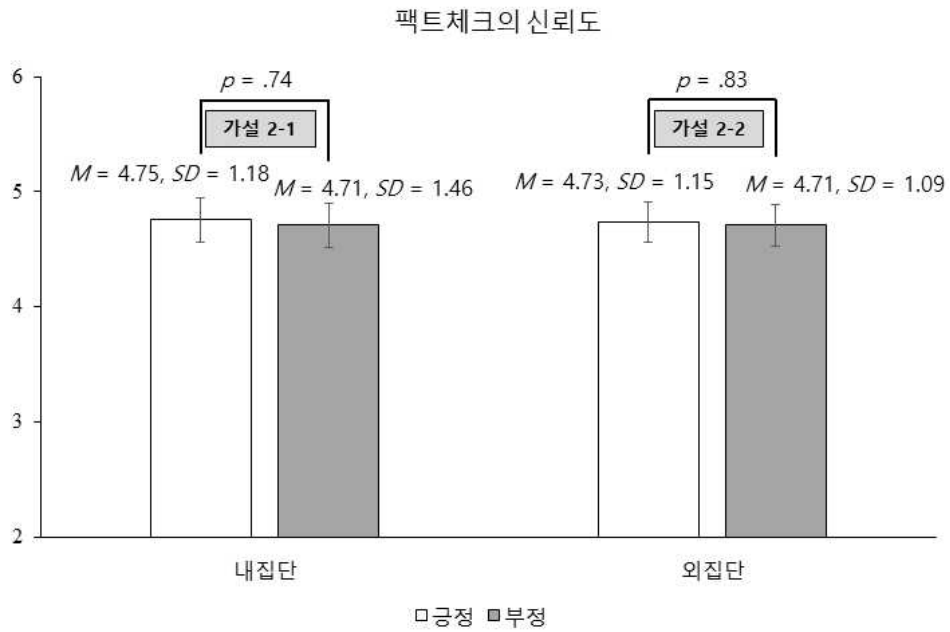
단 vs 외집단) x 2(허위정보 주제 : 국제·정치 vs. 사회·문화)의 혼합분산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표 11>과 같이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을 포함한 삼원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F = .001, p = .98$ ).

한편, 팩트체크의 신뢰도에 있어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 = .01, p = .93$ ). 즉, 허위정보 유인가가 팩트체크 신뢰도에 미치는 효과를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이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2-1>과 <연구가설 2-2>는 모두 지지되지 않았다([그림 9-1], [그림 9-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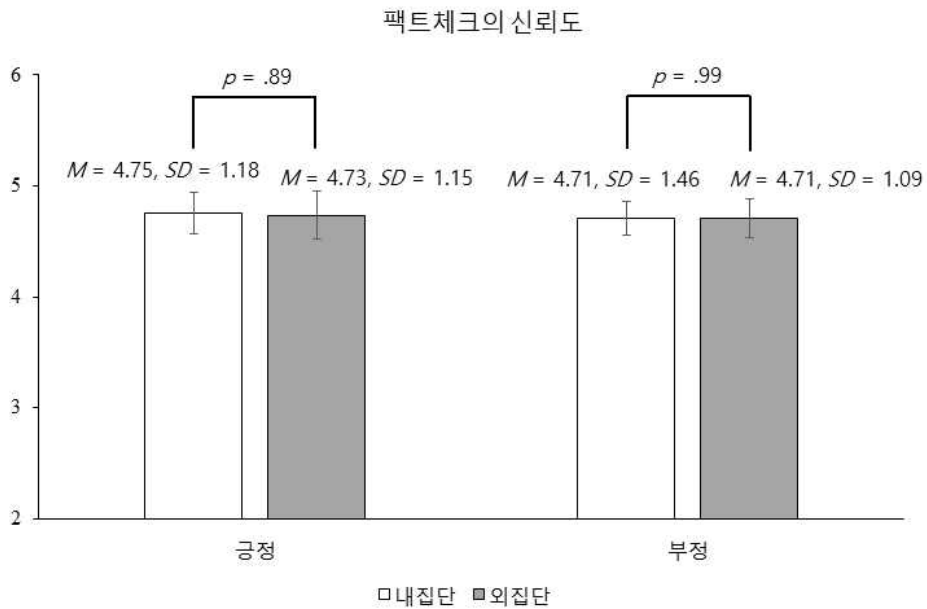
[표 11] 팩트체크의 신뢰도에 대한 혼합분산분석 결과 (허위정보 유인가 x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x 허위정보 주제)

구분	SS	df	MS	F	p
<b>집단간</b>					
허위정보 유인가	.45	1	.45	.15	.70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03	1	.03	.01	.92
허위정보 유인가 *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03	1	.03	.01	.93
오차	2019.55	676	2.99		
<b>집단내</b>					
허위정보 주제	.33	1	.33	.72	.40
허위정보 주제 * 허위정보 유인가	.98	1	.98	2.15	.14
허위정보 주제 *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43	1	.43	.95	.33
허위정보 주제 * 허위정보 유인가 *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00	1	.00	.001	.98
오차	307.34	676	.46		

[그림 9-1]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에 따른 팩트체크의 신뢰도 집단별 평균 비교(1)



[그림 9-2]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에 따른 팩트체크의 신뢰도 집단별 평균 비교(2)





### 3. <연구가설 3> 검증

<연구가설 3>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이 허위정보 신뢰도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연구가설 1-1>, <연구가설 1-2>)는 내집단 동일시가 강할수록 두드러질 것이다.

<연구가설 3>은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이 허위정보의 신뢰도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연구가설 1-1>, <연구가설 1-2>)가 내집단 동일시에 따라 조절되는지 살펴보고자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연구가설 1-1>, <연구가설 1-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의 상호작용이 허위정보 주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허위정보 주제별로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의 상호작용이 내집단 동일시에 따라 조절되는지 각각 살펴보았다.

#### 1) 허위정보 주제 : 국제·정치 분야

분석 결과, 먼저 허위정보 주제가 국제·정치 분야일 때는 허위정보 신뢰도에 있어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내집단 동일시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3>은 지지되지 않았다([표 12] 참조).

[표 12] 허위정보의 신뢰도에 대한 삼원상호작용 효과 (허위정보 유인가 x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x 내집단 동일시) (허위정보 주제 : 국제·정치)

		<i>b</i>	<i>SE</i>	<i>t</i>
	연령	-.005	.003	-1.61
통제 변수	성별	-.11	.09	-1.27
	교육수준	-.11	.08	-1.31
	소득수준	-.005	.02	-.26
허위정보 유인가		-.74***	.13	-5.97
허위정보 대상 집단 정체성		-.18	.12	-1.43
허위정보 유인가		.64***	.17	3.73
* 허위정보 대상 집단 정체성				
내집단 동일시		.48***	.10	4.81
허위정보 유인가		-.52***	.14	-3.80
* 내집단 동일시				
허위정보 대상 집단 정체성		-.03	.13	-.24
* 내집단 동일시				
허위정보 유인가				
* 허위정보 대상 집단 정체성 * 내집단 동일시		.32	.18	1.77

주. 내집단 동일시는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하여 분석함

\* $p < .05$ , \*\* $p < .01$ , \*\*\* $p < .001$

## 2) 허위정보 주제 : 사회·문화 분야

한편, 허위정보 주제가 사회·문화 분야일 때는 허위정보 신뢰도에 있어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내집단 동일시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39$ ,  $SE = .20$ ,  $t = 1.98$ ,  $p = .048$ )([표 13] 참조).

[표 13] 허위정보의 신뢰도에 대한 삼원상호작용 효과 (허위정보 유인가 x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x 내집단 동일시) (허위정보 주제 : 사회·문화)

		<i>b</i>	<i>SE</i>	<i>t</i>
	연령	-.004	.004	-.99
통제 변수	성별	-.15	.09	-1.57
	교육수준	-.18*	.09	-2.05
	소득수준	-.003	.02	-.14
허위정보 유인가		-1.66***	.14	-12.18
허위정보 대상 집단 정체성		-.22	.13	-1.68
허위정보 유인가 * 허위정보 대상 집단 정체성		1.31***	.19	6.96
내집단 동일시		.59***	.11	5.50
허위정보 유인가 * 내집단 동일시		-.66***	.15	-4.45
허위정보 대상 집단 정체성 * 내집단 동일시		-.15	.15	-1.06
허위정보 유인가 * 허위정보 대상 집단 정체성 * 내집단 동일시		.39*	.20	1.98

주. 내집단 동일시는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하여 분석함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10>에서 제시된 막대 그래프는 허위정보 신뢰도의 예측된 평균 및 95% 신뢰구간을 보여주는데, 내집단 동일시 조절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내집단 동일시가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표준편차’인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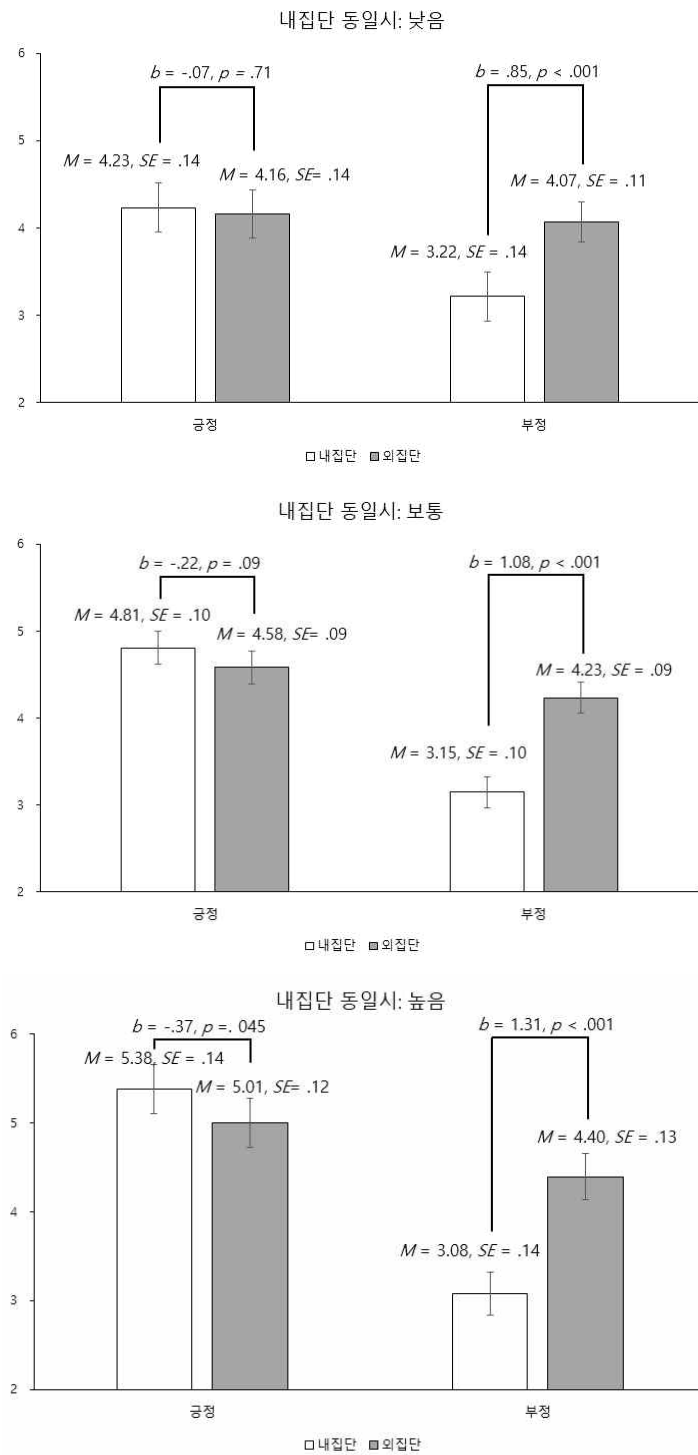
우는 ‘낮음(Low)’으로, ‘평균’은 ‘보통(Moderate)’으로, ‘평균+표준편차’인 경우는 ‘높음(High)’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내집단 동일시가 낮은 집단에서는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허위정보와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허위정보 간의 신뢰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내집단  $M = 4.23$ ; 외집단  $M = 4.16$ ,  $b = -.07$ ,  $p = .71$ ),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허위정보를 내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허위정보보다 더욱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내집단  $M = 3.22$ ; 외집단  $M = 4.07$ ,  $b = .85$ ,  $p < .001$ ). 내집단 동일시가 보통인 집단에서는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허위정보와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허위정보 간의 신뢰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내집단  $M = 4.81$ ; 외집단  $M = 4.58$ ,  $b = -.22$ ,  $p = .09$ ),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허위정보를 내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허위정보보다 더욱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내집단  $M = 3.15$ ; 외집단  $M = 4.23$ ,  $b = 1.08$ ,  $p < .001$ ). 내집단 동일시가 높은 집단에서는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허위정보를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허위정보보다 더욱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내집단  $M = 5.38$ ; 외집단  $M = 5.01$ ,  $b = -.37$ ,  $p = .045$ ),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허위정보를 내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허위정보보다 더욱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내집단  $M = 3.08$ ; 외집단  $M = 4.40$ ,  $b = 1.31$ ,  $p < .001$ ).

위 결과를 토대로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내집단 동일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긍정적인 허위정보일 때, 내집단 동일시가 강할수록 내집단에 대한 허위정보의 신뢰도와 외집단에 대한 허위정보의 신뢰도의 차이가 더욱 커졌다. 부정적인 허위정보일 때에는 외집단에 대한 허위정보를 내집단에 대한 허위정보보다 더욱 신뢰함을 알 수 있는데, 내집단 동일시가 강할수록 내집단에 대한 허위정보의 신뢰도와 외집단에 대한 허위정보의 신뢰도의 차이가 더욱 커졌다. 즉, 뉴스 이용자의 내집단 동일시 수준이 높을수록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강화됨에 따라 허위정보 주제가 사회·문화 주제인 경우에는 <연구가

설 3>이 지지되었다.

[그림 10] 허위정보 유인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내집단 동일시에 따른 허위정보의 신뢰도 집단별 평균 비교 (허위정보 주제 : 사회·문화)



#### 4. <연구가설 4> 검증

<연구가설 4>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이 팩트체크 신뢰도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연구가설 2-1>, <연구가설 2-2>)는 내집단 동일시가 강할수록 두드러질 것이다.

한편, <연구가설 4>는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이 팩트체크의 신뢰도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연구가설 2-1>, <연구가설 2-2>)가 내집단 동일시에 따라 조절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연구가설 2-1>, <연구가설 2-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의 상호작용이 허위정보 주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전체 팩트체크의 신뢰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팩트체크의 신뢰도에 있어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내집단 동일시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4>는 지지되지 않았다([표 14] 참조).

[표 14] 팩트체크 신뢰도에 대한 삼원상호작용 효과 (허위정보 유인가 x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x 내집단 동일시)

	<i>b</i>	<i>SE</i>	<i>t</i>
연령	.004	.003	1.07
<b>통제</b>			
<b>변수</b> 성별	-.19*	.09	-2.08
교육수준	.16	.09	1.80
소득수준	.06**	.02	3.26
허위정보 유인가	-.06	.13	-.43
허위정보 대상 집단 정체성	-.08	.13	-.63
허위정보 유인가 * 허위정보 대상 집단 정체성	.11	.18	.62
내집단 동일시	.15	.10	1.42
허위정보 유인가 * 내집단 동일시	.03	.14	.22
허위정보 대상 집단 정체성 * 내집단 동일시	.17	.14	1.22
허위정보 유인가 * 허위정보 대상 집단 정체성 * 내집단 동일시	-.10	.19	-.51

주. 내집단 동일시는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하여 분석함

\* $p < .05$ , \*\* $p < .01$ , \*\*\* $p < .001$



## 5. <연구문제 1> 검증

<연구문제 1-1>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이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1-2>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이 팩트체크 전후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1-1>에서는 허위정보의 유인가가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허위정보 유인가: 긍정 vs 부정) x 2(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내집단 vs 외집단) x 2(허위정보 주제 : 국제·정치 vs. 사회·문화)의 혼합분산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표 15>와 같이 허위정보 주제와 허위정보 유인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F = 5.75, p = .02$ ),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의 상호작용이 허위정보 주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허위정보 주제별로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에 있어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의 상호작용을 각각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표 15]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에 대한 혼합분산분석 결과 (허위정보 유인가 x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x 허위정보 주제)

구분	SS	df	MS	F	p
<b>집단간</b>					
허위정보 유인가	134020.69	1	134020.69	327.08	< .001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4768.68	1	4768.68	11.64	.001
허위정보 유인가 *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37193.65	1	37193.65	90.77	< .001
오차	276993.19	676	409.75		
<b>집단내</b>					
허위정보 주제	105.821	1	105.82	.76	.39
허위정보 주제 * 허위정보 유인가	3784.73	1	3784.73	27.01	< .001
허위정보 주제 *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10.44	1	10.44	.07	.79
허위정보 주제 * 허위정보 유인가 *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805.84	1	805.84	5.75	.02
오차	94727.42	676	140.13		

### 1) 허위정보 주제 : 국제·정치 분야

먼저, 허위정보 주제가 국제·정치 분야일 때, <표 16>과 같이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에 있어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

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 = 50.62, p < .001$ ).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을 기준으로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허위정보 대상이 내집단인 경우, 허위정보 유인가가 긍정일 때( $M = 65.18, SD = 16.44$ )가 부정일 때( $M = 39.7, SD = 20.85$ )보다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으로 나타났으며( $p < .001$ ), 허위정보 대상이 외집단인 경우에도 허위정보 유인가가 긍정일 때( $M = 59.82, SD = 15.25$ )가 부정일 때( $M = 52.21, SD = 12.27$ )보다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으로 나타났다( $p < .001$ )([그림 1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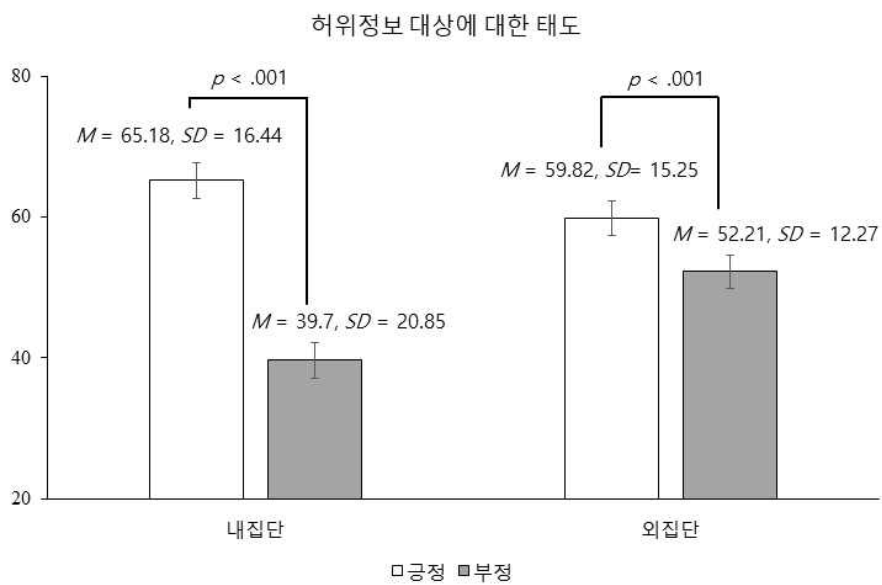
한편, 허위정보 유인가를 기준으로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긍정적 허위정보일 때는 허위정보 대상이 내집단인 경우( $M = 65.18, SD = 16.44$ )가 외집단의 경우( $M = 59.82, SD = 15.25$ )에 비해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가 더 호의적으로 나타났으며( $p = .003$ ), 부정적 허위정보일 때는 허위정보 대상이 내집단인 경우( $M = 39.7, SD = 20.85$ )가 외집단인 경우( $M = 52.21, SD = 12.27$ )보다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가 더 비호의적으로 나타났다( $p < .001$ )([그림 11-2] 참조).

즉,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이 내집단, 외집단인 경우 모두 긍정적인 허위정보일 때가 부정적인 허위정보일 때보다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으로 나타났지만, 그 차이가 내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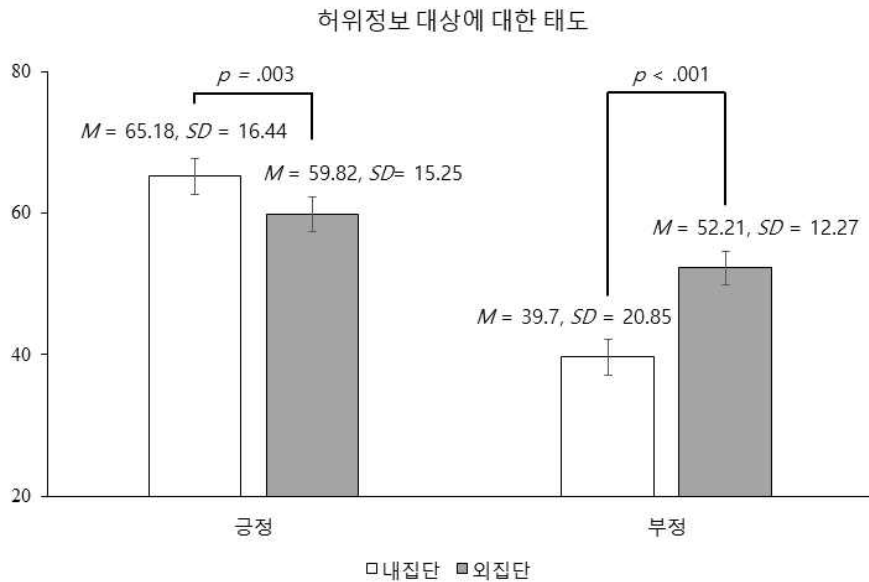
[표 16]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허위정보 유인가 x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허위정보 주제 : 국제·정치)

구분	SS	df	MS	F	p
허위정보 유인가	46380.89	1	46380.89	173.58	< .001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2166.45	1	2166.45	8.11	.005
*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13525.07	1	13525.07	50.62	< .001
오차	180631.63	676	267.21		
계	239955.22	679			

[그림 11-1]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에 따른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 집단별 평균 비교(1) (허위정보 주제 : 국제·정치)



[그림 11-2]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에 따른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 집단별 평균 비교(2) (허위정보 주제 : 국제·정치)



## 2) 허위정보 주제 : 사회·문화 분야

한편, 허위정보 주제가 사회·문화 분야일 때, <표 17>과 같이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에 있어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 = 86.58, p < .001$ ).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을 기준으로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허위정보 대상이 내집단인 경우, 허위정보 유인가가 긍정일 때( $M = 69.33, SD = 16.28$ )가 부정일 때( $M = 34.08, SD = 21.61$ )보다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으로 나타났으며( $p < .001$ ), 허위정보 대상이 외집단인 경우에도 허위정보 유인가가 긍정일 때( $M = 61.24, SD = 14.14$ )가 부정일 때( $M = 50.03, SD = 14.74$ )보다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으로 나타났다( $p < .001$ )([그림 12-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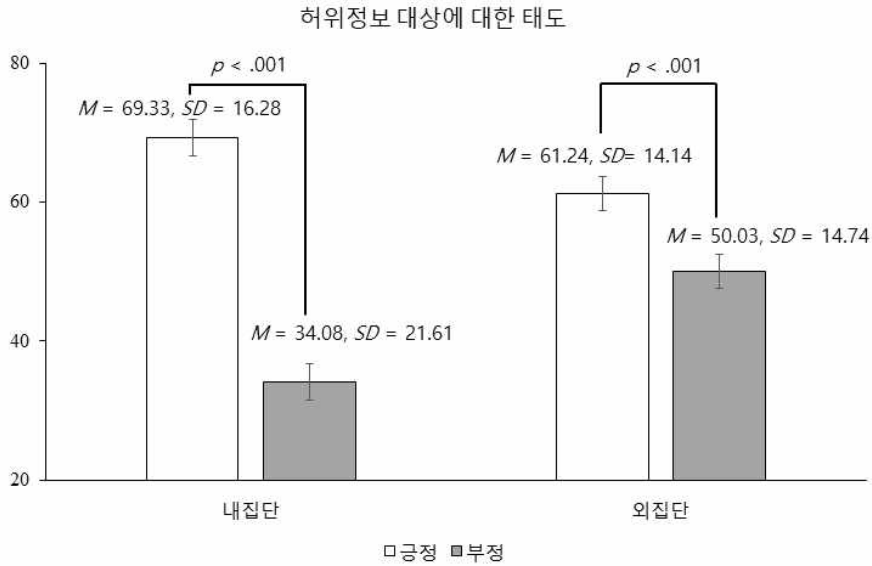
한편, 허위정보 유인가를 기준으로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긍정적 허위정보일 때는 허위정보 대상이 내집단인 경우( $M = 69.33$ ,  $SD = 16.28$ )가 외집단의 경우( $M = 61.24$ ,  $SD = 14.14$ )에 비해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가 더 호의적으로 나타났으며( $p < .001$ ), 부정적 허위정보일 때는 허위정보 대상이 내집단인 경우( $M = 34.08$ ,  $SD = 21.61$ )가 외집단인 경우( $M = 50.03$ ,  $SD = 14.74$ )보다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가 더 비호의적으로 나타났다( $p < .001$ )([그림 12-2] 참조).

허위정보 주제가 사회·문화 분야일 때 역시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이 내집단, 외집단인 경우 모두 긍정적인 허위정보일 때가 부정적인 허위정보일 때보다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으로 나타났지만, 그 차이가 내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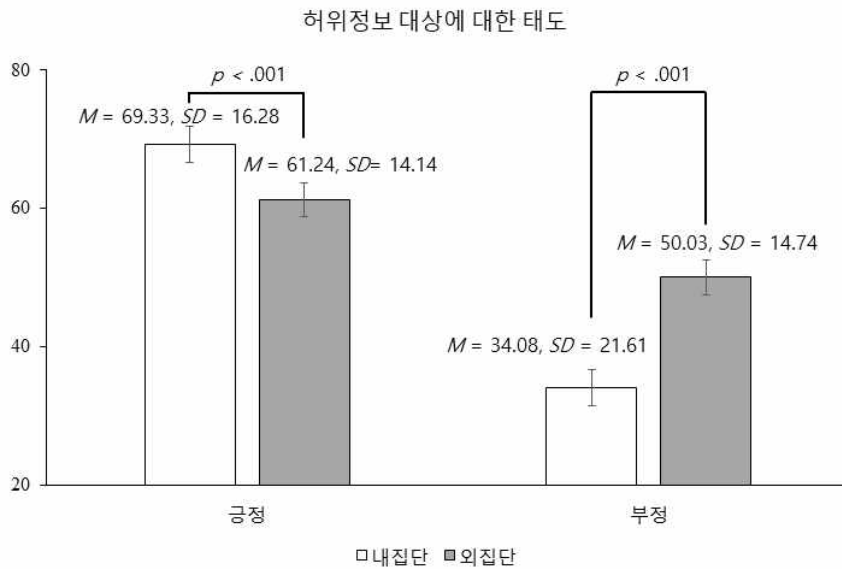
[표 17]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허위정보 유인가 x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허위정보 주제 : 사회·문화)

구분	SS	df	MS	F	p
허위정보 유인가	91424.54	1	91424.53	323.43	< .001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2612.67	1	2612.67	9.24	0.003
*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24474.42	1	24474.42	86.58	< .001
오차	191088.98	676	282.68		
계	304418.65	679			

[그림 12-1]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에 따른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 집단별 평균 비교(1) (허위정보 주제 : 사회·문화)



[그림 12-2]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에 따른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 집단별 평균 비교(2) (허위정보 주제 : 사회·문화)



즉, 허위정보 주제가 국제·정치 분야, 사회·문화 분야일 때 모두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이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이 내집단인 경우에 외집단인 경우보다 긍정적인 허위정보 때의 대상에 대한 태도와 부정적인 허위정보일 때의 대상에 대한 태도 간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허위정보 주제가 사회·문화 분야일 때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편, <연구문제 1-2>에서는 허위정보 유인가가 팩트체크 전후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에 미치는 효과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기 앞서,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에 따라 팩트체크 후 대상에 대한 태도가 유의하게 변화하였는지 먼저 살펴보기 위하여 각 집단에 대해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와 팩트체크 대상에 대한 태도에 대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허위정보를 제시받은 집단( $t[159] = 9.52, p < .001$ ),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허위정보를 제시받은 집단( $t[179] = 6.88, p < .001$ )은 팩트체크 후 대상에 대한 태도가 비호의적으로 변화하였으며, 내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허위정보를 제시받은 집단( $t[159] = -11.16, p < .001$ )과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허위정보를 제시받은 집단( $t[179] = -6.39, p < .001$ )은 팩트체크 후 대상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 변화하였다([표 18] 참조).



[표 18]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에 따른 팩트체크 전후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 대응표본 *t*검정 결과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		팩트체크 대상에 대한 태도		<i>df</i>	<i>t</i>	<i>p</i>
	<i>M</i>	<i>SD</i>	<i>M</i>	<i>SD</i>			
	내집단x긍정	67.26	14.43	53.82			
내집단x부정	36.89	19.11	60.19	19.41	159	-11.16	< .001
외집단x긍정	60.53	11.93	53.53	13.71	179	6.88	< .001
외집단x부정	51.12	11.05	57.79	12.34	179	-6.39	< .001

이를 바탕으로 2(허위정보 유인가: 긍정 vs. 부정) x 2(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내집단 vs 외집단) x 2(허위정보 주제 : 국제·정치 vs. 사회·문화)의 혼합분산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표 19>와 같이 허위정보 주제와 허위정보 유인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F = 4.26, p = .04$ ),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의 상호작용이 허위정보 주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허위정보 주제별로 팩트체크 전후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에 있어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의 상호작용을 각각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표 19] 팩트체크 전후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에 대한 혼합분산분석 결과 (허위정보 유인가 x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x 허위정보 주제)

구분	SS	df	MS	F	p
<b>집단간</b>					
허위정보 유인가	215243.58	1	215243.58	316.13	< .001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8805.60	1	8805.60	12.93	< .001
허위정보 유인가 *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45018.01	1	45018.01	66.12	< .001
오차	460275.73	676	680.88		
<b>집단내</b>					
허위정보 주제	790.49	1	790.49	3.93	.048
허위정보 주제 * 허위정보 유인가	2463.68	1	2463.68	12.24	< .001
허위정보 주제 *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1.49	1	1.49	.01	.93
허위정보 주제 * 허위정보 유인가 *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857.63	1	857.63	4.26	.04
오차	136093.09	676	201.32		

### 1) 허위정보 주제 : 국제·정치 분야

이를 바탕으로 먼저, 허위정보 주제가 국제·정치 분야일 때, <표 20>과 같이 팩트체크 전후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에 있어 허위정보 유인가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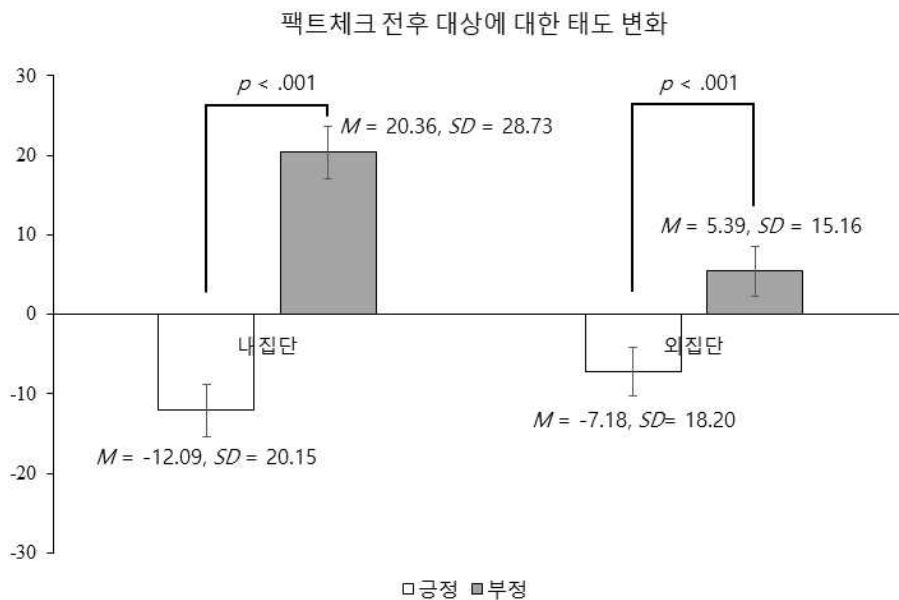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 = 38.16, p < .001$ ).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을 기준으로 상호작용 효과를 먼저 살펴보면, 허위정보 대상이 내집단인 경우에는 부정적 허위정보일 때( $M = 20.36, SD = 28.73$ )는 팩트체크 후 태도가 호의적으로 변화하고 긍정적 허위정보일 때( $M = -12.09, SD = 20.15$ )는 팩트체크 후 태도가 비호의적으로 변화하여 유인가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p < .001$ ). 허위정보 대상이 외집단인 경우에도 부정적 허위정보일 때( $M = 5.39, SD = 15.16$ )는 팩트체크 후 태도가 호의적으로 변화하고 긍정적 허위정보일 때( $M = -7.18, SD = 18.20$ )는 팩트체크 후 태도가 비호의적으로 변화하여 유인가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p < .001$ )([그림 13-1] 참조).

한편, 허위정보 유인가를 기준으로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허위정보일 때 허위정보 대상이 내집단인 경우( $M = -12.09, SD = 20.15$ )와 외집단의 경우( $M = -7.18, SD = 18.20$ ) 모두 팩트체크 후 대상에 대한 태도가 비호의적으로 변화하였지만, 허위정보 대상이 내집단인 경우가 외집단인 경우에 비해 변화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 $p = .03$ ). 부정적인 허위정보일 때는 허위정보 대상이 내집단인 경우( $M = 20.36, SD = 28.73$ )와 외집단의 경우( $M = 5.39, SD = 15.16$ ) 모두 팩트체크 후 대상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으로 변화하였지만, 허위정보 대상이 내집단인 경우가 외집단인 경우에 비해 변화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 $p < .001$ )([그림 13-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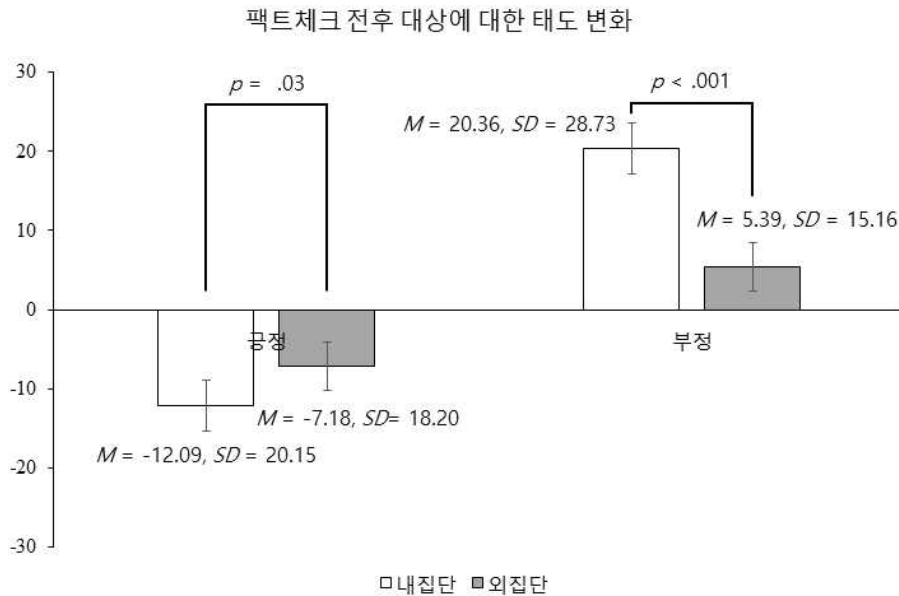
[표 20] 팩트체크 전후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허위정보 유인가 x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허위정보 주제 : 국제·정치)

구분	SS	df	MS	F	p
허위정보 유인가	85825.60	1	85825.60	195.84	< .001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4288.99	1	4288.99	9.79	.002
*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16724.23	1	16724.23	38.16	< .001
오차	296251.2	676	438.24		
계	398973.41	679			

[그림 13-1]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에 따른 팩트체크 전후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 집단별 평균(1) (허위정보 주제 : 국제·정치)



[그림 13-2]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에 따른 팩트체크 전후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 집단별 평균(2) (허위정보 주제 : 국제·정치)



## 2) 허위정보 주제 : 사회·문화 분야

한편, 허위정보 주제가 사회·문화 분야일 때 역시 <표 21>과 같이 팩트체크 전후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에 있어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 = 65.66, p < .001$ ). 이를 바탕으로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을 기준으로 상호작용 효과를 먼저 살펴보면, 허위정보 대상이 내집단인 경우에는 부정적 허위정보일 때( $M = 26.24, SD = 28.68$ )는 팩트체크 후 태도가 호의적으로 변화하고 긍정적 허위정보일 때( $M = -14.78, SD = 20.02$ )는 팩트체크 후 태도가 비호의적으로 변화하여 유인가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p < .001$ ). 허위정보 대상이 외집단인 경우에도 부정적 허위정보일 때( $M = 7.96, SD = 17.48$ )는 팩트체크 후 태도가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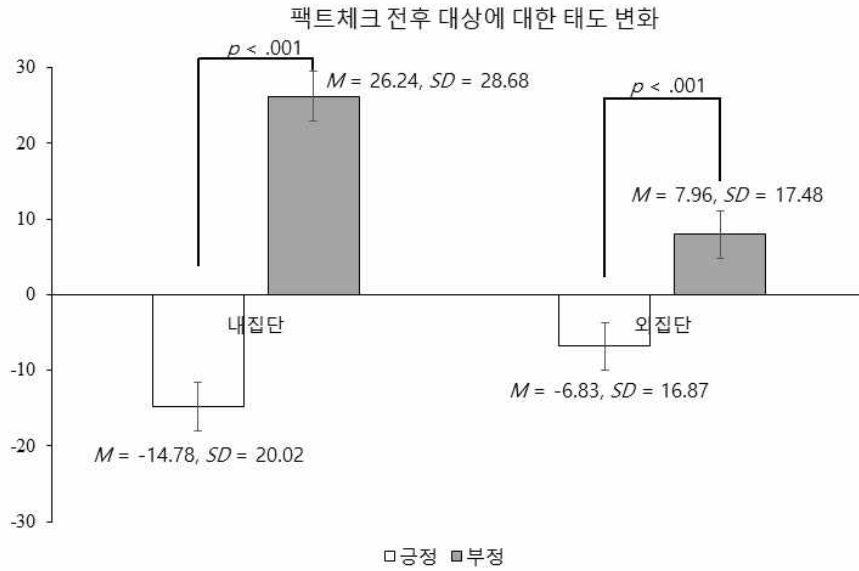
의적으로 변화하고 긍정적 허위정보일 때( $M = -6.83, SD = 16.87$ )는 팩트체크 후 태도가 비호의적으로 변화하여 유인가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p < .001$ )([그림 14-1] 참조).

한편, 허위정보 유인가를 기준으로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허위정보일 때 허위정보 대상이 내집단인 경우( $M = -14.78, SD = 20.02$ )와 외집단의 경우( $M = -6.83, SD = 16.87$ ) 모두 팩트체크 후 대상에 대한 태도가 비호의적으로 변화하였지만, 허위정보 대상이 내집단인 경우가 외집단인 경우에 비해 변화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 $p = .001$ ). 부정적인 허위정보일 때는 허위정보 대상이 내집단인 경우( $M = 26.24, SD = 28.68$ )와 외집단의 경우( $M = 7.96, SD = 17.48$ ) 모두 팩트체크 후 대상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으로 변화하였지만, 허위정보 대상이 내집단인 경우가 외집단인 경우에 비해 변화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 $p < .001$ )([그림 14-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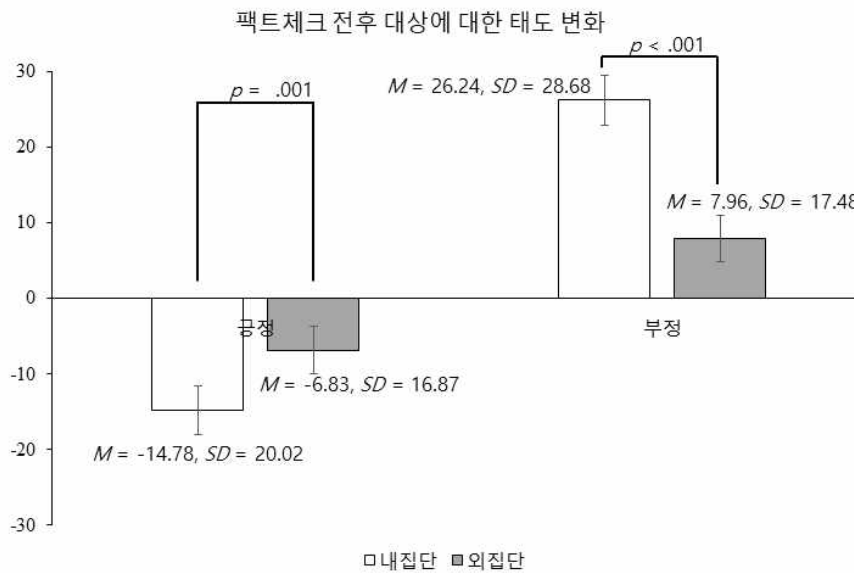
[표 21] 팩트체크 전후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허위정보 유인가 x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허위정보 주제 : 사회·문화)

구분	SS	df	MS	F	p
허위정보 유인가	131881.66	1	131881.66	297.06	< .001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4518.10	1	4518.10	10.18	.002
*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29151.41	1	29151.41	65.66	< .001
오차	300117.62	676	443.96		
계	458907.98	679			

[그림 14-1]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에 따른 팩트체크 전후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 집단별 평균(1) (허위정보 주제 : 사회·문화)



[그림 14-2]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에 따른 팩트체크 전후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 집단별 평균(2) (허위정보 주제 : 사회·문화)



즉, 팩트체크 전후 태도 변화에 있어서 허위정보 주제가 국제·정치, 사회·문화일 때 모두 전반적으로 허위정보 대상이 내집단인 경우가 외집단인 경우에 비해 팩트체크 결과의 방향으로 태도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허위정보 주제가 사회·문화 분야일 때 국제·정치 분야에 비해 허위정보 대상이 내집단인 경우의 태도 변화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 6. <연구문제 2> 검증

<연구문제 2-1>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이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는 내집단 동일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2>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이 팩트체크 전후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는 내집단 동일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1>은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이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연구문제 1-1>)가 내집단 동일시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연구문제 1-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의 상호작용이 허위정보 주제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허위정보 주제별로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의 상호작용이 내집단 동일시에 따라 조절되는지 각각 살펴보았다.



1) 허위정보 주제 : 국제·정치 분야

분석 결과, 허위정보 주제가 국제·정치 분야일 때,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에 있어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내집단 동일시에 의한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6.58$ ,  $SE = 2.61$ ,  $t = 2.52$ ,  $p = .01$ )([표 22] 참조).

[표 22]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에 대한 삼원상호작용 효과 (허위정보 유인가 x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x 내집단 동일시) (허위정보 주제 : 국제·정치)

		<i>b</i>	<i>SE</i>	<i>t</i>
	연령	.08	.05	1.79
통제 변수	성별	-1.73	1.25	-1.38
	교육수준	-.56	1.16	-.48
	소득수준	.06	.27	.24
허위정보 유인가		-25.42***	1.79	-14.18
허위정보 대상 집단 정체성		-5.65**	1.75	-3.22
허위정보 유인가		18.31***	2.47	7.40
* 허위정보 대상 집단 정체성				
내집단 동일시		6.22***	1.41	4.40
허위정보 유인가		-8.54***	1.96	-4.36
* 내집단 동일시				
허위정보 대상 집단 정체성		-3.18	1.92	-1.66
* 내집단 동일시				
허위정보 유인가				
* 허위정보 대상 집단 정체성 * 내집단 동일시		6.58*	2.61	2.52

주. 내집단 동일시는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하여 분석함

\* $p < .05$ , \*\* $p < .01$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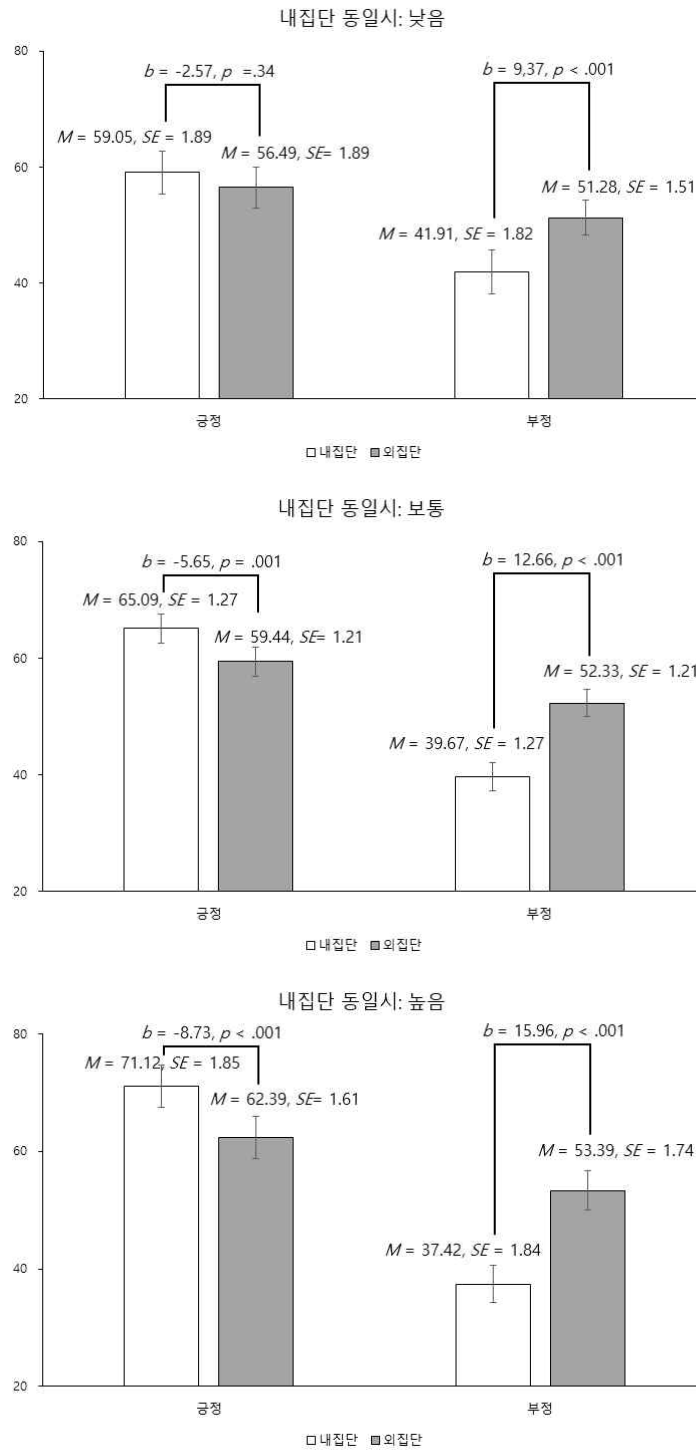
<그림 15>에서 제시된 막대 그래프는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의 예측된 평균 및 95% 신뢰구간을 보여주는데, 내집단 동일시 조절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내집단 동일시가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표준편차’인 경우는 ‘낮음(Low)’으로, ‘평균’은 ‘보통(Moderate)’으로, ‘평균+표준편차’인 경우는 ‘높음(High)’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내집단 동일시가 낮은 집단에서는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허위정보일 때와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허위정보일 때의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내집단  $M = 59.05$ ; 외집단  $M = 56.49$ ,  $b = -2.57$ ,  $p = .34$ ), 내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허위정보일 때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허위정보일 때보다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가 비호의적으로 나타났다(내집단  $M = 41.91$ ; 외집단  $M = 51.28$ ,  $b = 9.37$ ,  $p < .001$ ). 내집단 동일시가 보통인 집단에서는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허위정보일 때가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허위정보일 때보다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가 더욱 호의적으로 나타났으며(내집단  $M = 65.09$ ; 외집단  $M = 59.44$ ,  $b = -5.65$ ,  $p = .001$ ), 내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허위정보일 때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허위정보일 때보다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가 비호의적으로 나타났다(내집단  $M = 39.67$ ; 외집단  $M = 52.33$ ,  $b = 12.66$ ,  $p < .001$ ). 내집단 동일시가 높은 집단에서도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허위정보일 때가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허위정보일 때보다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가 더욱 호의적으로 나타났으며(내집단  $M = 71.12$ ; 외집단  $M = 62.39$ ,  $b = -8.73$ ,  $p < .001$ ), 내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허위정보일 때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허위정보일 때보다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가 비호의적으로 나타났다(내집단  $M = 37.42$ ; 외집단  $M = 53.39$ ,  $b = 15.96$ ,  $p < .001$ ).

위 결과를 토대로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내집단 동일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긍정적인 허위정보일 때 내집단 동일시가 강할수록 허위정보 대상이 내집단인 경우의 대상에 대한 태도와 허위정보 대상이 외집단인 경우

의 대상에 대한 태도 간의 차이가 더욱 커졌다. 부정적인 허위정보일 때는 허위정보 대상이 내집단일 때가 외집단일 때보다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가 더욱 비호의적으로 나타났는데, 내집단 동일시가 강할수록 허위정보 대상이 내집단일 때의 대상에 대한 태도와 허위정보 대상이 외집단일 때의 대상에 대한 태도 간의 차이가 더욱 커졌다. 즉,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에 있어, 뉴스 이용자의 내집단 동일시 수준이 높을수록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강화되었다.

[그림 15] 허위정보 유인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내집단 동일시에 따른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 집단별 평균 비교 (허위정보 주제 : 국제·정치)



## 2) 허위정보 주제 : 사회·문화 분야

한편, 허위정보 주제가 사회·문화 분야일 때,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에 있어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내집단 동일시에 의한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6.47$ ,  $SE = 2.65$ ,  $t = 2.44$ ,  $p = .02$ )([표 23] 참조).

[표 23]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에 대한 삼원상호작용 효과 (허위정보 유인가 x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x 내집단 동일시) (허위정보 주제 : 사회·문화)

	<i>b</i>	<i>SE</i>	<i>t</i>
연령	.12*	.05	2.42
<b>통제</b>			
성별	-1.91	1.27	-1.51
<b>변수</b>			
교육수준	-1.09	1.18	-.92
소득수준	.09	.27	.34
허위정보 유인가	-35.18***	1.82	-19.33
허위정보 대상 집단 정체성	-8.42***	1.78	-4.73
허위정보 유인가 * 허위정보 대상 집단 정체성	24.34***	2.51	9.69
내집단 동일시	7.86***	1.44	5.48
허위정보 유인가 * 내집단 동일시	-10.21***	1.99	-5.14
허위정보 대상 집단 정체성 * 내집단 동일시	-4.16*	1.95	-2.14
허위정보 유인가 * 허위정보 대상 집단 정체성 * 내집단 동일시	6.47*	2.65	2.44

주. 내집단 동일시는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하여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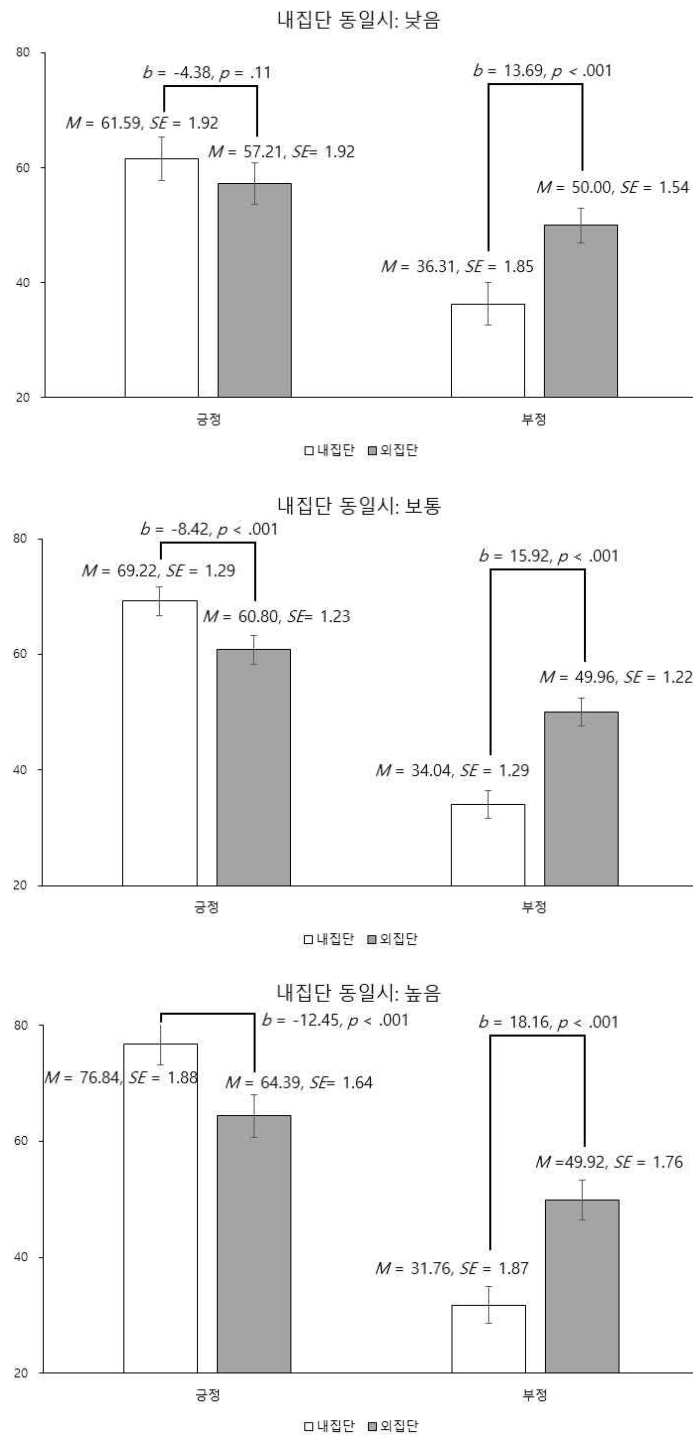
\* $p < .05$ , \*\* $p < .01$ , \*\*\* $p < .001$

내집단 동일시가 낮은 집단에서는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허위정보일 때와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허위정보일 때의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내집단  $M = 61.59$ ; 외집단  $M = 57.21$ ,  $b = -4.38$ ,  $p = .11$ ), 내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허위정보일 때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허위정보일 때보다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가 비호의적으로 나타났다(내집단  $M = 36.31$ ; 외집단  $M = 50.00$ ,  $b = 13.69$ ,  $p < .001$ ). 내집단 동일시가 보통인 집단에서는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허위정보일 때가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허위정보일 때보다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가 더욱 호의적으로 나타났으며(내집단  $M = 69.22$ ; 외집단  $M = 60.80$ ,  $b = -8.42$ ,  $p < .001$ ), 내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허위정보일 때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허위정보일 때보다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가 비호의적으로 나타났다(내집단  $M = 34.04$ ; 외집단  $M = 49.96$ ,  $b = 15.92$ ,  $p < .001$ ). 내집단 동일시가 높은 집단에서도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허위정보일 때가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허위정보일 때보다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가 더욱 호의적으로 나타났으며(내집단  $M = 76.84$ ; 외집단  $M = 64.39$ ,  $b = -12.45$ ,  $p < .001$ ), 내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허위정보일 때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허위정보일 때보다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가 비호의적으로 나타났다(내집단  $M = 31.76$ ; 외집단  $M = 49.92$ ,  $b = 18.16$ ,  $p < .001$ )([그림 16] 참조).

위 결과를 토대로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내집단 동일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긍정적인 허위정보일 때는 내집단 동일시가 강할수록 허위정보 대상이 내집단일 때의 대상에 대한 태도와 허위정보 대상이 외집단일 때의 대상에 대한 태도 간의 차이가 더욱 커졌으며, 부정적인 허위정보일 때도 허위정보 대상이 내집단일 때가 외집단일 때보다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가 더욱 비호의적으로 나타났는데, 내집단 동일시가 강할수록 허위정보 대상이 내집단일 때의 대상에 대한 태도와 허위정보 대상이 외집단일 때의 대상에 대한 태도 간의 차이가 더욱 커졌다. 즉,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에 있어, 뉴스 이용자의 내집단 동일시 수준이 높을수록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강화되었다.

[그림 16] 허위정보 유인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내집단 동일시에 따른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 집단별 평균 비교 (허위정보 주제 : 사회·문화)





이처럼 허위정보 주제가 국제·정치, 사회·문화 분야일 때 모두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에 있어 허위정보 유인가와 집단 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뉴스 이용자의 내집단 동일시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문제 2-2>에서는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이 팩트체크 전후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연구문제 1-2>)가 내집단 동일시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이때, <연구문제 1-2> 분석 결과에서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의 상호작용이 허위정보 주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허위정보 주제별로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의 상호작용이 내집단 동일시에 따라 조절되는지 각각 살펴보았다.

#### 1) 허위정보 주제 : 국제·정치 분야

분석 결과, 허위정보 주제가 국제·정치 분야일 때, 팩트체크 전후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에 있어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내집단 동일시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4] 참조).

[표 24] 팩트체크 전후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에 대한 삼원상호작용 효과 (허위정보 유인가 x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x 내집단 동일시) (허위정보 주제 : 국제·정치)

		<i>b</i>	<i>SE</i>	<i>t</i>
	연령	.09	.06	1.46
통제 변수	성별	.91	1.62	.56
	교육수준	.90	1.51	.60
	소득수준	.21	.35	.59
허위정보 유인가		32.37***	2.33	13.90
허위정보 대상 집단 정체성		5.06*	2.28	2.22
허위정보 유인가 * 허위정보 대상 집단 정체성		-20.02***	3.21	-6.23
내집단 동일시		-4.41*	1.84	-2.40
허위정보 유인가 * 내집단 동일시		8.95***	2.54	3.52
허위정보 대상 집단 정체성 * 내집단 동일시		2.34	2.49	0.94
허위정보 유인가 * 허위정보 대상 집단 정체성 * 내집단 동일시		-6.38	3.40	-1.88

주. 내집단 동일시는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하여 분석함

\* $p < .05$ , \*\* $p < .01$ , \*\*\* $p < .001$

## 2) 허위정보 주제 : 사회·문화 분야

한편, 허위정보 주제가 사회·문화 분야일 때는 팩트체크 전후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에 있어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내집단 동일시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7.20$ ,  $SE = 3.37$ ,  $t = -2.13$ ,  $p = .03$ )([표 25] 참조).

[표 25] 팩트체크 전후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에 대한 삼원상호작용 효과 (허위정보 유인가 x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x 내집단 동일시) (허위정보 주제 : 사회·문화)

		<i>b</i>	<i>SE</i>	<i>t</i>
	연령	.08	.06	1.28
<b>통제 변수</b>	성별	2.20	1.61	1.37
	교육수준	2.05	1.50	1.37
	소득수준	.39	.34	1.13
	허위정보 유인가	40.90***	2.31	17.69
	허위정보 대상 집단 정체성	8.01***	2.26	3.54
	허위정보 유인가 * 허위정보 대상 집단 정체성	-25.95***	3.19	-8.13
	내집단 동일시	-6.01**	1.82	-3.30
	허위정보 유인가 * 내집단 동일시	12.18***	2.52	4.83
	허위정보 대상 집단 정체성 * 내집단 동일시	3.82	2.47	1.54
	허위정보 유인가 * 허위정보 대상 집단 정체성 * 내집단 동일시	-7.20*	3.37	-2.13

주. 내집단 동일시는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하여 분석함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17>에서 제시된 막대 그래프는 허위정보 신뢰도의 예측된 평균 및 95% 신뢰구간을 보여주는데, 내집단 동일시 조절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내집단 동일시가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표준편차’인 경우는 ‘낮음(Low)’으로, ‘평균’은 ‘보통(Moderate)’으로, ‘평균+표준편차’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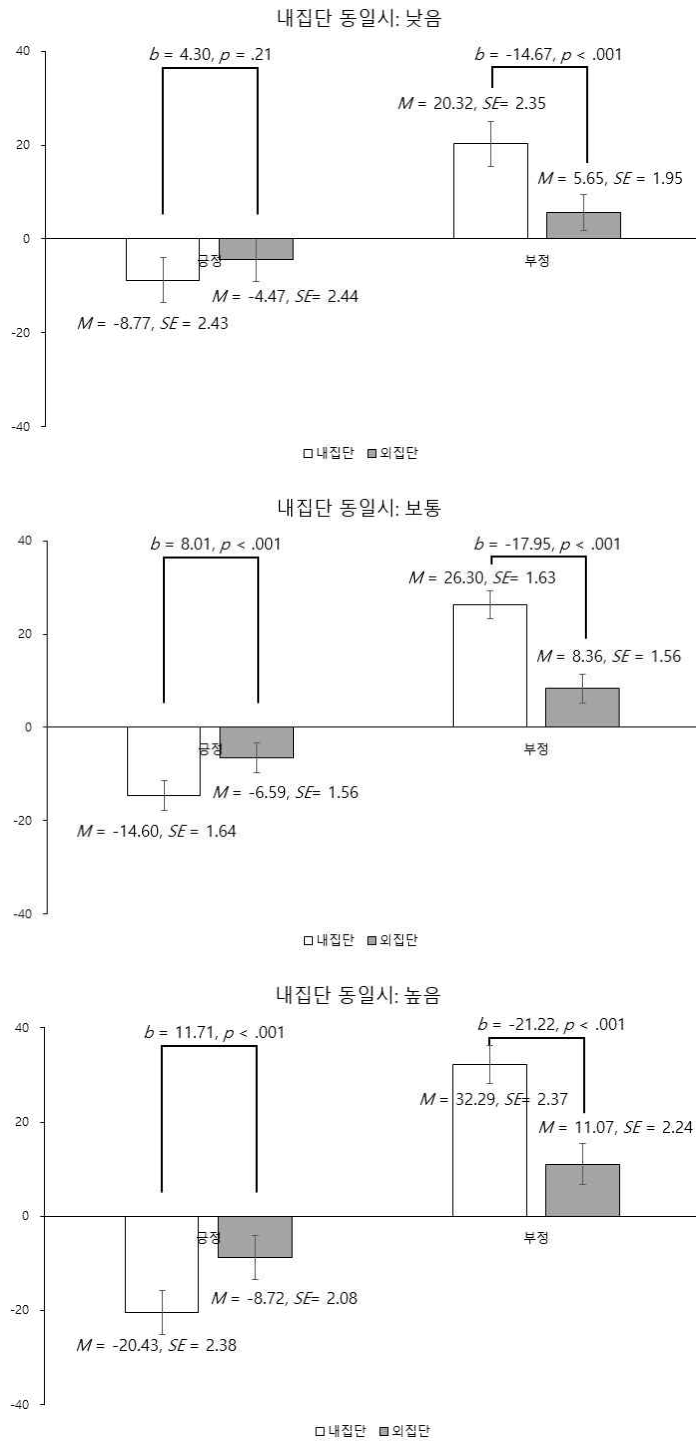
경우는 ‘높음(High)’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내집단 동일시가 낮은 집단에서는 긍정적인 허위정보의 경우에는 허위 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에 따른 태도 변화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내집단  $M = -8.77$ ; 외집단  $M = -4.47$ ,  $b = 4.30$ ,  $p = .21$ ), 부정적인 허위정보의 경우에는 허위정보 대상이 내집단일 때가 외집단일 때보다 팩트체크 결과의 방향으로 태도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났다(내집단  $M = 20.32$ ; 외집단  $M = 5.65$ ,  $b = -14.67$ ,  $p < .001$ ). 내집단 동일시가 보통인 집단에서는 긍정적인 허위정보의 경우에 허위정보 대상이 내집단일 때가 외집단일 때보다 팩트체크 결과의 방향으로 태도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내집단  $M = -14.60$ ; 외집단  $M = -6.59$ ,  $b = 8.01$ ,  $p < .001$ ), 부정적인 허위정보의 경우에는 허위정보 대상이 내집단일 때가 외집단일 때보다 팩트체크 결과의 방향으로 태도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났다(내집단  $M = 26.30$ ; 외집단  $M = 8.36$ ,  $b = -17.95$ ,  $p < .001$ ). 내집단 동일시가 높은 집단에서는 긍정적인 허위정보의 경우에 허위정보 대상이 내집단일 때가 외집단일 때보다 팩트체크 결과의 방향으로 태도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내집단  $M = -20.43$ ; 외집단  $M = -8.72$ ,  $b = 11.71$ ,  $p < .001$ ), 부정적인 허위정보의 경우에는 허위정보 대상이 내집단일 때가 외집단일 때보다 팩트체크 결과의 방향으로 태도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났다(내집단  $M = 32.29$ ; 외집단  $M = 11.07$ ,  $b = -21.22$ ,  $p < .001$ )([그림 17] 참조).

위 결과를 토대로 팩트체크 전후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에 있어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내집단 동일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긍정적인 허위정보일 때는 전반적으로 허위정보 대상이 내집단일 때가 외집단일 때보다 팩트체크 결과의 방향으로 태도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났는데, 내집단 동일시가 강할수록 허위정보 대상이 내집단일 때의 태도 변화와 허위정보 대상이 외집단일 때의 태도 변화의 차이가 더욱 커졌다. 부정적인 허위정보일 때도 허위정보 대상이 내집단일 때가 외집단일 때보다 팩트체크 결과의 방

향으로 태도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났는데, 내집단 동일시가 강할수록 허위정보 대상이 내집단일 때의 태도 변화와 허위정보 대상이 외집단일 때의 태도 변화의 차이가 더욱 커졌다. 즉, 허위정보 주제가 사회·문화 주제인 경우에는 뉴스 이용자의 내집단 동일시 수준이 높을수록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강화되었다.

[그림 17] 허위정보 유인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내집단 동일시에 따른 팩트체크 전후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 집단별 평균 비교 (허위정보 주제 : 사회·문화)



## 제 6 장 종합 논의

### 제 1 절 연구 결과 및 논의

#### 1. <연구가설>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에 따라 허위정보 및 팩트체크 수용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다루고자 하였으며, 이를 메시지 신뢰도과 대상에 대한 태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나아가 내집단 동일시가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조절하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가설>에서는 허위정보 및 팩트체크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허위정보 유인가가 허위정보의 신뢰도에 미치는 효과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한 결과, 허위정보 유인가에 따른 효과는 허위정보 대상이 내집단일 때 외집단일 때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먼저 허위정보 주제가 국제·정치 분야인 경우에는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이 내집단인 경우 긍정적인 허위정보를 부정적인 허위정보보다 더 신뢰하였으나 외집단인 경우에는 긍정적 허위정보와 부정적 허위정보의 신뢰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허위정보 주제가 사회·문화 분야인 경우에는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이 내집단, 외집단인 경우 모두 긍정적인 허위정보를 부정적인 허위정보보다 더 신뢰하였다(<연구가설 1-1> 지지, <연구가설 1-2> 기각). 이처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허위정보가 부정적인 허위정보보다 신뢰도가 높게 나타난 연구 결과는 이슈에 대한 관여도와 자극물로 제시된 기사의 타당성(plausibility)으로 설명될 수 있다. 메시지의 프레이밍과 이

슈 관여도의 연관성에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프레임된 메시지는 세부적인 메시지 처리 과정이 요구되지 않을 때(저관여) 더 설득적인 반면, 부정적으로 프레임된 메시지는 세부적인 메시지 처리가 강조되는 상황에서(고관여) 더 설득적일 수 있다(Maheswaran & Meyers-Levy, 1990). 본 연구에서는 해당 자극물 기사 내용에 대한 이슈 관여도와 관련하여 이슈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흥미도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자극물이 다루는 내용이 응답자에게 중요한지 묻는 중요성 인식에 대해서(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 = 매우 동의한다) 7점 척도로, 자극물이 다루는 내용이 응답자에게 흥미로운지 묻는 흥미도와 관련하여(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 = 매우 동의한다) 7점 척도로 각각 측정하였다(Cronbach's alpha : .93). 측정 결과, 전체 허위정보 자극물에 대한 이슈 관여도는 4.26점으로 ( $M = 4.26, SD = 1.32$ ) 이는 제시된 자극물과 관련하여 중간 정도의 이슈 관여도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며, 고관여 상황이 아님에 따라 긍정적인 메시지의 효과가 커져 신뢰도가 더 높게 나타났었을 수 있다. 또한, 기사의 타당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사의 내용은 특정 기구에서 '선출', 부정적인 기사의 내용은 '제외', '자격 박탈' 등의 이슈에 한정되어 있어 기사의 내용이 가지는 타당성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즉, 허위정보에서 다루는 내용이 뉴스로서 가치를 지니는지, 타당한 기사인지에 대한 판단이 개입되었을 수 있다.

한편, 허위정보 유인가를 기준으로 보면, 긍정적인 허위정보의 경우 허위정보 대상이 외집단일 때와 내집단일 때의 신뢰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부정적인 허위정보의 경우 대상이 외집단일 때 내집단일 때보다 더 신뢰하였다. 즉, 부정적인 허위정보의 경우, 내집단 선호의 경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를 선호하고 부정적인 기사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기존 연구들(Appiah et al., 2013; Knobloch-Westerwick & Hastall, 2010)과 상통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긍정적인 허위정보의 경우 허위정보 대상이 외집단일 때와 내집단일 때의 신뢰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



데,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극물에 대한 이슈 관여도가 반영되었을 수 있다. 응답자들의 이슈 관여도를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내집단에 대한 허위정보를 제시받은 집단( $M = 4.43$ ,  $SD = 1.26$ )이 외집단에 대한 허위정보를 제시받은 집단( $M = 4.11$ ,  $SD = 1.37$ )보다 이슈 관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t = 3.25$ ,  $p = .001$ ). 이는 허위정보 대상이 외집단인 경우가 허위정보 대상이 내집단인 경우보다 저관여 상황이라 볼 수 있으며, 이에 긍정적인 메시지가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 허위정보를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 허위정보만큼 신뢰했을 수 있다. 더불어, 주로 기존 연구들에서는 정치 성향이나 특정 이슈에 대해 분명하게 대립적인 집단을 외집단으로 설정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호감도 순위에서 중간 순위에 위치한 국가들로 선정하였다는 점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호감도 순위에서 극단적으로 적대적이거나 호의적인 국가를 외집단으로 설정하였을 경우 허위정보의 신뢰도에 미치는 효과는 달라졌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아가 허위정보 주제가 사회·문화인 경우에 허위정보의 신뢰도에 있어 허위정보 대상이 내집단인지 외집단인지 집단 정체성에 따른 효과는 뉴스 이용자가 얼마나 스스로를 내집단과 동일시하는가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특히, 허위정보 유인가와 집단 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뉴스 이용자의 내집단 동일시 수준이 높을수록 더 크게 나타났다(<연구가설 3> 지지).

한편, 팩트체크의 신뢰도에 있어서는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간 상호작용 효과, 그리고 내집단 동일시의 조절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가설 2-1>, <연구가설 2-2>, <연구가설 4> 기각). 즉,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이라는 허위정보의 특성과 개인의 내집단 동일시의 상호작용이 팩트체크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의미한다.

## 2. <연구문제> 요약 및 논의

다음으로 대상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서는 <연구문제>를 통해 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첫째,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에 있어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연구문제 1-1>).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이 내집단, 외집단인 경우 모두 긍정적인 허위정보일 때가 부정적인 허위정보일 때보다 허위정보 대상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으로 나타났지만, 그 차이가 내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긍정적 허위정보일 때는 허위정보 대상이 내집단인 경우가 외집단의 경우에 비해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내집단 선호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부정적 허위정보일 때 허위정보 대상이 내집단인 경우가 외집단일 때에 비해 더 비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앞서 <연구가설 1-1>에서 내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허위정보를 외집단의 부정적인 허위정보보다 덜 신뢰하였다는 결과를 고려한다면, 허위정보의 신뢰도와 대상에 대한 태도 사이의 간극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내집단의 부정적인 메시지에 노출될 경우, 해당 메시지를 신뢰하지 않지만 대상에 대한 태도는 대상이 외집단일 때보다 더욱 비호의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연구가설에서 살펴보았듯이 내집단에 대한 이슈 관여도가 높게 나타난 점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오유선 등(2023)의 국가동일시 정도와 콘텐츠 성격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감정과 관련된 분석 결과에서 특히 ‘국뽕’ 콘텐츠인지 ‘국까’ 콘텐츠인지 콘텐츠 유형에 따라 즉각적인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람들은 자기 관련성이 높은 콘텐츠에 더 강한 정서를 느끼고, 자기 관련성이 높은 개인들과 더 의미있는 소통을 경험하기 때문에(나은영, 2010), 이러한 내집단에 대한 높은 관련성 및 관여도가 위 결과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팩트체크 전후 태도 변화에 있어서는 허위정보 대상이 내집단인 경우가 외집단인 경우에 비해 팩트체크 결과의 방향으로 태도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났다

(〈연구문제 1-2〉). 긍정적인 허위정보일 때 허위정보 대상이 내집단인 경우와 외집단의 경우 모두 팩트체크 후 대상에 대한 태도가 비호의적으로 변화하였지만, 허위정보 대상이 내집단인 경우가 외집단인 경우보다 태도 변화량이 크게 나타났다. 부정적인 허위정보일 때는 허위정보 대상이 내집단인 경우와 외집단의 경우 모두 팩트체크 후 대상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으로 변화하였지만, 허위정보 대상이 내집단인 경우가 외집단인 경우에 비해 태도 변화량이 크게 나타났다. 허위정보 대상이 내집단일 때 외집단일 때보다 태도 변화량이 크게 나타난 결과는 〈연구문제 1-1〉의 결과와 같이 내집단에 대한 높은 자기 관련성 및 관여도의 효과가 반영되었을 수 있다.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허위정보를 제시받은 경우에도 팩트체크 후 대상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으로 변화하였는데, 이는 앞서 〈연구가설 1〉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외집단으로 제시된 국가가 중립적인 국가라는 점이 태도 변화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연구문제 1-1〉, 〈연구문제 1-2〉의 결과는 허위정보 주제가 사회·문화 분야일 때 국제·정치 분야에 비해 그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둘째, 〈연구문제 1〉에서 살펴본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내집단 동일시에 따라 조절되는지 살펴본 결과,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에 따른 허위정보 유인가의 효과 차이가 내집단 동일시가 클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연구문제 2-1〉). 이러한 조절효과는 허위정보 주제가 사회·문화 주제인 경우, 팩트체크 전후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량을 비교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발견되었다(〈연구문제 2-2〉). 이는 〈연구문제 1-2〉의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집단 동일시가 클수록 내집단에 대한 자기 관련성 및 관여도가 더욱 높아짐에 따른 결과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연구문제〉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들은 허위정보에 대한 믿음이 교정될지라도 주어진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이나 태도가 지속될 것이며 교정이 허위정보의 태도적 효과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기존 연

구들(Nyhan et al., 2020; Swire-Thompson et al., 2020; Thorson, 2016)과는 상충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즉, 허위정보에 대한 교정을 통해 대상에 대한 태도도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허위정보 주제를 포함한 상호작용 분석 결과, <연구가설 1-1>, <연구가설 1-2>, <연구문제 1-1>, <연구문제 1-2>, <연구문제 2-1>의 결과에서는 허위정보 주제가 국제·정치, 사회·문화인 경우 모두 전반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연구가설 3>, <연구문제 2-2>에서는 허위정보 주제가 사회·문화 분야일 때에만 변인들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외집단 대상 국가들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로 외집단으로 제시된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가 문화적으로 풍성한 국가임에 따라 자극물의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을 수 있다. 또한 허위정보 주제가 국제·정치 분야인 경우가 사회·문화 분야보다 국가와 관련되어 더욱 민감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험 참여자들의 메시지 수용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허위정보 주제에 따라 연구 결과의 차이가 나타났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주요 변인으로서 살펴본 허위정보 유인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내집단 동일시뿐만 아니라 제시되는 허위정보의 주제 및 내용에 따라서도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 2 절 연구 함의

기존 팩트체크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정치적인 부정확성을 바로잡는 팩트체크의 가능한 교정력에 초점을 맞추거나 사회 현상으로서의 팩트체킹에 초점을 맞추는데 초점을 맞춰왔다(Nieminen & Rapeli, 2019).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팩트체크를 해야하는 허위정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허위정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팩트체크에 대한 수용 역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에 주

목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크게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허위정보와 팩트체크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메시지 신뢰라는 인지적 측면과 대상에 대한 태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가설>에서는 허위정보 및 팩트체크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문제>에서는 대상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크게 다음과 같은 연구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기존 연구들이 주로 부정적인 허위정보를 대상으로 한 데 비해 허위정보의 유인가, 즉 긍정적인 허위정보와 부정적인 허위정보를 비교함으로써 허위정보 및 팩트체크의 수용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허위정보 및 팩트체크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모두 동일한 효과를 보이는 것이 아닌 허위정보의 유인가에 따른 정보 수용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허위정보의 유인가에 따른 정보 수용의 차이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허위정보 대상이 누구 또는 무엇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허위정보 유인가에 따른 효과는 허위정보 대상이 내집단일 때, 외집단일 때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부정적인 허위정보의 경우 대상이 외집단일 때 내집단일 때보다 허위정보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집단 선호 경향은 대상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긍정적 허위정보일 때는 허위정보 대상이 내집단인 경우가 외집단의 경우에 비해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부정적 허위정보일 때는 내집단일 때 외집단에 대해서보다 더 비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팩트체크 전후 태도 변화에 있어서는 허위정보 대상이 내집단인 경우가 외집단인 경우에 비해 팩트체크 결과의 방향으로 태도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처럼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에 따른 수용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허위정보에 대한 논의를 단순히 ‘허위정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닌 허위정보의 속성에 대한 세부적인 구분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단순히 내집단과 외집단이라는 집단 정체성을 구분하는 것에 그

치지 않고, 내집단 동일시 정도가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 해당 효과가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비록 허위정보의 신뢰도, 팩트체크 전후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에 있어서는 허위정보 주제가 사회·문화 주제인 경우에만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지만, 내집단 동일시가 클수록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더욱 두드러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집단 정체성에 대한 논의에 있어 개인 차원의 집단 동일시 수준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팩트체크를 통하여 대상에 대한 태도가 변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긍정적인 허위정보를 제시받은 집단은 허위정보가 거짓이라는 팩트체크를 읽은 후 태도가 비호의적으로 변화하였고, 부정적인 허위정보를 제시받은 집단은 팩트체크 후 태도가 호의적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이러한 태도 변화는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내집단 동일시에 따라서 변화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는 기존에 팩트체크를 통해 허위정보의 태도적 효과는 제거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들을 반박할 수 있는 결과로서, 팩트체크의 효과가 대상에 대한 태도에도 유의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는 허위정보를 통해 대상에 대해 잘못 형성된 인상 또는 태도들을 교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팩트체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넷째, 팩트체크의 신뢰도에는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 간 상호작용, 내집단 동일시의 조절효과 모두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팩트체크 결과 자체를 신뢰하는 과정에는 교정하는 대상인 허위정보가 가지는 속성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향후 팩트체크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정보의 다른 속성 또는 팩트체크 자체의 속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탐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 번째, 허위정보 및 팩트체크 관련 논의들에서 나타난 ‘확증편향’의 경향성을 집단 정체성의 관점에서 재확인하였다. 허위정보에 대한 신뢰도에 있어 내집단 선호 및 외집단 차별의 경향성이 나타남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특히 최근 보수와 진보, 남성과 여성 등 집단 정체성에 근거한 집단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입증함으로써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허위정보를 다르게 수용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는 향후 팩트체크 저널리즘에 있어 진영화된 정체성 집단들의 인식 및 태도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제 3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전반적인 연구 결과에 있어 실험 상황의 특이성과 ‘팩트체크’라는 일종의 휴리스틱이 작용했을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실험이라는 특정 상황 속에서 팩트체크 조작물을 제시받은 응답자들이 조작물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감소하게 된다. 특히, 팩트체크는 ‘[팩트체크]’라는 제목과 함께 팩트체크 판정결과에 대한 배지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앞선 허위정보의 일반적인 기사와 다르게 ‘팩트체크’라는 자격을 부여했을 수 있다. 실제 허위정보 기사의 유인가와 대상의 집단 정체성과 무관하게 전체 허위정보 기사와 팩트체크 기사의 신뢰도의 평균을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살펴보면, 허위정보 기사( $M = 4.25$ )보다 팩트체크 기사( $M = 4.73$ )가 평균적으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t[679] = -8.50, p < .001$ ). 더불어, 특히 본 연구에서는 팩트체크 판정결과를 이미지(배지)와 함께 제시하였는데, 일반적인 텍스트만 있는 경우에 비해 이미지 상의 판정 척도의 효과성이 기존 연구들에서 이미 검증된 바 있다(Amazeen, Thorson, Muddiman, & Graves, 2018; Nyhan & Reifler, 2019). 특히, 이러한 판정 척도의 효과성은 비정치적인 허위정보를 교정하는데 사용될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ELM 이론의 연장선상에서 판정 아이콘은 자극물에 대한 관여도가 낮을 경우 정보를 처리하는 참여자들의 능력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다

(Amazeen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명백하게 양분되거나 논쟁적인 내용이 아닌 자극물을 제시한 만큼, 팩트체크 판정결과 이미지도 팩트체크 휴리스틱에 함께 작용했을 수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 해석 시 팩트체크의 휴리스틱 작동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물론, 기존의 팩트체크 연구에서도 팩트체크 휴리스틱이 모두 반영되어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주로 논쟁적이고 정치적인 자극물을 제시함으로써 응답자들의 반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Nyhan & Reifler, 2010; Nyhan et al., 2020; Swire-Thompson et al., 2020; Thorson, 2016) 팩트체크 휴리스틱이 작동하지 않았을 수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자극물 조작 및 구성이 연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허위정보 대상으로 외집단을 설정하는 데에 있어, 특정 국가에 대한 선유 태도를 통제하기 위하여 호감도 순위에서 중간 순위에 위치한 국가들로 한정하여 조작물에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종속변수인 인식 및 태도에 끼치는 효과 크기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중립적인 국가를 선택함으로써 응답자들의 관여가 낮게 나타났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연구 결과가 나타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중간 순위에 위치한 국가들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 호감도가 높거나 낮은 국가를 포함시켜 이들 간 효과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새로운 연구 주제로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로 허위정보 기사의 주제에 따라 효과성이 달라졌을 수 있다. 앞서 연구 결과 및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허위정보 자극물의 국제·정치, 사회·문화 주제가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국제·정치, 사회·문화라는 주제 외에도 경제, IT/과학, 스포츠 등의 주제에 따라서도 허위정보 및 팩트체크 수용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큰 범주에서의 주제의 측면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허위정보 유인가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허위정보 기사의 긍정 유인가는 ‘국제안보연합 출범... 아시아 대표에 선출’, ‘차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으로 선출’ 등과 같이 특정 국제기구의 대표나



의장국으로 ‘선출’되었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 유인가 역시 긍정 유인가와 유사한 내용 구성을 위해 ‘유라시아 대륙 연결하는 현대 판 실크로드에서 제외’, ‘세계문화유산 자격 박탈’과 같이 ‘제외’, ‘박탈’ 등의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다. 물론 조작물 검증에서 조작물이 긍정과 부정 유인가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나타나긴 하였지만, 이러한 ‘선정’, ‘제외’ 등의 내용에서 오는 효과 크기가 한정적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기존 다른 팩트체크 연구들에서도 실험 조작물로서 활용한 기사들의 이슈로 인한 한계점을 지적한 바 있다. 김민경(2020) 역시 가짜뉴스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효과를 살펴보는 데 있어 오직 코로나19라는 보건 관련 이슈만을 선택하였는데, 이에 대해 연구의 한계점으로 정치나 사회 같은 다른 분야의 이슈들에서 연구의 결과들이 그대로 재현될 것이라 보장할 수 없다고 밝히며, 후속 연구를 통해 전혀 다른 맥락에서도 반복적으로 충분히 다시 검증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허위정보 기사의 내용 구성에 있어 보다 주제를 다양화하고 연구 사전에 내용에서 오는 효과 차이를 확인하여 이를 고려한 조작물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당 기사 주제의 다양성과 더불어 과연 해당 기사가 기사화되어야 마땅한 기사인지, 기사의 타당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즉, 자극물로서 제시된 기사가 실질적으로 기사화될만한 내용인지에 따라 응답자들의 반응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네 번째로, 팩트체크 자극물에서는 앞서 제시한 허위정보를 부정하며 ‘전혀 사실이 아님’이라는 판정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팩트체크의 수용에 있어 교정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므로 허위정보를 부정하는 자극물을 제시하였지만,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에서 운영하는 ‘SNUFactCheck’에 나타난 바와 같이 팩트체크 판정 결과는 ‘전혀 사실 아님’, ‘대체로 사실 아님’, ‘절반의 사실’, ‘대체로 사실’, ‘사실’, ‘판단 유보’ 등 다양한 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판정결과에 따라 뉴스 이용자의 팩트체크에 대한 인식 및 대상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선호와 백영민(2018)은 19대 대선 기간에 특정 후보

자가 다른 후보자에 대해 제기한 의혹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가 팩트체크 뉴스 보도를 접한 후 어떻게 변하였는지 팩트체크 뉴스 판정결과와 지지 후보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참여자는 팩트체크 뉴스가 제기된 의혹을 ‘사실’이라고 판정한 경우 제기된 의혹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거짓’이라고 판정한 경우 제기된 의혹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실반 거짓반’으로 판정한 경우 제기된 의혹을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팩트체크 판정결과에 따른 효과를 함께 고려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이라는 두 요인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인식 및 태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뉴스 기사 양식, 글자 수, 표현 방식 등을 통제하였으며 뉴스 정보원이나 저자를 의도적으로 생략하였다. 그러나, 허위정보 및 팩트체크에 대한 수용에 기사가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측면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향후에는 앞서 통제하였던 변수들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 실제 기사의 휴리스틱으로 작용하는 댓글, 좋아요, 공유하기 등의 타인의 개입 및 관여 측면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여섯 번째로, 자극물 제시 순서에 있어 국제·정치 주제와 사회·문화 주제 순으로 자극물 순서를 고정하여 제시하였는데, 자극물에 대한 순서 효과가 발생했을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자극물 주제의 순서 효과를 고려하여 제시 순서를 균등하게 배치함으로써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권위있는 기관에서 수행하는 실험이라는 점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실험에서는 참여자들에게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서 수행’ 한다는 안내 문구가 함께 제시되었다. 스탠리 밀그램(Stanley Milgram)의 권위에 대한 복종 실험에서도 나타나듯이,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주체의 권위에 대해 일반 참여자들이 실험실 상황에서 이를 의심하거나 거부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이는 참여자들의 응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팩트체크 정보원

의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뉴스 보도 언론사의 정보를 생략하였기 때문에, 응답자들로 하여금 연구 수행 기관이 메시지의 정보원으로서 간주되었을 수 있다. 메시지의 정보원에 대한 신뢰도나 공신력이 메시지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수행 기관의 권위에서 오는 효과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으로 실험 주관 기관과 메시지의 정보원 간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설계에 있어 허위정보 및 팩트체크 제시 후 바로 메시지의 신뢰도 및 대상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따라서 팩트체크의 장기적 효과(예 : 일주일 후, 한 달 후 등)를 측정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효과를 함께 살펴보았던 기존 연구들과 같이(Nyhan et al., 2020; Thorson, 2016)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본다면 더욱 심층적인 시사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Zhang et al., 2021).

후속 연구에서는 이상의 한계점을 보완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변인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집단 동일시를 자극물 노출 전 사전 정보로서 측정한 뒤, 허위정보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조절하는 조절변수로서 활용하였지만, 사회 정체성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집단에 대한 만족도, 집단의 평판 등이 구성원의 동일시 수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Bhattacharya, Rao, & Glynn, 1995).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에 노출되면 내집단 동일시가 더욱 높아지고, 부정적인 메시지에 노출되면 내집단 동일시가 낮아질 수 있다. 내집단 동일시가 고정된 변인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토대로 향후 연구에서는 내집단 동일시를 종속변수로서 활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연구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허위정보 및 팩트체크 수용에 있어 허위정보의 주제, 메시지에 대한 관여도 등 역시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연

구에서는 이를 사전에 함께 고려하여 연구 설계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상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허위정보 메시지의 속성, 특히 허위정보의 유인가와 허위정보 대상의 집단 정체성에 따라 허위정보 및 팩트체크 수용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팩트체크 저널리즘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김건희 (2020, 12, 6). 타국·타문화 혐오 유발하는 유튜브 ‘국뽕’ 바람.  
<신동아>. URL :  
<https://shindonga.donga.com/3/all/13/2259846/1>
- 김민경 (2020). 코로나19 가짜 뉴스(fake news)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팩트 체크 저널리즘의 효과: 팩트 체크 뉴스 유형과 댓글 유형을  
중심으로.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19권 2호, 1 - 60.
- 김선호 (2018). 거짓 정보, 규제만이 답은 아니다. 신문과 방송, 569호,  
90-93.
- 김선호·백영민 (2018). 19대 대선 기간 후보자 간 의혹제기에 대한  
팩트체크 뉴스의 설득효과. 언론정보연구, 55권 1호, 161-194.
- 김소영·금희조 (2019). 과학 이슈의 정치 프레임이 메시지 평가, 정서적  
태도, 정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 : 접종과 정서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3권 6호, 65-95.
- 김영욱·김영지·김수현 (2018).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 정보 추구 및 처리  
연구 : 정보원 신뢰도, 행동에 대한 태도, 인지된 정보 수집  
능력의 조절효과 중심. 한국언론학보, 62권 5호, 72 - 106.
- 김은정·유홍식 (2020). 이념 성향·강도, 적대적 매체 지각과 미디어  
리터러시가 가짜뉴스 노출과 수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1권 1호, 93-126.
- 김효숙 (2010). 위기 상황에서 부정적 보도의 강도에 따라 평판의  
면역효과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부정적 보도의 강도와 기업  
평판이 공중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4권 1호, 275 - 292.
- 나은영 (2010). <미디어 심리학>. 서울: 한나래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2022). 특집(2) 설문조사: 2021 한국인의 아시아 인식 설문조사 결과 분석. URL : <https://snuac.snu.ac.kr/?p=34763>
- 안선영·박남기 (2017). TV 드라마의 사회적 시청 행위가 프로그램 시청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31권 6호, 81-117.
- 염정운·정세훈 (2018).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과 팩트체크 효과 연구. 한국언론학보, 62권 2호, 41-80.
- 오유선·주남·김정현 (2023). 국가동일시 정도와 콘텐츠 성격이 국가자부심, 국가애착, 감정에 미치는 영향 : ‘국뽕’과 ‘국까’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7권 3호, 91-140.
- 육은희 (2020). 오보 속 사건의 윤리성과 정정보도의 책임 귀인이 인물과 매체에 대한 평가 변화에 미치는 영향. 방송통신연구, 112호, 32-64.
- 이예슬 (2021). [시대공감] 세상에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없다 - 국뽕의 이중성. 오늘의 문예비평, 187-193.
- 임소혜·김연수 (2011). 뉴스의 실시간성과 유인가가 시청자의 심리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 경제와 문화, 9권 2호, 44-84.
- 장승진·장한일 (2020). 당파적 양극화의 비정치적 효과. 한국정치학회보, 54권 5호, 153-175.
- 장휘·송경호 (2021). 코로나19와 한국 민족주의의 분화: ‘국뽕’ 유튜브의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과세계, 39호, 89-128.
- 정성욱 (2021). 팩트체크 뉴스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연구 : 팩트체크 뉴스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5권 1호, 235-282.
- 조은희 (2019). 뉴스 미디어의 이용과 신뢰가 가짜 뉴스의 인식, 식별,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언론과학연구, 19권 1호, 180-213.
- 차유리·유현재 (2012). 방사능 오염 식품 이슈 정보 추구, 처리 및 전달 역학에 대한 탐색. 한국언론학보, 56권 2호, 92-120.

- 하헌기 (2021, 4, 13). 미얀마도 돈벌이로 이용하는 ‘국뽕’ 콘텐츠.  
<시사IN>. URL: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299>
- 함선혜·임소혜 (2009). 영상 콘텐츠의 형식적 리얼리즘과 유인가가  
수용자의 심리적 반응에 미치는 효과 : 애니메이션과 실사  
동영상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3권 6호, 127 - 152.
- 허유진·정성은 (2016). 미디어 메시지 효과 지각의 정확성검증.  
한국언론학보, 60권 2호, 238-265.
- 황용석·권오성 (2017). 가짜뉴스의 개념화와 규제수단에 관한 연구.  
언론과법, 16권 1호, 53-101.
- Aird, M. J., Ecker, U. K. H., Swire, B., Berinsky, A. J., &  
Lewandowsky, S. (2018). Does truth matter to voters? The  
effects of correcting political misinformation in an Australian  
sample. *Royal Society Open Science*, 5(12), 180593.
- Allcott, H., & Gentzkow, M. (2017). Social media and fake news in  
the 2016 elec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1(2),  
211 - 236.
- Amazeen, M. A. (2015). Revisiting the epistemology of fact-checking.  
*Critical Review*, 27(1), 1 - 22.
- Amazeen, M. A., Thorson, E., Muddiman, A., & Graves, L. (2018).  
Correcting political and consumer misperceptions: The  
effectiveness and effects of rating scale versus contextual  
correction format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95(1), 28 - 48.
- Appelman, A., & Sundar, S. S. (2016). Measuring message credibility: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n exclusive scale.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93(1), 59 - 79.
- Appiah, O., Knobloch-Westerwick, S., & Alter, S. (2013). Ingroup

- favoritism and outgroup derogation: Effects of news valence, character race, and recipient race on selective news reading. *Journal of Communication*, 63(3), 517 - 534.
- Asekun, W. A. (2018). Structure versus process: Exploring the link between distributive and procedural justice beliefs and national identification among the peoples of Southern and Northern Nigeria. *Mediterran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9(5), 139-146.
- Ashforth, B. E., & Mael, F. (1989). Social identity theory and the organ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4(1), 20 - 39.
- Barrett, M. (2005). National identities in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S. Ding & K. Littleton (Eds.), *Children's personal and social development* (pp. 181 - 220). Blackwell Publishing.
- Barrett, M. (2007). *Children's knowledge, beliefs and feelings about nations and national groups*, Psychology Press.
- Barrett, M., & Oppenheimer, L. (2011). Findings, theories and methods in the study of children's national identifications and national attitudes.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8(1), 5 - 24.
- Baumeister, R. F., Bratslavsky, E., Finkenauer, C., & Vohs, K. D. (2001). Bad is stronger than good.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5(4), 323 - 370.
- Bhattacharya, C. B., Rao, H., & Glynn, M. A. (1995). Understanding the bond of identification: An investigation of its correlates among art museum members. *Journal of Marketing*, 59(4), 46 - 57.
- Blank, T., & Schmidt, P. (2003). National identity in a united Germany: Nationalism or patriotism? An empirical test with



- representative data. *Political Psychology*, 24(2), 289 - 312.
- Bode, L., & Vraga, E. K. (2018). See something, say something: Correction of global health misinformation on social media. *Health Communication*, 33(9), 1131 - 1140.
- Boothby, C., Murray, D., Waggy, A. P., Tsou, A., & Sugimoto, C. R. (2021). Credibility of scientific information on social media: Variation by platform, genre and presence of formal credibility cues. *Quantitative Science Studies*, 2(3), 845 - 863.
- Campbell, M. E., & Herman, M. R. (2010). Politics and policies: Attitudes toward multiracial Americans. *Ethnic and Racial Studies*, 33(9), 1511 - 1536.
- Cushion, S., Morani, M., Kyriakidou, M., & Soo, N. (2022). Why media systems matter: A fact-checking study of UK television news during the coronavirus pandemic. *Digital Journalism*, 10(5), 698 - 716.
- Davis, S. C., Leman, P. J., & Barrett, M. (2007). Children's implicit and explicit ethnic group attitudes, ethnic group identification, and self-esteem.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1(5), 514 - 525.
- De keersmaecker, J., & Roets, A. (2017). 'Fake news': Incorrect, but hard to correct : The role of cognitive ability on the impact of false information on social impressions. *INTELLIGENCE*, 65, 107 - 110.
- European Commission (2018).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disinformation: Report of the independent high level group on fake news and online disinformation*. Retrieved from <https://data.europa.eu/doi/10.2759/739290>
- Gallagher, E., & Cairns, E. (2011). National identity and

- in-group/out-group attitudes: Catholic and protestant children in Northern Ireland.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8(1), 58 - 73.
- Hogg, M. A., & Reid, S. A. (2006). Social identity, self-categorization, and the communication of group norms. *Communication Theory*, 16(1), 7 - 30.
- Hornsey, M. J. (2008). Social identity theory and self-categorization theory: A historical review.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204 - 222.
- Hovland, C. I., & Weiss, W. (1951). The influence of source credibility on communication effectiveness. *Public Opinion Quarterly*, 15, 635.
- Jones-Jang, S. M., Mortensen, T., & Liu, J. (2021). Does media literacy help identification of fake news? Information literacy helps, but other literacies don't.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65(2), 371 - 388.
- Kim, Y. (2015). Exploring the effects of source credibility and others' comments on online news evaluation. *Electronic News*, 9(3), 160 - 176.
- Kim, Y. M., & Garrett, K. (2012). On-line and memory-based: Revisi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andidate evaluation processing models. *Political Behavior*, 34(2), 345 - 368.
- Knobloch-Westerwick, S., & Hastall, M. R. (2010). Please your self: Social identity effects on selective exposure to news about in- and out-groups. *Journal of Communication*, 60(3), 515 - 535.
- Lam, V. L., & Corson, E.-J. (2013). National and ethnic identification, intergroup attitudes, and sport participation in the context of the London Olympic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 Psychology*, 31(4), 379 - 394.
- Lang, A., Dhillon, K., & Dong, Q. (1995). The effects of emotional arousal and valence on television viewers' cognitive capacity and memory.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39(3), 313 - 327.
- Lang, A., Park, B., Sanders-Jackson, A. N., Wilson, B. D., & Wang, Z. (2007). Cognition and emotion in TV message processing: How valence, arousing content, structural complexity, and information density affect the availability of cognitive resources. *Media Psychology*, 10(3), 317 - 338.
- Lewin, K. (1951). *Field theory in social science*. NY: Harper.
- Maheswaran, D., & Meyers-Levy, J. (1990). The influence of message framing and issue involvement.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7(3), 361 - 367.
- Nelson, S. C. (2008). Feeling thermometer. In P. J. Lavrakas (Ed.), *Encyclopedia of survey research methods* (pp. 275 - 277). SAGE.
- Newhagen, J. E., & Bucy, E. P. (2020, October 23). Overcoming resistance to COVID-19 vaccine adoption: How affective dispositions shape views of science and medicine. *Harvard Kennedy School Misinformation Review*.
- Nieminen, S., & Rapeli, L. (2019). Fighting misperceptions and doubting journalists' objectivity: A review of fact-checking literature. *Political Studies Review*, 17(3), 296 - 309.
- Nyhan, B., Porter, E., Reifler, J., & Wood, T. J. (2020). Taking fact-checks literally but not seriously? The effects of journalistic fact-checking on factual beliefs and candidate favorability. *Political Behavior*, 42(3), 939 - 960.

- Nyhan, B., & Reifler, J. (2010). When corrections fail: The persistence of political misperceptions. *Political Behavior, 32*(2), 303 - 330.
- Nyhan, B., & Reifler, J. (2019). The roles of information deficits and identity threat in the prevalence of misperceptions. *Journal of Elections, Public Opinion and Parties, 29*(2), 222 - 244.
- Peeters, G., & Czapinski, J. (1990). Positive-negative asymmetry in evaluations: The distinction between affective and informational negativity effect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1*(1), 33 - 60.
- Pennycook, G., Cannon, T. D., & Rand, D. G. (2018). Prior exposure increases perceived accuracy of fake new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47*(12), 1865 - 1880.
- Pennycook, G., & Rand, D. G. (2019). Lazy, not biased: Susceptibility to partisan fake news is better explained by lack of reasoning than by motivated reasoning. *Cognition, 188*, 39 - 50.
- Reizábal, L., & Ortiz, G. (2011). National identity and in-group/out-group attitudes with Basque and Basque-Spanish children growing up in the Basque Country.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8*(1), 98 - 115.
- Sbaffi, L., & Rowley, J. (2017). Trust and credibility in web-based health information: A review and agenda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19*(6), e218.
- Slater, M. D. (2007). Reinforcing spirals: The mutual influence of media selectivity and media effects and their impact on individual behavior and social identity. *Communication Theory, 17*(3), 281 - 303.
- Swire-Thompson, B., Ecker, U. K. H., Lewandowsky, S., & Berinsky, A. J. (2020). They might be a liar but they're my liar: Source

- evaluation and the prevalence of misinformation. *Political Psychology*, 41(1), 21 - 34.
- Tajfel, H., Billig, M. G., Bundy, R. P., & Flament, C. (1971). Social categorization and intergroup behaviou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 149 - 178.
- Tajfel, H., & Turner, J. C.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S. Worchel & W.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 7 - 24). Chicago, IL: Nelson Hall.
- Tanis, M., & Postmes, T. (2003). Social cues and impression formation in CMC. *Journal of Communication*, 53(4), 676 - 693.
- Thorson, E. (2016). Belief Echoes: The persistent effects of corrected misinformation. *Political Communication*, 33(3), 460 - 480.
- Tropp, L. R., & Wright, S. C. (2001). Ingroup identification as the inclusion of ingroup in the sel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5), 585 - 600.
- Turner, J. C., Brown, R. J., & Tajfel, H. (1979). Social comparison and group interest in ingroup favouritism.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9(2), 187 - 204.
- Turner, J. C., Hogg, M. A., Oakes, P. J., Reicher, S. D., & Wetherell, M. S. (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zation theory*. Basil Blackwell.
- Turner, J. C., & Oakes, P. J. (1986). The significance of the social identity concept for social psychology with reference to individualism, interactionism and social influenc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5(3), 237 - 252.
- United Nations, OSCE, OAS & ACHPR (2017). Joint declaration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Fake News”, disinformation and

propaganda. Retrieved from  
<https://www.osce.org/fom/302796?download=true>

Zhang, J., Featherstone, J. D., Calabrese, C., & Wojcieszak, M. (2021). Effects of fact-checking social media vaccine misinformation on attitudes toward vaccines. *Preventive Medicine, 145*, 106408.

## 부록

### [부록1] [자극물1 : 허위정보] <내집단, 긍정> 기사 (국제·정치)

N 뉴스 연애 | 스포츠 | 날씨 | 프리미엄

연론사별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세계 랭킹 신문보기 오피니언 TV 팩트체크

#### [간금] 국제안보연합 출범... 아시아 대표에 한국 선출

기사입력 2023.01.20 09:57

현 국제안보기구의 한계를 인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구상된 '국제안보연합'의 주요 국가이자 아시아 대표 국가로 한국이 선정되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전쟁 갈등 등 강성 위협이 잇따르는 가운데, 새로운 질서 수립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대규모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국제안보연합(Intercontinental Security Union, ICSU)이 바로 그것이다. 미국 유명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 소속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과 패트리샤 김 선임연구원은 미국을 비롯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를 아우르는 국제안보연합을 제안하였다.

해당 단체는 미국 주도의 단체가 아닌, 주요 5개 국가를 중심으로 당면 과제를 비롯해 국제 분쟁의 주요 문제를 다룰 것을 지칭했다. 이 가운데 한국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로 포함되어 주요한 의사결정을 주도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제안보연합 구상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현하며 관련하여 관계자들을 소집해 논의를 이어 나갔다.

### (사회·문화)

N 뉴스 연애 | 스포츠 | 날씨 | 프리미엄

연론사별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세계 랭킹 신문보기 오피니언 TV 팩트체크

#### [간금] 한국, 차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으로 선출

기사입력 2023.01.20 09:57

한국이 유엔 산하기구인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심사하는 세계유산위원회의 차기 의장국에 선출될 예정이다.

2022년 11월, 르몽드,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쿠즈네초프 주유네스코 러시아 대사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에 서한을 통해 의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매년 6~7월에 회의를 열어 세계유산 등재를 심사하며, 이는 문화유산 분야의 주요 국제 연례행사 중 하나이다. 유네스코는 지난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러시아 카잔에서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무기한 연장되는 등 운영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새로운 의장국 선출이 시급해졌다.

한국은 최근 유엔 체계 내 다양한 기구에서 이사국으로 선출됨에 따라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등 성과를 이뤄내며 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으로 선출되는 과정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 [부록2] [자극물1 : 허위 정보] <내 집 단, 부정> 기사 (국제·정치)

N 뉴스 | 연예 | 스포츠 | 날씨 | 프리미엄

연론사별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세계 랭킹 신문보기 오피니언 TV 팩트체크

### [긴급] 유라시아 대륙 연결하는 현대판 실크로드, 유엔 아시아태평양 양경제사회이사회(UN ESCAP) “한국 제외한다”

기사입력 2023.01.20 09:57

유라시아 대륙 32개국을 연결하는 국제 고속도로망으로 총 연장이 14만km에 달하는 아시아안 하이웨이에서 한국은 제외된다.

유럽 고속도로에 영향을 받아 UN 아시아태평양양경제사회위원회(ESCAP)에서 현대판 실크로드 건설을 목적으로 1959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도로교통 시스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작되었고, 2002년에 현재 공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시아안 하이웨이 네트워크가 확정되었다. 아시아안 하이웨이는 아시아 지역 32개국을 55개 노선 총 144,630km의 도로망이 통과하는 것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나라간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주변국들의 반대로 아시아안 하이웨이 네트워크에서 제외된 국가들이 있는데, 한국 역시 아시아안 하이웨이 프로젝트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아시아안 하이웨이 프로젝트가 완수된다면 무역 이점을 누릴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한국 정부는 해당 결정에 당혹감을 표하고 있다.

## (사회·문화)

N 뉴스 | 연예 | 스포츠 | 날씨 | 프리미엄

연론사별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세계 랭킹 신문보기 오피니언 TV 팩트체크

### [긴급] 유네스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자격박탈 결정... 강력 반발 한 한국 정부

기사입력 2023.01.20 09:57

세계 중요 유산을 결정하는 유네스코에서 열린 임시 총회에서 한국의 세계유산 퇴출이 결정되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세계문화유산 보존에 있어 한국이 유네스코가 권고한 사항을 위반한 것을 거론하며 한국의 부실한 관리를 지적하였다. 세계유산 등재만큼 보존 및 관리를 중요시하는 유네스코는 최근 한국의 세계문화유산들의 주변 지역에 진행되는 개발 프로젝트가 증가하면서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격 박탈을 결정하였다. 현재 정확히 자격박탈된 문화유산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유네스코 임시 총회의 결정은 신속하였고, 사무총장의 의견에 동조한 회원국들 역시 해당 결정에 서명하면서 더이상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알려졌다.

이는 세계문화유산 자격이 박탈된 사상 최초의 사례로서, 한국 정부는 해당 결정에 당혹감을 표하며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결정으로 향후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부록3] [자극물1 : 허위 정보] <외집단, 긍정> 기사 (국제·정치)

### 1) 태국



#### [긴급] 국제안보연합 출범... 아시아 대표에 태국 선출

기사입력 2023.01.20 09:57

현 국제안보기구의 한계를 인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구성된 '국제안보연합'의 주요 국가이자 아시아 대표 국가로 태국이 선정되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전쟁 갈등 등 강성 위협이 잇따르는 가운데, 새로운 질서 수립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대규모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국제안보연합(Intercontinental Security Union, ICSU)이 바로 그것이다. 미국 유명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 소속 브루스 콜링너 선임연구원과 패트리샤 킴 선임연구원은 미국을 비롯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를 아우르는 국제안보연합을 제안하였다.

해당 단체는 미국 주도의 단체가 아닌, 주요 5개 국가를 중심으로 당면 과제를 비롯해 국제 분쟁의 주요 문제를 다룰 것을 지정했다. 이 가운데 태국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로 포함되어 주요한 의사결정을 주도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제안보연합 구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현하며 관련하여 관계자들을 소집해 논의를 이어 나갔다.

### 2) 싱가포르



#### [긴급] 국제안보연합 출범... 아시아 대표에 싱가포르 선출

기사입력 2023.01.20 09:57

현 국제안보기구의 한계를 인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구성된 '국제안보연합'의 주요 국가이자 아시아 대표 국가로 싱가포르가 선정되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전쟁 갈등 등 강성 위협이 잇따르는 가운데, 새로운 질서 수립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대규모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국제안보연합(Intercontinental Security Union, ICSU)이 바로 그것이다. 미국 유명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 소속 브루스 콜링너 선임연구원과 패트리샤 킴 선임연구원은 미국을 비롯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를 아우르는 국제안보연합을 제안하였다.

해당 단체는 미국 주도의 단체가 아닌, 주요 5개 국가를 중심으로 당면 과제를 비롯해 국제 분쟁의 주요 문제를 다룰 것을 지정했다. 이 가운데 싱가포르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로 포함되어 주요한 의사결정을 주도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제안보연합 구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현하며 관련하여 관계자들을 소집해 논의를 이어 나갔다.

### 3) 인도네시아

#### [긴급] 국제안보연합 출범... 아시아 대표에 인도네시아 선출

기사입력 2023.01.20 09:57

현 국제안보기구의 한계를 인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구성된 '국제안보연합'의 주요 국가이자 아시아 대표 국가로 인도네시아가 선정되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진영 갈등 등 강성 위협이 잇따르는 가운데, 새로운 질서 수립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대규모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국제안보연합(Intercontinental Security Union, ICSU)이 바로 그것이다. 미국 유명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 소속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과 패트리샤 김 선임연구원은 미국을 비롯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를 아우르는 국제안보연합을 제안하였다.

해당 단체는 미국 주도의 단체가 아닌, 주요 5개 국가를 중심으로 당면 과제를 비롯해 국제 분쟁의 주요 문제를 다룰 것을 저정했다.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로 포함되어 주요한 의사결정을 주도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제안보연합 구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현하며 관련하여 관계자들을 소집해 논의를 이어 나갔다.

### (사회·문화)

#### 1) 태국

#### [긴급] 태국, 차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으로 선출

기사입력 2023.01.20 09:57

태국이 유엔 산하기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심사하는 세계유산위원회의 차기 의장국에 선출될 예정이다.

2022년 11월, 르몽드,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쿠즈네초프 주유네스코 러시아 대사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에 서한을 통해 의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매년 6~7월에 회의를 열어 세계유산 등재를 심사하며, 이는 문화유산 분야의 주요 국제 연례행사 중 하나이다. 유네스코는 지난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러시아 카잔에서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무기한 연장되는 등 운영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새로운 의장국 선출이 시급해졌다.

태국은 최근 유엔 체제 내 다양한 기구에서 이사국으로 선출됨에 따라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등 성과를 이뤄내며 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으로 선출되는 과정에 힘을 실을 전망이며,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 2) 싱가포르



### [긴급] 싱가포르, 차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으로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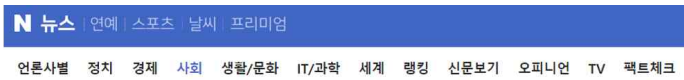
기사입력 2023.01.20 09:57

싱가포르가 유엔 산하기구인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심사하는 세계유산위원회의 차기 의장국에 선출될 예정이다.

2022년 11월, 르몽드,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쿠즈네초프 주유네스코 러시아 대사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에 서한을 통해 의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매년 6~7월에 회의를 열어 세계유산 등재를 심사하며, 이는 문화유산 분야의 주요 국제 연례행사 중 하나이다. 유네스코는 지난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러시아 기간에서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무기한 연장되는 등 운영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새로운 의장국 선출이 시급해졌다.

싱가פור는 최근 유엔 체제 내 다양한 기구에서 이사국으로 선출됨에 따라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등 성과를 이뤄내며 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으로 선출되는 과정에 힘을 실을 전망이며,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 3) 인도네시아



### [긴급] 인도네시아, 차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으로 선출

기사입력 2023.01.20 09:57

인도네시아가 유엔 산하기구인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심사하는 세계유산위원회의 차기 의장국에 선출될 예정이다.

2022년 11월, 르몽드,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쿠즈네초프 주유네스코 러시아 대사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에 서한을 통해 의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매년 6~7월에 회의를 열어 세계유산 등재를 심사하며, 이는 문화유산 분야의 주요 국제 연례행사 중 하나이다. 유네스코는 지난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러시아 기간에서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무기한 연장되는 등 운영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새로운 의장국 선출이 시급해졌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유엔 체제 내 다양한 기구에서 이사국으로 선출됨에 따라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등 성과를 이뤄내며 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으로 선출되는 과정에 힘을 실을 전망이며,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 [부록4] [자극물1 : 허위 정보] <외집단, 부정> 기사 (국제·정치)

### 1) 태국

N 뉴스 | 연예 | 스포츠 | 날씨 | 프리미엄

연론사별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세계 랭킹 신문보기 오피니언 TV 팩트체크

#### [긴급] 유라시아 대륙 연결하는 현대판 실크로드, 유엔 아시아태평양 양경제사회이사회(UN ESCAP) “태국 제외한다”

기사입력 2023.01.20 09:57

유라시아 대륙 32개국을 연결하는 국제 고속도로망으로 총 연장이 14만km에 달하는 아시아안 하이웨이에서 태국은 제외된다.

유럽 고속도로에 영향을 받아 UN 아시아태평양양경제사회위원회(ESCAP)에서 현대판 실크로드 건설을 목적으로 1959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도로교통 시스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작되었고, 2002년에 현재 공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시아안 하이웨이 네트워크가 확정되었다. 아시아안 하이웨이는 아시아 지역 32개국을 55개 노선 중 144,630km의 도로망이 통과하는 것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나라간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주변국들의 반대로 아시아안 하이웨이 네트워크에서 제외된 국가들이 있는데, 태국 역시 아시아안 하이웨이 프로젝트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아시아안 하이웨이 프로젝트가 완수된다면 무역 이점을 누릴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태국 정부는 해당 결정에 당혹감을 표하고 있다.

### 2) 싱가포르

N 뉴스 | 연예 | 스포츠 | 날씨 | 프리미엄

연론사별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세계 랭킹 신문보기 오피니언 TV 팩트체크

#### [긴급] 유라시아 대륙 연결하는 현대판 실크로드, 유엔 아시아태평양 양경제사회이사회(UN ESCAP) “싱가포르 제외한다”

기사입력 2023.01.20 09:57

유라시아 대륙 32개국을 연결하는 국제 고속도로망으로 총 연장이 14만km에 달하는 아시아안 하이웨이에서 싱가포르는 제외된다.

유럽 고속도로에 영향을 받아 UN 아시아태평양양경제사회위원회(ESCAP)에서 현대판 실크로드 건설을 목적으로 1959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도로교통 시스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작되었고, 2002년에 현재 공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시아안 하이웨이 네트워크가 확정되었다. 아시아안 하이웨이는 아시아 지역 32개국을 55개 노선 중 144,630km의 도로망이 통과하는 것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나라간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주변국들의 반대로 아시아안 하이웨이 네트워크에서 제외된 국가들이 있는데, 싱가포르 역시 아시아안 하이웨이 프로젝트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아시아안 하이웨이 프로젝트가 완수된다면 무역 이점을 누릴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싱가포르 정부는 해당 결정에 당혹감을 표하고 있다.

### 3) 인도네시아

**N 뉴스** 연애 | 스포츠 | 날씨 | 프리미엄

연론사별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세계 랭킹 신문보기 오피니언 TV 팩트체크

#### [긴급] 유라시아 대륙 연결하는 현대판 실크로드, 유엔 아시아태평양 양경제사회이사회(UN ESCAP) “인도네시아 제외한다”

기사입력 2023.01.20 09:57

유라시아 대륙 32개국을 연결하는 국제 고속도로망으로 총 연장이 14만km에 달하는 아시아안 하이웨이에서 인도네시아는 제외된다.

유럽 고속도로에 영향을 받아 UN 아시아태평양양경제사회위원회(ESCAP)에서 현대판 실크로드 건설을 목적으로 1959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도로교통 시스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작되었고, 2002년에 현재 공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시아 하이웨이 네트워크가 확정되었다. 아시아 하이웨이는 아시아 지역 32개국을 5개 노선 총 144,630km의 도로망이 통과하는 것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나라간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주변국들의 반대로 아시아안 하이웨이 네트워크에서 제외된 국가들이 있는데, 인도네시아 역시 아시아안 하이웨이 프로젝트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아시아안 하이웨이 프로젝트가 완수된다면 무역 이점을 누릴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당 결정에 당혹감을 표하고 있다.

### (사회·문화)

#### 1) 태국

**N 뉴스** 연애 | 스포츠 | 날씨 | 프리미엄

연론사별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세계 랭킹 신문보기 오피니언 TV 팩트체크

#### [긴급] 유네스코, 태국의 세계문화유산 자격박탈 결정... 강력 반발 한 태국 정부

기사입력 2023.01.20 09:57

세계 중요 유산을 결정하는 유네스코에서 열린 임시 총회에서 태국의 세계유산 퇴출이 결정되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세계문화유산 보존에 있어 태국이 유네스코가 권고한 사항을 위반한 것을 거론하며 태국의 부실한 관리를 지적하였다. 세계유산 등재만큼 보존 및 관리를 중요시하는 유네스코는 최근 태국의 세계문화유산들의 주변 지역에 진행되는 개발 프로젝트가 증가하면서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격 박탈을 결정하였다. 현재 정확히 자격박탈된 문화유산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유네스코 임시 총회의 결정은 신속하였고, 사무총장의 의견에 동조한 회원국들 역시 해당 결정에 서명하면서 더 이상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알려졌다.

이는 세계문화유산 자격이 박탈된 사상 최초의 사례로서, 태국 정부는 해당 결정에 당혹감을 표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해당 결정으로 향후 태국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2) 싱가포르

**N 뉴스** 연예 | 스포츠 | 날씨 | 프리미엄

연론사별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세계 랭킹 신문보기 오피니언 TV 팩트체크

### [긴급] 유네스코, 싱가포르의 세계문화유산 자격박탈 결정... 강력 반발한 싱가포르 정부

기사입력 2023.01.20 09:57

세계 중요 유산을 결정하는 유네스코에서 열린 임시 총회에서 싱가포르의 세계유산 퇴출이 결정되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세계문화유산 보존에 있어 싱가포르가 유네스코가 권고한 사항을 위반한 것을 거론하며 싱가포르의 부실한 관리를 지적하였다. 세계유산 등재만큼 보존 및 관리를 중요시하는 유네스코는 최근 싱가포르의 세계문화유산들의 주변 지역에 진행되는 개발 프로젝트가 증가하면서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격 박탈을 결정하였다. 현재 정확히 자격박탈된 문화유산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유네스코 임시 총회의 결정은 신속하였고, 사무총장의 의견에 동조한 회원국들 역시 해당 결정에 서명하면서 더 이상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알려졌다.

이는 세계문화유산 자격이 박탈된 사상 최초의 사례로서, 싱가포르 정부는 해당 결정에 당혹감을 표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해당 결정으로 향후 싱가포르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3) 인도네시아

**N 뉴스** 연예 | 스포츠 | 날씨 | 프리미엄

연론사별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세계 랭킹 신문보기 오피니언 TV 팩트체크

### [긴급] 유네스코, 인도네시아의 세계문화유산 자격박탈 결정... 강력 반발한 인도네시아 정부

기사입력 2023.01.20 09:57

세계 중요 유산을 결정하는 유네스코에서 열린 임시 총회에서 인도네시아의 세계유산 퇴출이 결정되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세계문화유산 보존에 있어 인도네시아가 유네스코가 권고한 사항을 위반한 것을 거론하며 인도네시아의 부실한 관리를 지적하였다. 세계유산 등재만큼 보존 및 관리를 중요시하는 유네스코는 최근 인도네시아의 세계문화유산들의 주변 지역에 진행되는 개발 프로젝트가 증가하면서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격 박탈을 결정하였다. 현재 정확히 자격박탈된 문화유산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유네스코 임시 총회의 결정은 신속하였고, 사무총장의 의견에 동조한 회원국들 역시 해당 결정에 서명하면서 더 이상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알려졌다.

이는 세계문화유산 자격이 박탈된 사상 최초의 사례로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당 결정에 당혹감을 표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해당 결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부록5] [자극물2 : 팩트체크] <내 집 단, 긍정> 기사 (국제·정치)

**N 뉴스** 연예 | 스포츠 | 날씨 | 프리미엄  
 언론사별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세계 랭킹 신문보기 오피니언 TV 팩트체크

**[팩트체크] 국제안보연합 출범… 아시아 대표에 한국 선출?**  
 기사입력 2023.01.24 09:57

**N 뉴스** 연예 | 스포츠 | 날씨 | 프리미엄  
 언론사별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세계 랭킹 신문보기 오피니언 TV 팩트체크

**[간담] 국제안보연합 출범… 아시아 대표에 한국 선출**

전혀 사실 아님

팩트체크 결과, 해당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님'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현 국제안보기구의 한계를 인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세계 각국이 힘을 모으자는 취지의 '국제안보연합' (Intercontinental Security Union, ICSU)은 존재하지 않는 기관입니다. 또한 해당 부문에 언급된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헤리티지 재단 소속이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관계자들을 소집하였다는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초국가적인 국제안보연합의 아시아 대표에 한국이 선출되었다는 해당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Copyright © factcheck.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회·문화)

**N 뉴스** 연예 | 스포츠 | 날씨 | 프리미엄  
 언론사별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세계 랭킹 신문보기 오피니언 TV 팩트체크

**[팩트체크] 한국, 차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으로 선출?**  
 기사입력 2023.01.24 09:57

**N 뉴스** 연예 | 스포츠 | 날씨 | 프리미엄  
 언론사별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세계 랭킹 신문보기 오피니언 TV 팩트체크

**[간담] 한국, 차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으로 선출**

전혀 사실 아님

팩트체크 결과, 해당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님'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위원회 의장이 사퇴했을 때 영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후임 의장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후임 의장직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맡게 되었습니다. 총 21개 유네스코 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유산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의장국에서 회의를 열어 신규 세계 유산 등재 여부를 결정하며,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측은 올해 9월 자국 수도 리야드에서 회의를 개최하고자 제안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차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 선출에 관한 해당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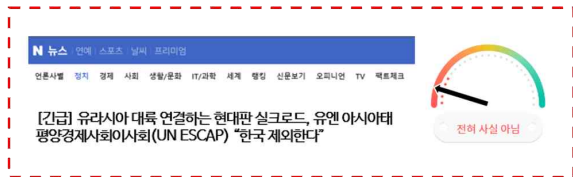
Copyright © factcheck.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록6] [자극물2 : 팩트체크] <내집단, 부정> 기사  
(국제·정치)



**[팩트체크] 유라시아 대륙 연결하는 현대판 실크로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 ESCAP) “한국 제외한다” ?**

기사입력 2023.01.24 09:57



팩트체크 결과, 해당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님'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시아안 하이웨이 AH1 및 AH6 등 2개의 노선이 우리나라를 통과하고, 부산이 노선의 기점이자 종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AH1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 튀르키예로 이어지는 노선이며, AH6은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을 거쳐 유럽까지 진출하는 노선입니다.

따라서,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현대판 실크로드, 아시아안 하이웨이에 한국이 제외되었다는 해당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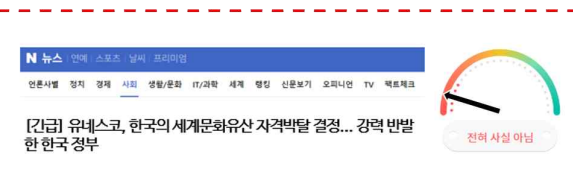
Copyright © factcheck.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문화)



**[팩트체크] 유네스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자격박탈 결정... 강력 반발한 한국 정부?**

기사입력 2023.01.24 09:57



팩트체크 결과, 해당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님'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심사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연기되어 올해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한국은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부실한 관리를 지적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더불어, 세계문화유산 자격이 박탈된 사상 최초의 사례는 2009년, 독일 드레스덴 엘베계곡으로, 당국이 추진 중인 대규모 교량 건설이 엘베계곡의 가치를 크게 훼손시킨다는 사유로 박탈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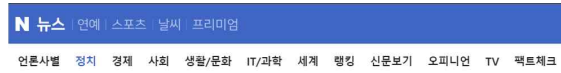
따라서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자격 박탈에 관한 해당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Copyright © factcheck.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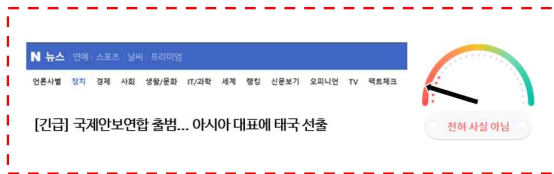
## [부록7] [자극물2 : 팩트체크] <외집단, 긍정> 기사 (국제·정치)

### 1) 태국



#### [팩트체크] 국제안보연합 출범... 아시아 대표에 태국 선출?

기사입력 2023.01.24 09:57



팩트체크 결과, 해당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님'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한 국제안보기구의 한계를 인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세계 각국이 힘을 모으자는 취지의 '국제안보연합' (Intercontinental Security Union, ICSU)은 존재하지 않는 기관입니다. 또한 해당 본문에 언급된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헤리티지 재단 소속이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관계자들을 소집하였다는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초국가적인 국제안보연합의 아시아 대표에 태국이 선출되었다는 해당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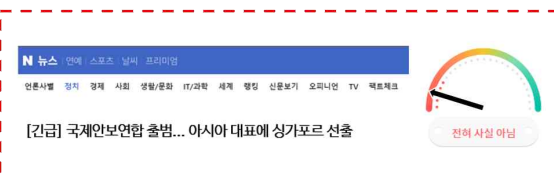
Copyright © factcheck.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 싱가포르



#### [팩트체크] 국제안보연합 출범... 아시아 대표에 싱가포르 선출?

기사입력 2023.01.24 09:57



팩트체크 결과, 해당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님'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한 국제안보기구의 한계를 인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세계 각국이 힘을 모으자는 취지의 '국제안보연합' (Intercontinental Security Union, ICSU)은 존재하지 않는 기관입니다. 또한 해당 본문에 언급된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헤리티지 재단 소속이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관계자들을 소집하였다는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초국가적인 국제안보연합의 아시아 대표에 싱가포르가 선출되었다는 해당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Copyright © factcheck.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 인도네시아


**N 뉴스** | 연애 | 스포츠 | 날씨 | 프리미엄  
언론사별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세계 랭킹 신문보기 오피니언 TV 팩트체크

#### [팩트체크] 국제안보연합 출범... 아시아 대표에 인도네시아 선출?

기사입력 2023.01.24 09:57

**N 뉴스** | 연애 | 스포츠 | 날씨 | 프리미엄  
언론사별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세계 랭킹 신문보기 오피니언 TV 팩트체크

#### [긴급] 국제안보연합 출범... 아시아 대표에 인도네시아 선출



전혀 사실 아님

팩트체크 결과, 해당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님'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현 국제안보기구의 한계를 인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세계 각국이 힘을 모으자는 취지의 '국제안보연합' (Intercontinental Security Union, ICSU)은 존재하지 않는 기관입니다. 또한 해당 본문에 언급된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해리티지 재단 소속이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관계자들을 소집하였다는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초국가적인 국제안보연합의 아시아 대표에 인도네시아가 선출되었다는 해당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Copyright © factcheck.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회·문화)

#### 1) 태국


**N 뉴스** | 연애 | 스포츠 | 날씨 | 프리미엄  
언론사별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세계 랭킹 신문보기 오피니언 TV 팩트체크

#### [팩트체크] 태국, 차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으로 선출?

기사입력 2023.01.24 09:57

**N 뉴스** | 연애 | 스포츠 | 날씨 | 프리미엄  
언론사별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세계 랭킹 신문보기 오피니언 TV 팩트체크

#### [긴급] 태국, 차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으로 선출



전혀 사실 아님

팩트체크 결과, 해당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님'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위원회 의장이 사퇴했을 때 영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후임 의장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후임 의장직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맡게 되었습니다. 총 21개 유네스코 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유산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의장국에서 회의를 열어 신규 세계 유산 등재 여부를 결정하며,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측은 올해 9월 자국 수도 리야드에서 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태국의 차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 선출에 관한 해당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Copyright © factcheck.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 싱가포르



팩트체크 결과, 해당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님'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위원회 의장이 사퇴했을 때 영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후임 의장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후임 의장직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맡게 되었습니다. 총 21개 유네스코 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유산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의장국에서 회의를 열어 신규 세계 유산 등재 여부를 결정하며,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측은 올해 9월 자국 수도 리야드에서 회의를 개최하고자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차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 선출에 관한 해당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Copyright © factcheck.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 인도네시아



팩트체크 결과, 해당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님'으로 판명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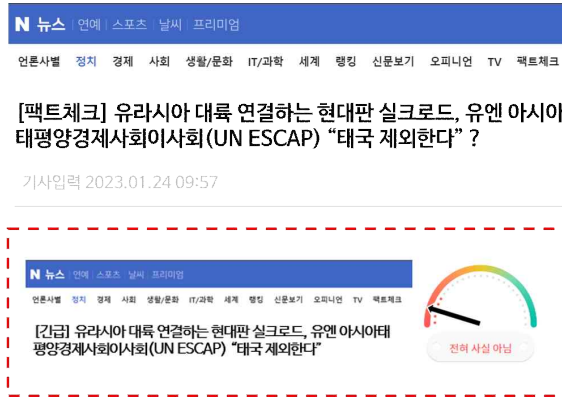
세계유산위원회는 위원회 의장이 사퇴했을 때 영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후임 의장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후임 의장직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맡게 되었습니다. 총 21개 유네스코 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유산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의장국에서 회의를 열어 신규 세계 유산 등재 여부를 결정하며,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측은 올해 9월 자국 수도 리야드에서 회의를 개최하고자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차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 선출에 관한 해당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Copyright © factcheck.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록8] [자극물2 : 팩트체크] <외집단, 부정> 기사 (국제·정치)

### 1) 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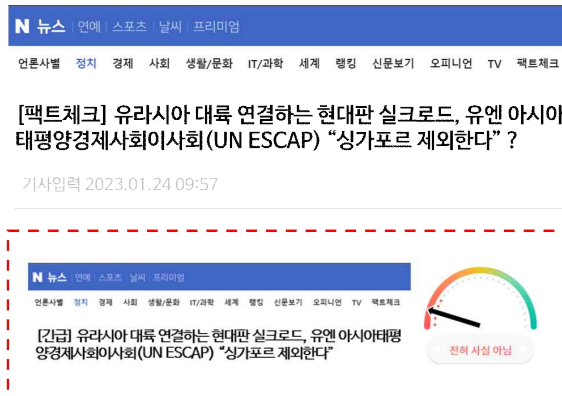
팩트체크 결과, 해당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님'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태국에서는 아시안 하이웨이 AH19, AH12, AH18 등의 노선이 태국을 통과합니다. AH19, 노선은 태국의 나콘랏차시마에서 방콕까지 이어주는 노선망이며, AH12는 라오스 루앙남타에서 태국 사리부리 주 농개 군까지 이어주는 노선망으로 태국을 통과하게 됩니다. AH18은 태국의 청아어에서 말레이시아의 조호르바루까지 이어주는 노선망이자 고속도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현대판 실크로드, 아시안 하이웨이에 태국이 제외되었다는 해당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Copyright © factcheck.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 싱가포르



팩트체크 결과, 해당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님'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아시안 하이웨이 AH2, AH143 등의 노선이 싱가포르를 통과합니다. AH2는 인도네시아 발라에서 출발하여 말레이시아와 인도를 거쳐 이란에서 끝나는 노선망으로서, 싱가포르는 경유지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AH143은 싱가포르의 썬강과 말레이시아 조호르주의 세나이까지 이어주는 노선망입니다.

따라서,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현대판 실크로드, 아시안 하이웨이에 싱가포르가 제외되었다는 해당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Copyright © factcheck.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 인도네시아


**N 뉴스** | 연애 | 스포츠 | 날씨 | 프리미엄  
인문사별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세계 탱킹 신문보기 오피니언 TV 팩트체크

**[팩트체크] 유라시아 대륙 연결하는 현대판 실크로드, 유엔 아시아태평양양경제사회이사회(UN ESCAP) “인도네시아 제외한다” ?**

기사입력 2023.01.24 09:57

**N 뉴스** | 연애 | 스포츠 | 날씨 | 프리미엄  
인문사별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세계 탱킹 신문보기 오피니언 TV 팩트체크

**[긴급] 유라시아 대륙 연결하는 현대판 실크로드, 유엔 아시아태평양양경제사회이사회(UN ESCAP) “인도네시아 제외한다”**



เท็จ 사실 아님

팩트체크 결과, 해당 기사는 'เท็จ 사실이 아님'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시아안 하이웨이 AH2 등의 노선이 인도네시아를 통과합니다. AH2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출발하여 말레이시아와 인도를 거쳐 이란에서 끝나는 노선망으로서, 인도네시아는 출발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더불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자바 섬, 자바 섬에서 싱가포르까지의 구간은 바다로 끊겨있어 해당 구간은 카페리로 간접연결합니다.

따라서,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현대판 실크로드, 아시아 하이웨이에 인도네시아가 제외되었다는 해당 기사는เท็จ 사실이 아닙니다.

Copyright© factcheck.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회·문화)

#### 1) 태국

**N 뉴스** | 연애 | 스포츠 | 날씨 | 프리미엄  
인문사별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세계 탱킹 신문보기 오피니언 TV 팩트체크

**[팩트체크] 유네스코, 태국의 세계문화유산 자격박탈 결정... 강력 반발한 태국 정부?**

기사입력 2023.01.24 09:57

**N 뉴스** | 연애 | 스포츠 | 날씨 | 프리미엄  
인문사별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세계 탱킹 신문보기 오피니언 TV 팩트체크

**[긴급] 유네스코, 태국의 세계문화유산 자격박탈 결정... 강력 반발한 태국 정부**



เท็จ 사실 아님

팩트체크 결과, 해당 기사는 'เท็จ 사실이 아님'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심사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연기되어 올해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태국은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부실한 관리를 지적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더불어, 세계문화유산 자격이 박탈된 사상 최초의 사례는 2009년, 독일 드레스덴 엘베계곡으로, 당국이 추진 중인 대규모 교량 건설이 엘베계곡의 가치를 크게 훼손시킨다는 사유로 박탈되었습니다.

따라서 태국의 세계문화유산 자격 박탈에 관한 해당 기사는เท็จ 사실이 아닙니다.

Copyright© factcheck.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 싱가포르

**N 뉴스** 연애 | 스포츠 | 날씨 | 프리미엄

연론사별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세계 탕킹 신문보기 오피니언 TV 팩트체크

### [팩트체크] 유네스코, 싱가포르의 세계문화유산 자격박탈 결정... 강력 반발한 싱가포르 정부?

기사입력 2023.01.24 09:57

**N 뉴스** 연애 | 스포츠 | 날씨 | 프리미엄

연론사별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세계 탕킹 신문보기 오피니언 TV 팩트체크

#### [간담] 유네스코, 싱가포르의 세계문화유산 자격박탈 결정... 강력 반발한 싱가포르 정부

전혀 사실 아님

팩트체크 결과, 해당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님'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심사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연기되어 올해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싱가포르는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부실한 관리를 지적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더불어, 세계문화유산 자격이 박탈된 사상 최초의 사례는 2009년, 독일 드레스덴 엘베계곡으로, 당국이 추진 중인 대규모 교량 건설이 엘베계곡의 가치를 크게 훼손시킨다는 사유로 박탈되었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세계문화유산 자격 박탈에 관한 해당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Copyright © factcheck.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 인도네시아

**N 뉴스** 연애 | 스포츠 | 날씨 | 프리미엄

연론사별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세계 탕킹 신문보기 오피니언 TV 팩트체크

### [팩트체크] 유네스코, 인도네시아의 세계문화유산 자격박탈 결정... 강력 반발한 인도네시아 정부?

기사입력 2023.01.24 09:57

**N 뉴스** 연애 | 스포츠 | 날씨 | 프리미엄

연론사별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세계 탕킹 신문보기 오피니언 TV 팩트체크

#### [간담] 유네스코, 인도네시아의 세계문화유산 자격박탈 결정... 강력 반발한 인도네시아 정부

전혀 사실 아님

팩트체크 결과, 해당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님'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심사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연기되어 올해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부실한 관리를 지적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더불어, 세계문화유산 자격이 박탈된 사상 최초의 사례는 2009년, 독일 드레스덴 엘베계곡으로, 당국이 추진 중인 대규모 교량 건설이 엘베계곡의 가치를 크게 훼손시킨다는 사유로 박탈되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세계문화유산 자격 박탈에 관한 해당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Copyright © factcheck.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bstract

The Influence of in-group  
favoritism on acceptance of  
misinformation and  
fact-checking results

Jiwon Kim

Department of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the spread of misinformation accelerates further, fact-checking grows in importance as do related social concerns.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misinformation that can influence acceptance of misinformation and fact-checking. While previous studies have primarily addressed misinformation with negative content, there has been little discussion on the effects of misinformation with positive content. Therefore, I focus on whether the valence of the

misinformation influences the acceptance of misinformation and fact-checking. Considering that the effect of valence of the misinformation varies depending on who is the target of misinformation, I categorize misinformation target as in-group and out-group based on group identity. Furthermore, I investigate whether individual level of group identification can moderate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valence of misinformation and the group identity of the misinformation target. This study examines not only the cognitive aspects of message credibility but also attitudes toward the misinformation target as dependent variables.

In order to test the research hypotheses and answer of the research questions, I conducted an online experiment(N= 680), using a 2(the valence of misinformation: positive vs. negative) x 2(the group identity of the misinformation target: in-group vs. out-group) between-subject factorial design. In result, the effect of misinformation valence on the credibility of misinformation was greater when the target of misinformation was in-group than when the target of misinformation was out-group. In addition, for positive misinforma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credibility of misinformation when the target of misinformation was in-group or out-group, but for negative misinformation, credibility of misinformation was higher when the target was an out-group than when it was an in-group. When the topic of misinformation is socio-cultural issue,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valence of misinformation and the group identity of the misinformation



target became stronger as news users' group identification increased. However, neither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valence of misinformation and the group identity of the misinformation target nor the moderating effect of group identification on the credibility of fact-checking were significant.

In terms of attitudes towards the target of misinformation, it was found that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valence of misinformation and the group identity of the misinformation target was significant. For positive misinformation, the attitude toward the misinformation target was more favorable when the target was an in-group than when it was an out-group, but for negative misinformation, the attitude toward misinformation target was more unfavorable when the target was an in-group than when it was an out-group. Meanwhile, when an in-group was the target of misinformation, the change in attitude before and after the fact check was greater in the direction of the fact check results than when an out-group was the target of misinformation. Finally, regarding a moderating effect based on the level of group identification, the greater the level of group identification, the greater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valence of misinformation and the group identity of the misinformation target. In the case that the topic of misinformation is socio-cultural issue, this moderating effect was also found when comparing the change in attitude toward the target before and after fact checking.

Given that misinformation has mainly been studied as negatively valenc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ntribute to

broadening the discussion on misinformation by examining positive misinformation. The study found differences in information acceptance based not only on the valence of misinformation but also on whether the target of misinformation is “us” or “them” and the strength of group identification. The study demonstrated that the effect of fact checking is significant in terms of attitude towards the target as well as in terms of the cognitive aspects of message credibility. Drawing upon these outcomes, this study can pave the way for practical implications in the field of fact-checking journalism.

**keywords : misinformation, fact-check, valence, group identity,  
in-group favoritism, group identification**

*Student Number : 2020-29427*